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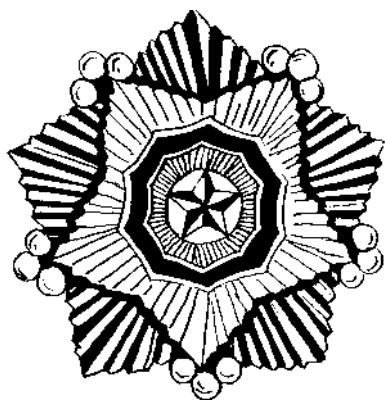


2

주체 102 (2013)

문학예술출판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2(2013)년 제2호

(루계 제784호)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김 정 은

차 례

~~~~~ 김정일장군님은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태양 ~~~~~

|                         |          |
|-------------------------|----------|
| 영원하여라 신군태양의 노래(시) ..... | 김 희 남(4) |
| 푸른 산 푸른 들(가사) .....     | 홍 민 식(4) |
| 햇 자욱(시) .....           | 정 서 촌(5) |

|                            |     |
|----------------------------|-----|
| <b>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b> ..... | (5) |
|----------------------------|-----|

|                        |          |
|------------------------|----------|
| 소백수굴의 벼들꽃을 보며(시) ..... | 김 길 성(6) |
| 절세의 애국자(시) .....       | 류 명 호(6) |

|                       |     |
|-----------------------|-----|
| <b>주체문학의 대강</b> ..... | (9) |
|-----------------------|-----|

|                                                |          |
|------------------------------------------------|----------|
| 승고한 조국애가 뜨겁게 맥박치는<br>불멸의 조국찬가 《제일강산》(평론) ..... | 정 금 순(8) |
|------------------------------------------------|----------|

|                          |           |
|--------------------------|-----------|
| <b>단편소설</b> 대지의 풍경 ..... | 황 동 선(12) |
|--------------------------|-----------|

|                                              |           |
|----------------------------------------------|-----------|
|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br>불멸의 업적 영원히 빛나리(평론) ..... | 박 춘 택(25) |
|----------------------------------------------|-----------|

|                                                     |      |
|-----------------------------------------------------|------|
|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br>온 세상에 울려 퍼지기까지(혁명일화) ..... | (23) |
|-----------------------------------------------------|------|

|                          |           |
|--------------------------|-----------|
| 태양의 영원한 미소앞에(외 1편) ..... | 문 동 식(10) |
| 태양의 집 .....              | 정 두 국(11) |
| 장군님처럼 조국을 사랑하자 .....     | 김 석 주(22) |
| 시 장산은 푸르다 .....          | 류 민 호(24) |
| 영광에 대한 시 .....           | 김 정 곤(31) |
| 아 철령아 .....              | 주 경(32)   |
| 우리는 축복받은 지식인(가사) .....   | 채 근 수(7)  |

#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어나가자!

## ◇ 평 론 ◇

|                                |           |
|--------------------------------|-----------|
| 태양송가로 빛나는 백인존의 숭고한 시형상세계 ..... | 리 주 정(35) |
| 시력환상과 사색이 비낀 시어(단평) .....      | 리 동 수(51) |

### 단편 소설

|                   |           |
|-------------------|-----------|
| 새 령마루(실화문학) ..... | 홍 남 수(42) |
| 언약 .....          | 안 동 춘(53) |
| 봄 .....           | 리 명(66)   |

### 수

|                  |           |
|------------------|-----------|
| 우리 장군님과 시간 ..... | 강 혜 옥(30) |
|------------------|-----------|

### 필

|                        |           |
|------------------------|-----------|
| 인민이란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 | 전 이 련(40) |
|------------------------|-----------|

## ○ 시 ○

|                          |                        |
|--------------------------|------------------------|
| 빛나는 별의 노래 .....          | 문 용 철(33)              |
| 조선의 2012년이 우주에 올랐다 ..... | 한 동 선(33)              |
| 격정의 쉼 .....              | 변 흥 영(50)              |
| 영웅들의 말 .....             | 오 정 로(65)              |
| 전우들에게 .....              | 김 철 혁(41)              |
| 만출선 멋이로세(가사) .....       | 김 정 삼(34)              |
| 그날이 보인다 .....            | 함 영 주(52)              |
| 세포등판에서 .....             | 성 연 일(78)              |
| 개발지의 첫아침에 .....          | 박 성 일(79)              |
| 상식 .....                 | (32), (39), (79), (80) |

표지3면: 《아 그리워》(노래)

# 영원하여라 선군태양의 노래

김 희 남

아침이면 아침마다  
노을피는 이 강산에 울려퍼진다  
세대를 이어 어제도 오늘도  
희망찬 새날의 창문을 열어주는 노래

한평생 조국과 인민위해  
나라의 새벽문 먼저 여시며  
이 땅우에 만복을 꽃피우신  
아버이장군님의 크나큰 은덕  
가슴뜨겁게 새겨주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아, 《**김정일**장군의 노래》

태양의 빛발 우주에 넘치듯이  
우리 장군님의 노래 누리에 울려가라  
기쁠 때도 어려울 때에도  
힘차게 부르고부른 우리 삶의 노래  
시련의 눈서리에 난알 한줄 귀할 때에도  
이 노래 부르면 배심든든해  
발전소언제도 단숨에 일떠세웠고  
세상사람 놀래우는 창조물들 일떠세웠나니

구절구절 노래속에 가슴가득 안겨와라  
선군령장의 전선길 천만리

가 사

인민이 사는 곳 그 어디나 남기신  
사랑의 자욱자욱

천만군민의 대합창 강산에 넘쳐  
대지의 천만꽃들이 세세년년  
아버이 그 사랑 전하고 전하리  
동서해 푸른 물도 그이의 불멸의 업적  
만대에 전하며 길이길이 노래하리

대를 이어 부를 선군태양의 노래  
한마음한뜻으로 부르고부르며  
우리모두 장군님의 전사  
장군님의 변함없는 제자로 살리라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충정다하리라

아, 아버이장군님의 아들딸  
우리 함께 변함없이 노래부르자  
영원하여라 영원한 인민의 아버이  
선군태양 **김정일**장군님  
천만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여라  
영생불멸의 송가와 함께 영생하시여라

## 푸른 산 푸른 들

홍 민 식

푸른 산 푸른 들 바라다보면  
장군님의 그 음성 울리여오네  
한평생 정을 다해 불태워오신  
애국의 뜻 이 가슴에 안겨오네  
아 푸른 산 푸른 들

넘으신 험한 산 령길은 얼마  
맞으신 찬바람 눈비는 얼마  
산에 들에 무르익는 오곡백과

그 사랑 그 헌신을 안고 설레네  
아 푸른 산 푸른 들

장군님 가꾸시고 념원하시던  
강성국가 내 나라의 푸르른 선경  
그이처럼 그 사랑으로 가꾸어가자  
그이처럼 그 헌신으로 꽃피워가자  
아 푸른 산 푸른 들



##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김정일**동무를 우리 위업의 계승자로 추대하는데서뿐만아니라 그의 령도체계를 세우는데서도 선구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후계자를 추대한다고 해서 만사가 저절로 다 잘돼나가는것이 아닙니다.》

《수령의 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후계자의 령도를 충실히 받들 어갈수 있는 핵심의 육성, 후비대의 육성입니다. 핵심을 잘 꾸리지 않거나 후비대를 잘 육성하지 않으면 후계자의 령도체계도 옳바로 세울수 없고 후계자의 로선과 방침도 관철 해갈수 없습니다.》

《정일봉의 이전 이름은 장수봉입니다. **김정일**동무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서 장수봉을 정일봉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지금 노래까지 지어부르면서 온 세상에 정일봉을 자랑하고있습니다.》

## 첫 자옥

### 정 서 촌

창공에 우짚던 종다리 어디에 가고  
최고량소리 처량하게 비껴가던 강산이었다  
망국의 비운이 하늘의 해를 가리워  
들가에 꽃 한송이 피지 않던 엄혹한 세월이었다

그때 조선이 낳은 아들이  
첫걸음발을 떼며 일어섰다  
조종의 산 백두산의 울창한 원시림속에서  
한자옥 또 한자옥 언땅을 디디며

다섯걸음도 채 옮기지 못하고  
힘에 겨워 아들은 주저앉았건만  
어머님은 곁에서 부축이지 않으셨더라  
스스로 다시 일떠서라고

돌부리에 걸쳐여 쓰러지지 말라고  
투사들은 모포를 펴 땅에 깔았으나  
어머님은 평탄한 길을 원치 않으셨더라  
혈전만리가 앞에 있다고

아, 이렇게  
백두의 흙을 묻히며  
고향집마당가에서  
조선의 아들이 내디딘 첫 자옥

사람들이여  
그대 이 땅에 태를 묻었거든  
잊지 마시라  
그리고 가장 소중한 심장에 간직하시라

험난한 세월의 눈바람에도  
씻기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밀영의 고향집 옛 트랙에  
전설처럼 남아있는 그 력사의 자옥

항일의 포성을 자장가로 익히며  
백두의 만년설에도 찍었던 자옥  
장검을 비껴들고 아슬한 정점에 올라  
신념의 푸른 바위돌에도 새겼던 자옥

오늘도 그 자옥을 이으며  
위대한 아들은 진두에서 가고있나니  
그날에 부르짖던 사나운 바람으로  
온 나라에 혁명의 열풍을 일으키며

그날에 수령님어깨에 휘날리던  
백포자락 조선의 날개 삼고  
만년대계의 언제와 창조의 기념비들을  
로동당시대의 거창한 발자옥처럼 강토에 남기며...

정녕 해 비치는  
밝은 날에도  
스산한 검은구름장이  
모진 광풍을 몰아오는 엄혹한 날에도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백두의 《적기가》 하늘땅에 쩡쩡 울리며  
조선은 거인처럼 가고있노라  
인류리상의 상상봉을 향하여

아, 첫 자옥  
창창한 백두밀림 혈전의 언덕에  
세기의 위인 **김정일**장군 내디디신  
그날의 첫 자옥!  
천년이 가도 만년이 흘러도  
변함이 없을 영원한 조선의 정신이여!

주체80(1991).

# 소백수골의 버들꽃을 보며

김길성

조선의 명절  
인류의 명절  
2월의 봄명절을 맞는  
이해의 소백수골의 설경은  
류다른 감정 불러내누나

산도 골도  
나무도 바위도  
온통 은백색 설경을 펼쳤는데  
그 엄동속에서도  
봄은 태동하는가

버들꽃과 소백수  
버들꽃과 고향집  
버들꽃과 정일봉  
하나로 이어지는 생각으로  
이 가슴 젖어드누나

물안개 감도는 소백수가엔

서리꽃 유난히도 반짝이고  
광명성탄생 그날의 감격 담아서나  
버들개지 앞다투어  
한껏 망울터치나니

2월의 봄 남먼저 알리려  
온 겨울 얼어붙은 땅을 녹이는 소리런듯  
주절주절 소백수 물소리 들려오고  
소백수골에 피어난 버들꽃은  
백두밀영골안에 환희와 경탄 불러오누나

온 세상이 우러르며  
그리움의 마음과 마음들  
끝없이 달려오는 여기 태양의 성지에  
경사로운 2월의 봄명절을 축복하며  
소문없이 피어난 소백수가 버들꽃이어  
너는 이 땅에 밝아올 강성국가의 그 봄을  
남먼저 노래하며 피여웃는구나

## 절세의 애국자

류명호

2월의 이 아침  
경사스러운 이날에  
얼마나 많은 사연 말할수 있으랴  
우리의 장군님에 대해  
그이의 한생에 대해

허나 나는 말하고싶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해  
그 잊을수 없는 10월음악회에서  
《애국가》의 선율이 울려퍼지자  
승엄히 일어서시던 그 모습을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세상의 모든 교생 다 겪으신 그이

《애국가》의 선율속에  
거룩하신 모습으로 서계실 때  
나는 보았어라

우리 장군님  
음악회관람석이 아니라  
이 세상 가장 높고 빛나는  
애국의령마루에  
거연히 서계시었음을

저 멀리 백두의 총대와 함께  
생의 첫 자욱을 새기신 때로부터  
선군시대 오늘까지 오랜 세월  
애국장정의 천만리틀 다 걸어보시는듯

그이의 안광에 일렁이던 추억의 물결이여

준엄한 혁명의 년대들을 넘어  
조국을 승리와 영광으로 이끌어오신 그이  
그이만큼 그렇게 희생적인 헌신으로  
불타는 정과 열을 다 바쳐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신  
그런 애국자가 있었던가

이 나라의 집집에  
고난과 시련의 눈보라가 불어치던 그때  
화약내 질은 최전선에서  
침략의 폐구름 선군총대로 쳐갈기시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신분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을  
무진막강한 군력으로 꼭 눌러버리고  
우리 조국을 이 세상 원썩들을  
발밑에 굽어보는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신분

이 땅의 부강번영을 위해  
공장길 농장길 끝없이 걸으시고  
힘한 물길굴과 막장에도 서슴없이 들어서신분  
자신의 탄생일도 인민의 명절로 다 주시고  
한평생 쉬임없이 일만을 하시었어라

아, 자나깨나  
우리 인민을 더 잘살게 하시려  
우리 조국의 앞길에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어  
주시려  
눈비에 젖은 야전복 벗을새없이  
불철주야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오신분  
그 길에서 몸이 불편하시여도  
그 아픔 밝은 웃음속에 묻으신  
절세의 애국자

아, **김정일**애국주의를  
애국의 밝은 등대로 삼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그이의 선군령도를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내 조국의 앞길은 무궁창창하여라

2월의 이 아침  
우리 장군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말을 할수 있으랴만  
나는 말하고싶다 그날의 음악회  
그 음악회에서 울리던 《애국가》의 선율은  
몸과 마음 다 바쳐 조선을 빛내이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께 드리는  
우리의 천만군민이 드리는 최대의 경의라고!

## 가 사

# 우리는 축복받은 지식인

채 근 수

우리는 축복받은 조선지식인  
우리는 높은 영예 당기에 있다  
마치와 낫과 붓을 새긴 노동당기발  
우리들을 한식술로 품어주었다  
붓대로 우리 당을 받드는  
지식인 그 자랑 끝이 없어라

믿음에 보답하는 헌신의 자욱  
백두산 강성국가 위용에 있다  
장군님 안겨주신 영예와 슬기

원수님의 품속에서 높이 떨친다  
붓대로 우리 당을 받드는  
지식인 그 자랑 끝이 없어라

우리 식 경제강국 일떠세우고  
최첨단 돌파하여 조선은 빛나리  
주체위업 빛내이여 영광넘치고  
선군혁명 받들어 백승떨치리  
붓대로 우리 당을 받드는  
지식인 그 자랑 끝이 없어라



# 송고한 조국애가 뜨겁게 맥박치는 불멸의 조국찬가 《제일강산》

정 금 순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의 모습을 뜨거운 심장마다에 간직하고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헌신의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심장속에 한생토록 곱이 천 송고한 애국주의-**김정일**애국주의는 오늘도 천만군민모두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으로 힘차게 떠밀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송고한 조국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한생토록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실천활동에 구현해오신 송고한 조국애가 뜨겁게 곱이치고있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제일강산》.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일대 번영기를 맞이한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송가인 이 불후의 고전적명작에 곱이치고있는 사상정서는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되리라는 통남산의 맹세를 심장에 안고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내 나라, 내 조국을 세상에 빛내이고 떨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송고한 애국의 정신과 열정, 굳은 신념과 의지의 뜨거운 분출이다.

조국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레찬으로 시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이 사상감정을 조국의 부강번영을 꽃피워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에 대한 칭송의 감정으로 승화시키고있다.

봄산에 진달래  
여름산엔 하얀 밤꽃  
한창 꽃계절이 그만이더니  
단풍이 불라는 가을은 더 좋아

산은 산마다 울긋불긋  
골은 골마다 맑은 물소리

푸른 하늘 떴지어 나는 산새도  
이 강산이 하 좋아 노래하는가

내 나라는 어디 가나 절승경개라  
사람들 자랑높이 안고사는 금수강산  
천하의 아름다움 여기 다 모여  
세상에 다시없는 제일강산아

수려한 이 절경이 자연의 조화더냐  
로동당의 해빛이 하도 따뜻해  
인민의 기쁨은 일만단풍에 어리고  
누리는 행복은 산상끝에 달았구나

...

봄산에는 연분홍진달래 곱게 피고 여름산엔 하얀 밤꽃이 만발하게 피어웃으며 가을에는 산들이 단풍에 붉게 물들고 골짜기마다 맑은 물이 흘러내리며 푸른 하늘에는 산새가 떴지어나는 조국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이 한폭의 풍경화처럼 정답게 안겨온다.

고전적명작에서는 《수려한 이 절경이 자연의 조화더냐》라는 시적표현으로 예나지금이나 강산은 아름다웠지만 사대와 망국으로 수난도 많던 지난날에는 우리 인민이 그 아름다움을 느낄수도 누릴수도 없었다는 사상을 간결한 시형상속에 함축시켜 시의 기본사상정서를 밝히는데로 초점을 집중시키고있다.

고전적명작은 《로동당의 해빛이 하도 따뜻해/인민의 기쁨은 일만단풍에 어리고/누리는 행복은 산상끝에 달았구나》라고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있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격조높이 구가하고있다.

고전적명작에서는 수천년의 기나긴 세월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을 제일강산으로 찬란히 꽃피워주시는 은혜로운 태양은 우리 수령님이시며 세상사람들이 것처럼 경탄해마지 않는 우리의 제일강산-조국은 곧 수령님의 품이라는 사상을 뚜렷이 부각하면서 송고한 애국의 정신, 애국의 열정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조국을 세계의 제일강산으로 더욱 빛

##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문학을 건설하는데서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회주의문학의 본성적요구이다. 사회주의문학은 당의 령도밑에 대중의 조직적이며 집단적인 힘에 의하여 건설되며 사회와 인민대중의 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한다. 작가에게 있어서 창작활동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혁명사업이다.》

《우리의 작가들은 작가이기전에 혁명가이며 작가에게 있어서 문학창작활동은 곧 사회정치활동, 혁명활동이다. 사회주의문학은 그 사회적성격으로 하여 개인주의에 기초한 직업화의 길로 나갈것이 아니라 집단주의에 기초한 대중적인 운동, 문학운동의 길로 나가야 한다.》

《문학사업을 끊임없이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따라세우기 위해서도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내어나가야 할 시대적사명감을 절절히 깨우쳐주는 데로 시적정서를 고조시켜나가고있다.

아, 세계가 부러워 너만을 바라보게  
내 너를 더 높이 안아올리리  
조선아, 조선아!  
너는 나의것  
나는 너의것

통남산마루에서 올리신 력사의 선언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이듯 세계가 부러워 바라보게 사회주의조선을 더 높이 안아올리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신념과 의지가 조국강산에 짙짙 메아리치는듯싶다.

고전적명작은 불멸의 조국찬가이면서 주체혁명위업에 대한 충실성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표명하신 력사의 맹세, 력사의 선언으로 되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조국의 통성변영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려는 애국헌신의 열정의 노래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에는 온 세계가 부러워하도록 우리 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나라로 만들리라는 숭고한 조국관,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안은 위인만이 지닐수 있는 조국관에 기초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과 우리 조국은 뗄래야 뗄수 없는 혈연의 관계에 있다. 그이께서는 조국과 자신은 절대로 떼어놓을수 없다고 보시였다. 이 숭고한 사상감정을 담아 불후의 고전적명작에서는 《조선아, 조선아!/너는 나의것/나는 너의것》이라고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우리 조국과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으며 장군님께서 언제나 조국과 인민을 뜨거운 가슴에 안으시고 조

국과 민족의 운명을 이끌어오시였다.

고전적명작에서는 조선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역센 기상과 강렬한 열정이 격조높이 시화되고있다.

위대한 당, **김일성** 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애국의 표대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은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는것이었고 장군님의 리상은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강국으로 일떠세우는것이였다.

이렇듯 숭고한 애국의 표대, 이렇듯 숭고한 념원과 리상을 지니신 장군님이시였기에 이렇듯 높은 경지에서 조국과 겨레의 운명을 체험하고 조국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에 관한 이렇듯 숭고한 시형상을 창조할수 있었던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제일강산》은 시의 사상정서와 시적구성, 시적표현수법과 운률조성, 시어 등에서 우리 주체시문학의 고전적본보기로 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우리 조국의 일대 번영과 통성기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열정에 담아 노래하면서 그것을 당과 수령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의 결실로 천명함으로써 혁명적서정을 부각하고 조국관에 대한 심오한 사상을 밝히였다.

고전적명작은 또한 조국의 자연에 대한 섬세하고 생동하며 감각적인 생활정서, 생활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시형상의 높은 예술적정지를 보여주었다. 고전적명작은 또한 시어와 운률에서 인민성과 통속성, 민족적특성의 특출한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제일강산》에 뜨겁게 맥박치는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조국에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고있는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크나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 태양의 영원한 미소앞에 외 1편

문 동 식

환하게 웃고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지들  
미더운 나의 전우들이 왔다고  
우리 아버지 **김정일**대원수님  
만시름 잊으신듯 웃으십니다

초도의 세찬 파도속에 뵈웠던 장군님  
회천의 눈보라속에서 뵈웠던 장군님  
오늘은 **김일성**광장이 가까이 바라보이는  
여기 장대재언덕에서  
태양의 모습으로 웃고계십니다

낮과 밤을 이어  
힘한 산발 넘고넘으시며  
전선길에서 쌓인 피로 크시였건만  
우리에게 언제나 미소만을 보내시던 장군님  
강성부흥할 조선의 미래를 안으시고  
이 순간도 밝게 웃으십니다

천만대적과 맞서도  
장군님의 호탕한 웃음으로 우리 이겼고  
엄혹한 시련이 앞을 막아도  
장군님의 밝은 미소로 승리 펼쳐왔기에

그 웃음 그 밝은 미소를 떠나  
한순간도 못사는 우리 인민입니다

오늘도 장군님의 태양의 빛발은  
내 나라 하늘에 밀려드는  
원썬들의 불구름을 불태우고있습니다  
하기에 우리의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른것입니다  
조선의 앞날은 더 창창하게 열리는것입니다

아,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이  
사랑의 빛을 뿌려주는 내 나라 산천에  
숲은 무성하고 백과는 무르익어  
만복을 누려가는 인민의 웃음소리  
날이 갈수록 더 만발하게 피어나거니

조선의 더 눈부신 승리를  
인민의 더 커만 가는 행복을  
오늘도 밝게 웃으시며 축복해주시는  
장군님은 인민의 영원한 태양

태양의 미소에 실려 흘러가는 우리의 세월은  
천년만년 해와 달 끝까지  
태양의 그 미소처럼 꽃피날것입니다

## 언제나 문이 열려있는 커틀집

물안개 자욱한 소백수골짜기  
천고의 밀림속 나지막한 귀틀집  
문은 오늘도 열려져있구나  
예서 탄생하신 우리 장군님  
방금 먼길을 떠나가신듯

그 어데 가시여도  
이 고향집을 마음속에 안으시고  
야전복차림으로 멀고 힘한 전선길에 계시던  
우리 장군님의 결심은 오직 하나  
수령님의 념원 이 땅우에 활짝 꽃피우는것

내 오늘  
백두밀영 고향집앞에 서니  
천만복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

우리 인민모두에게 안겨주시려  
백두의 행군길 억세게 이어가시던  
그이의 하늘처럼 높은 뜻앞에  
눈시울은 자꾸만 뜨거워지여라

나라없던 그 세월  
여기서 어머니의 총을 만져보시며  
고향집두리의 울창한 밀림처럼  
이 땅우에 총대숲을 가꾸실 꿈을  
소중히 피우시며 자라나신분

그이는 함박눈 내리는 밤이면  
어머니의 자애로운 자장가속에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우실  
크나큰 희망을 키우시였다

그 꿈 그 리상 오늘도 안으시고  
우리 장군님 금시 떠나가신듯  
문이 열려있는 귀틀집앞에서  
내 오늘 절세의 애국자  
장군님모습 심장깊이 새기노니

귀틀집 귀틀집  
수령님 설계하신 사회주의강성국가  
만민이 만복을 누리갈

자주의 새봄 온 누리에 펼치시려  
우리 장군님 날마다 마음속으로  
문열고 나서시던 백두밀영고향집

오, 백두밀영고향집  
태양의 이 집 문 언제나 활짝 열려져있어  
**김일성** 조선은 강성부흥락원으로 꽃피나도다  
인민이 안겨살 무궁한 미래는  
백화만발하는 화창한 봄이로다

## 태 양 의 집

### 정 두 국

백두의 붉은기 펼친듯  
금수산하늘가에 노을은 불타  
우러러 숭엄한  
주체의 최고성지여

그리움의 대하되여  
인민이 들어서는 집  
아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인민을 기다리시는 집

인민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여  
빛과 열을 주시고  
자애로운 아버이가 되시여  
한평생을 바치신  
아, 대원수님들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집

여기서 인민을 위해  
대원수님들의 사색은 세기를 달리시였어라  
지새우신 긴긴밤은  
기적과 변혁을 불러  
세기의 한복판에 인민을 세우셨어라

여기서 수령님과 장군님  
함께 혁명을 의논하시고  
함께 오늘을 구상하시였어라  
천만군민을 이끄시고  
자주시대의 앞길을 열어놓으시였어라

한평생 인민을 떠나 못사신  
수령님이시고 장군님이시기에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위대한신 대원수님들을  
태양으로 높이 모셔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바라보면  
정갈하게 펼쳐진 푸른 잔디에도  
푸르러 설레이는 수목원의 나무들에도  
도덕과 의리의 하늘이신  
원수님의 손길이 뜨겁게 어려있어  
목메여 눈물짓는 마음들

하늘 땅 바다...  
이 땅 그 어디나  
천만아들딸들 달려와  
대원수님들께 터놓는 마음속 진정  
그것은 오, 그것은  
원수님 베푸시는 사랑의 이야기  
원수님을 더 잘 받들어갈 심장의 맹세

원수님 높이 모시여  
대원수님들을 모시고 산 날과 날들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하리라  
대원수님들 여기서  
아이들의 두볼을 다독여주시리  
로동자 농민들의 생활도 물어주시고  
방선의 병사들에게 용맹을 주시리

아, 인민의 마음속에 떠받들려  
숭엄히 솟아 빛나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영원한 태양의 집으로  
천만년세월에 솟아 거연하리라

# 대지의 풍경



황 동 선

1

한낮이 지날무렵.

여러대의 승용차들이 벌판과 산밭사이를 꿰치르며 뻗은 도로를 따라 미끄러지듯 달려가고있었다.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최전연부대들을 시찰하러 나가는 길에 전연에서 멀지 않은 이곳 군안의 토지정리실태를 알아보시려 협동농장들을 돌아보시는중이었다.

장군님께서는 벌이 나질 때마다 주의깊은 시선으로 토지정리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곤 하시었다.

벌판들에서는 불도젤이 두석대 혹은 여러대씩 편대를 지어 발동소리를 요란히 울리며 흙을 밀어내고있었다. 타는듯 한 붉은 기발들이 곳곳에서 나뭇기고 사람들이 분주히 뛰어다닌다. 불도젤들은 산기슭이나 둔덕진 곳의 폐기논들에서 더 자주 눈에 띄운다.

한달전부터 시작된 이곳 도의 토지정리는 본격적인 단계에서 진행되고있었다. 경지면적이 적은 몇개 협동농장은 벌써 토지정리를 끝냈다고 한다.

장군님께서는 토지정리를 끝냈다고 하는 농장들 가운데서 산골농장인 송죽리에 나가보자고 하시었다. 송죽리에 나가보면 토지정리가 끝난 후의 군의 전반적인 면모를 가늠하실수 있기때문이었다.

장군님께서는 뒤좌석에 앉아있는 농업위원회(당시) 부위원장 차정설에게 말씀을 건네시었다.

《송죽리는 폐기논이 제일 많은 농장이라고 할수 있는데 토지정리를 빨리 끝냈구만.》

《저희들은 토지정리를 최대한 다그치기 위해 경지면적이 적으면서도 폐기논이 많은 농장들부터 역량을 집중하여 경험을 쌓으면서 점차 큰 농장들로 넘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차정설은 몸가짐을 정중히 하며 말씀드렸다.

이곳 토지정리를 맡고 내려와있는 그는 장군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안내해드리는 감격과 흥분으로 내내 울렁이는 가슴을 다잡지 못하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미소어린 눈길을 차창밖에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토지정리를 빨리 다그쳐끝내기 위해 역량을 넣어놓지 않고 경험부터 쌓게 한 그의 의도도 이해되셨지만 사업을 주도세밀하게 짜고들며 모가 나게 내밀줄 아는 그것이 더 마음에 드시었다. 역시 차정설이다운데가 있다고 보아주시었다.

사람들은 차정설을 《차원칙》 혹은 《차불덩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원칙을 놓고서는 한치도 양보를 모르며 일을 불같이 내미는 그의 성격적기질을 통칭했다고 볼수 있는것이였다.

방금 장군님께서 송죽리의 토지정리가 벌써 끝난데 대해 말씀하신것은 그 사실자체도 관심이 가셨지만 일군들로부터 들으신 정설의 인간됨을 보게 되신 기꺼운 마음때문이었었다.

차창밖으로는 산들이 자주 나타나곤 했다. 넓은 벌보다 산골안의 작은 논들, 경사지의 폐기논들이 엇바뀌며 흘러가고있었다. 이름없는 외진 산골논에서도 토지정리로 뚫어번지고있었다.

말그대로 수천년을 두고 잠들었던 땅이 거창한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한것이다.

사람들은 처음 도래할 이 현실의 폭과 깊이를 믿기 어려워했었다. 대대손손 그 폐기논과도 같은 작은 사고방식에 굳어져있었던것이다.

장군님께서는 보름전 최전연군부대들을 시찰하고 돌아오시다가 농민들과 만나셨던 일이 눈앞에 생생히 그려지시었다.

그날 장군님께서는 이곳 도의 토지정리가 시작되는것과 관련하여 내려와있는 정설과 함께 한 농장을 돌아보시었다. 절기로 보면 겨울이 눈앞이었지

만 날씨는 여전히 신선하고 잠풍했다.

장군님께서 산골짜기의 폐기논들에서 무슨 일인가 하고있는 여러명의 농민들을 보시고 차를 세우게 하시었다.

그이께서 다가가시자 농민들은 너무도 뜻밖이라는 큰 눈을 뜨며 우뚝우뚝 일어섰다.

장군님께서 이 외진 산골짜기까지 찾아오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들이었다.

《장군님!...》

《장군님!...》

뒤미처 그들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뇌이며 허리 굽혀 정중히 인사를 드렸다. 흙물은 작업복차림에 해별과 별바람에 타서 거뭇거뭇한 얼굴들이었다.

그들은 폐기논들이 자리잡은 경사지의 기슭을 따라 새로 보도랑을 내던중이었다. 큰비가 오면 옷쪽 골짜기에서 쏟아져내려오는 물로부터 논들을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장군님께서 한줌의 흙이라도 잃을세라 원심을 쓰는 그들의 심정에 가슴이 뜨거워지시었다. 그들은 손바닥같이 작은 논배미들일망정 별방에 못지 않은 풍년열매가 실리기를 바라고있는 것이었다.

장군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고 논배미들을 살펴보시었다. 울망줄망한 논배미들은 그 높낮이 차이가 심하지 않았다.

얼마 품을 들이지 않고도 두령을 허물고 면적을 넓힐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

《이것 보시오. 이 논두령을 내밀어 옆논에 메우면 논이 더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될수록 논두령은 없애고 곡식심을 면적을 넓혀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앞쪽의 높낮이 차이가 심하지 않은 두 폐기논사이의 두령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었다. 그쪽을 바라보던 농민들의 얼굴이 차츰 검붉어졌다.

이때 선살가량 나보이는 한 농민이 그이께 말씀드렸다.

《저희들이 모내기를 할 때 씨를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높이를 보장한다면서 똑을 만들다나니...》

다른 한 농민도 얼굴을 수그리고 죄송스레 말씀드렸다.

《우리들이 농사군구실을 못했습니다.》

장군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이제는 저런 폐기논들을 다 없애자고 합니다. 기계가 왕왕 돌아가며 농사일을 할수 있게 넓은 포전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

농민들은 놀라운 빛을 감추지 못하고있었다.

장군님께서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폐기논은 말그대로 낡은 사회의 유물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더는 이런 폐기논에 얽매어 농사를 짓게 할수는 없습니다. 나라의 토지를 다 기계화포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농민들은 환희에 넘쳐 그이를 우러렸다.

한 농민이 걱정어린 음성으로 말씀드렸다.

《장군님, 나라의 토지를 다 그렇게 정리한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차정설은 속을 바재이는 기색으로 그들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장군님께 그들이 외람된 말씀이라도 드릴것만 같아 걱정스러워하는 빛이였다.

《허허... 꿈같은 땅을 만들자고 합니다. 땅은 사람이 다루기에 달렸습니다. 마음을 크게 먹고 잡도리를 하고 달라붙으면 얼마든지 해낼수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힘있는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다가올 새 현실을 앞두고 그들의 눈을 띄워주고 힘을 주기 위해 하시는 말씀이시었다....

장군님께서 그때 농민들이 손질한 논배미들이 지금도 눈앞에 방불하게 떠오르시었다. 그 논배미들은 수천년동안 폐기논농사를 숙명으로 여기고 일해온 우리 농민들의 굳어진 사고방식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었다.

온 나라의 모든 토지를 드넓은 기계화포전으로 만들어 우리 농민들이 험하고 흥겹게 일하면서도 높은 알곡수확을 내게 하시려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이였다.

산이 령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자연지리적조건으로 하여 아직도 폐기논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이 폐기논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할수 없으며 알곡생산도 더 높일수 없다.

더우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날로 악랄해지는 고립압살책동과 여러해째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강행군을 하고있는 지금 가장 절박하게 나서고있는것이 바로 식량문제이다.

그리하여 당에서는 나라의 토지를 800~1 000평 짜리 기계화포전으로 만들 목표를 내세우고 한개 도씩 국가적력량을 집중하여 토지를 정리하도록 하였다. 그것은 강행군을 하고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빠른 기간에 나라의 토지를 정리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로 되기때문이다.

어느덧 승용차는 큰 도로에서 갈라진 좁은 길에 들어섰다. 《송죽리 4km》라고 써여진 이정표가 얼핏 차창밖을 스쳤다. 한가닥 허연 도로가 숲이 우

거진 산골짜기사이를 꿰고 우불구불 멀리 앞으로 뻗어갔다.

얼마후 장군님께서 타신 승용차는 산기슭을 한 옆에 끼고 달리다가 송죽벌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둔덕진 곳에서 멎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차에서 내리시어 기다리고있는 일꾼들과 인사를 나누시었다. 방금 연락을 받고 온듯 관리위원장은 아직도 가쁜숨을 쉬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두손을 허리에 짚으시고 벌을 찬찬히 둘러보시었다.

여기저기 언들만큼 솟은 둔덕들과 저지들로 이루어진 송죽벌은 갖 토지정리를 한 뒤인지라 가로세로 끈게 뻗은 논두렁으로 구획을 지은 규격논배미들이 지형에 따라 높게, 낮게 서로 귀를 맞추어 자리를 잡고있다.

그러나 경사가 진 곳들에는 모양이나 크기가 서로 다른 논배미들도 있다. 벌 양쪽산기슭의 비탈지에도 경사가 급해서인지 손을 대지 못한 폐기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벌을 마주한 산골짜기들에 마을들이 다문다문 자리잡고있다. 마을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는듯 높직이 자란 거뭇한 느티나무들이 유포했다.

장군님께 차정설이 밭의 면적이며 토지정리에 소비된 로력과 자재 등을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정설의 이야기를 들으며 벌을 둘러보시다가 한쪽옆에 서있는 관리위원장 오문석에게 물으시었다.

《어떻소, 관리위원장. 토지정리를 해놓은게 마음에 드오?》

《장군님, 마음에 듭니다. 우리 농장까지... 이렇게 토지정리를 해주실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문석은 눈귀에 물기를 담고 감격에 겨운 음성으로 말씀드렸다.

원샷전후로 나보이는 체소한 몸매에 산골사람다운 순후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다.

《마음에 든다?!...》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말을 조용히 되뇌이시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벌의 왼편 맨 옷쪽에 봉긋하니 솟은 둔덕에 한동안 시선을 주시었다. 둔덕의 중간쯤까지는 새로 만든 논배미들이 두개의 층을 이루고 펼쳐졌는데 그우부러는 번번한 등성이었다. 그 등성이에서 여러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있었다.

차정설은 경사각이 15도아래의 땅은 논으로 만들고 그 이상되는 곳은 밭이나 산림으로 전환하게 된 토지정리규정에 따라 둔덕의 중간부분우에는 본래 있던 폐기논을 없애고 밭을 만들게 하였다고 말씀드렸다.

《이 고장 사람들은 저 둔덕을 가리켜 선반돌이

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저 둔덕을 덮고있는 수많은 폐기논을 돌보자면 요리조리 돌아야 한다는 뜻에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선반돌이라... 그런데 저기에서는 지금 무슨 일들을 하고있소?》

장군님께서서는 둔덕우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여겨보며 물으시었다.

정설은 인차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그도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있었던것이다.

이때 오문석이 얼굴을 붉힌채 주저주저하다가 조심히 말씀드렸다.

《장군님, 농장원들이... 논을... 만들고있습니다.》

《논을?... 밭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소?》

장군님께서서는 의아한 눈길로 정설을 돌아보시었다. 정설은 당황해서 어쩔줄 몰라했다.

오문석이 고개를 떨구고 떠염떠염 말씀드렸다.

《저희들은 논을 밭으로 만들자니... 어쩐지 마음이 좀... 그래서 우리 손으로... 규격포전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

장군님께서서는 아무 말씀도 않으시고 선반돌이를 바라보시었다. 먼빛으로 보기에 밭으로 만들기로 되었다고 하는 선반돌이의 옷부분은 두정보는 가까이 될 적지 않은 면적이였다.

《그래 저렇게 해서 언제까지 규격포전을 만들 수 있겠소?》

그이께서는 심중한 어조로 물으시었다.

《한해에는 다 하기 어렵습니다. 논으로 만들지 못한 땅은 밭으로 쓰다가 다음해에도 계속해서... 3년안으로 끝내겠습니다.》

문석은 고개를 수그리고 송구스럽게 말씀드렸다.

《끝내 규격포전을 만들겠단 말이지...》

장군님께서서는 나직이 뇌이시었다.

그이께서는 오문석이 선반돌이의 폐기논을 기여이 규격포전으로 만들겠다고 하는것이 농사군의 고집이나 미련때문만이 아닌 그 어떤 남다른 사연이 있을것만 같으시었다. 15도이상의 경사지에 있는 폐기논은 없애고 밭이나 산림으로 전환하기로 한것은 국가적리익의 견지에서도 그렇고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반영하여 정한 합리적인 토지정리규정인것이다.

《부위원장동무, 관리위원장의 잡도리가 여간 아니구만. 동문 이걸 알고있었소?》

그이께서는 정설을 돌아보며 물으시었다.

정설은 두손을 마주쥐고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씀드렸다.



《사실 관리위원장동무는 저에게 선반돌이의 전면적을 토지정리대상에 넣어달라고 여러차례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나 품이 너무 많이 들고 규정이 있는것만큼 들어줄수 없었습니다. 계획한 토지정리를 다 끝냈을 때도 불도젤을 두대만이라도 남겨달라고 그냥 졸랐습니다. 그것도 들어주지 못하게 되자 농사군의 심정을 몰라준다고 저에게 원망이 컸습니다.》

《농사군의 심정을 몰라준다, 허허...》

장군님께서는 소탈하게 웃으시고는 다시금 말씀하시었다.

《농사군의 심정을 몰라준다니 그건 보통문제가 아니요. 토지정리야 농사군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원망을 들어서야 되겠소. 관리위원장이 무슨 까닭이 있기에 그랬을거요. 그렇지 않소?》

그이께서는 부드러운 눈길로 정설을 보시며 말씀하시었다.

정설은 잠시 굳어진 빛으로 머뭇거리더니 사유를 말씀드렸다.

...

송죽리의 토지정리가 끝난 이튿날이었다.

정설은 토지정리에 동원되었던 두개의 기계화중대를 다른 농장에 이동시키는것과 관련하여 농장에 나와있었다.

현장사무실에 있는 그한테 문석이가 찾아왔다.

《거기 앉소.》

정설은 큼직한 토지정리략도가 걸려있는 벽밀의 긴 나무걸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문석은 말뚝처럼 서있기만 했다.

《그래 또 그 문제때문이요?》

《불도젤을 두대만이라도 남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동무 고집두, 참...》

정설은 책상빠람을 드룩 열고 두툼한 장부책을 꺼내놓았다. 송죽리의 토지정리에 소모된 기계력량이며 자재, 로력 등이 적힌 장부책이었다.

《이것 보오, 동무네 농장에 얼마나 많은 자재와 로력이 들었는지 아오? 국가적립장에 서보란 말이요. 동문 제 농장 리속만 차리겠다고 하니 이것도 하나의 리기주의라고 해야 할게요.》

《예?...》

문석은 칼끝에 찢리운듯 흠칫했다.

부지중 정설은 가슴이 쭉해졌다. 문석의 눈귀에 끓어오르는 물기를 보았던것이다.

문득 문석이 설분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반돌이가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전쟁때 우리 고향사람들이 모내기를 하다가 놈들의 포사격에 모숨을 천채로 숨을 거둔 곳입니다. 송죽리사람들은 그걸 잊지 못하고있습니다.》

정설은 눈을 홑뜨고 그를 쳐다보았다. 문석의 물기어린 두눈이 가슴을 마구 헤집는듯 했다.

《음...》

정설은 신음같은 소리를 내며 움쭉 일어나 벽알을 오락가락했다. 지금에 와서야 그가 선반돌이를 밭이 아니라 기어이 논으로 만들겠다고 한 까닭을 알수 있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이 지척이었던 송죽벌도 하나의 전장이였다. 전선지구 인민들과 마찬가지로 송죽벌사람들은 전선에서 싸우는 인민군군인들에게 보내줄 식량생산을 위해 쏟아지는 불비속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들이 지은 한알한알의 낱알은 그대로 피방울이였고 목숨과 바꾼것이였다. 바로 그렇게 희생된 사람들속에 오문석의 혈육들도 있었을것이다. 가슴에 미쳐오는 룡감으로 그것을 굳이 캐묻지 않고도 알수 있었다.

헌데 문제의 요점은 그가 토지정리규정에 어긋나게 선반돌이의 땅을 모두 논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기해온것이다.

마침내 정설은 우뚝 걸음을 멈추고 말을 꺼냈다.

《동무의 심정을 알만 하오. 내 생각같아선 동무의 제기대로 해주고싶소. 하지만 그건 지역편중이 될게고 원칙에서의 탈선을 의미하오. 동무도 국가적립장에서 생각했으면 하오.》

문석은 두려움이 어린듯 한 눈으로 정설을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제가 자기 농장밖에 모르는 리기주의자라는거겠군요.》

《너무 그렇게 신랄하게 말할것까진 없소. 문제를 원칙적선에서 보면 그렇다는게요. 사실 동무처럼 저마다 가슴에 맺힌 사정을 들고나온다면 우리나라의 땅치고 눈물겨운 사연이 스며있지 않는 땅이 어디 있겠소. 그렇다고 저마다 그런 식으로 요구한다면 규정은 왜 있는게요?》

문석은 맥없이 시선을 떨구었다.

잠시후 그가 서글픈 어조로 말했다.

《부위원장동지가 굳이 규정을 따지니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위원장동진... 너무합니다.》

《무어요?》

정설은 저도 모르게 어성을 높였다.

문석은 대꾸할념을 앓고 벌컥 문을 열고 나가 버렸다.

정설은 한동안 그가 나간 문을 지켜보다가 창가로 다가갔다. 벌판을 가로질러 성난듯 마구 걸어가고있는 문석의 뒤모습이 안겨왔다. 방금 그가 내뱉은 말이 가슴에 못을 박는듯 했다. 문석이로서는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보아졌다. 또 그의 립장에서 보고도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지역적사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도저히 정당화할수 없는것이였다.

부지중 그는 저 멀리 뿌잇한 운무속에 싸인 선반돌이의 거룩한 자태가 여느때없이 위압적으로 안겨 오는것을 느꼈다. 그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언제 이 송죽벌에만 불박혀 움니암니할새가 없는 자기였다. 그에게는 당장은 여기 한개 도의, 나아가서는 온 나라의 토지를 정리해야 할 거창한 과업이 맡겨져있었다.

정설은 저도 모르게 두주먹을 짹 움켜쥐며 강인히 도리머리를 했다.

...

주위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드리워있었다.

장군님께서는 사색에 잠겨 거니시다가 혼자말씀처럼 나직이 뇌이시였다.

《그래... 지키지 않는 규정이야 만들 필요도 없지... 그런데... 너무하다-》

오문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장군님, 저희들이... 저희들이 나라사정은 생각지 않고...》

장군님께서는 생각깊은 눈길로 그를 쳐다보시고는 신중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아니, 선반돌이를 규격포전으로 만들려는것이 잘못이야 아니지. 규정을 지키자는 부위원장의 립장도 원칙적으로는 옳았고... 하지만... 무슨 방법이 없을가. 가만 부위원장동무, 우리 저쪽등성이에 좀 올라가봅시다. 그곳에서는 선반돌이가 더 잘 보일 거란 말이요.》

《예?》

모두들 놀라서 그이를 우러렀다. 그리고는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저 앞 등성이쪽을 쳐다보았다.

오문석이 당황해서 말씀드렸다.

《장군님, 저 등성이에 오르시자면... 길이 너무 험합니다. 아니, 저기엔 길이 없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혼연한 표정을 지으시며 오문석의 어깨를 다독여주시였다.

《일없소, 올라가봅시다.》

《장군님!》

차정설이도 오문석이도 목이 메여올라 더 다른 말을 못했다. 자기들때문에 어버이장군님께서 이렇게 험한 길아닌 길을 걸으시게 되었다는 자책으로 자꾸만 눈곱이 젖어들었다.

장군님께서 오르시는 곳은 그저 등성이가 아니라 기암괴석들이 뽕뽕 서있는 험한 돌산이였다.

기슭엔 잡관목들이 짙 덮여있었고 중간부터 크고작은 돌들이 막 엉켜쌓여있어 걷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장군님께서는 뒤엎켜 설레이는 잡관목숲을 앞장서 헤치시며 등성이에로 오르시였다.

차거운 겨울바람에 그이의 야전복자락이 세차게 펄럭이였다. 등성이꼭대기에 있는 널직한 너럭

바위우에 오르신 장군님께서는 두손을 허리에 짚으시고 송죽벌을 둘러보시였다. 벌의 량쪽산기슭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뽕기논들과 그아래 토지정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각이한 지형지세로 규격이 다르고 높낮이들이 다른 논배미들을 이윽도록 지켜보시였다.

그것은 그이께서 벌에 도착하시면서부터 마음에 안드시였던 풍경이였다. 그이께서 마음속에 그려보시였던 풍경은 이번 토지정리기준과 부합되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벌다운 벌이였다. 설계를 소극적으로 했다는것이 대번에 알리였다. 아마도 나라의 경제형편을 념두에 두고 될수록 로력과 자재를 적게 들이는 방향에서 설계를 한 모양이였다.

선반돌이도 자세히 살펴보시니 능히 규격포전으로 만들수 있을것 같았다. 이 등성이에 올라와보신것이 참으로 다행이였다. 선반돌이를 규격포전으로 만들려는 농민들을 도와주실수 있게 된것이다. 농장원들이 논뚝을 허물고 등짐을 지고 뛰여다니는것을 보니 그들이 만들자고 하는 포전의 규모를 가늠할수가 있었다. 이것이 왜 차정설에게는 불가능한것으로, 규정에 맞지 않는 토지정리제외대상으로 되었는지 리해가 되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근엄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토지정리를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의 경제형편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50년, 100년 아니, 먼 후날에도 다시는 손을 대지 않게 만년대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쩍-하고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는 그 음성...

차정설이 죄책감으로 하여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장군님, 제가 그만... 당의 뜻을 모르고...》

장군님께서는 그를 쳐다보시였다. 토지정리라는 하나의 큰 전구를 맡아안은 그의 심장이 어쩐지 생각하였던것보다 뜨겁지 못한것 같아 안타까우시였다.

《난 방금전에 이리로 올라오면서 관리위원장동무가 했다는 말을 생각했습니다. 부위원장동무를 보고 너무하다고 했다는 말을 말입니다. 무엇이 너무한가... 동무도 관리위원장동무에게 우리 나라의 땅치고 눈물겨운 사연이 스며있지 않는 땅이 어디에 있는가고 했다는데...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이 더더욱 귀중한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이렇게밖에 토지정리를 해놓지 못한것은 무엇때문인가. 동무는 이것을 심심히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장군님께서는 이어 벌쪽으로 돌아서서 선반돌이와 그아래에 펼쳐진 크기며 높낮이들이 서로 다른 논배미들, 경사지의 뽕기논들을 가리키시였다.

《저 벌의 토지정리를 다시 해야겠소. 우선 설계

부터 대답하게 하고… 로력과 자재를 최대한 절약 하면서도 농민들이 진실로 좋다고 할수 있는 옹근 하나의 벌을 만들어야겠소.》

장군님께서는 손세를 써가시며 이제 다시 진행 해야 할 토지정리의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일군들은 놀라움과 걱정, 찬탄에 뒤섞이며 그이를 우러르기도 하고 송죽벌을 바라보기도 했다. 차정설의 자책과 감동은 더욱 컸다.

사실 그는 산경사지에 붙은 폐기논들은 물론 규격과 높낮이가 서로 다른 논들도 그 부득이한 지형조건으로 그렇게밖에 달리할수 없을줄로만 여겼던것이다. 선반돌이를 규격포전으로 만들 생각은 애초에 하지부터 았았다. 경사도가 규정에서 벗어난다고 밀어던졌던것이다. 그리하여 어버이장군님께서 심려하시게 하였고 이 험한 길을 걸으시게 하였다.

차정설은 자책의 아픈 마음을 안고 새로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장군님께서 가르치시는대로만 하면 그야말로 이 송죽벌이 멧쟁이벌로 될것이었다.

차정설은 온 나라의 토지를 정리하시려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이 과연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는듯 숨이 가빠지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이제 변모될 온 나라 들판의 풍경이 눈앞에 환히 펼쳐지는듯 했다.

장군님께서는 흥분으로 하여 가쁜숨을 몰아쉬고 있는 차정설을 돌아보시었다.

《어떻소, 부위원장동무. 해낼수 있겠소?》

《장군님, 해낼수 있습니다. 아니, 꼭 해내겠습니다.》

차정설이 어깨를 펴며 힘있게 말씀드렸다.

《그렇다고 이동해간 불도젤들을 다시 불러올 필요는 없을것 같소. 이 송죽벌의 토지정리는 인민군대가 맡아하는게 좋을것 같소. 인민군대가 한번 본때를 보이시오.》

《알았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장군님을 모시고온 얼굴이 거뭇하고 몸매 다부진 장령이 차렷자세를 하며 대답을 드렸다.

언제부터인지 눈이 희끗희끗 날아내리고있었다.

온 공간이 눈송이들로 가득차는듯싶다.

차정설은 자책어린 음성으로 장군님께 말씀드렸다.

《장군님, 제가… 농장에 남아 군인동무들과 함께 토지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게 옳을것 같소. 동무가 이렇게 왔다가 그냥 가버리면 이 고장 사람들이 더 원망할게거던. 허허허.》

그이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승용차에로 걸음

을 옮기시었다.

얼마후 그이께서 타신 승용차는 눈이 뽀얗게 쏟아져내리는 산굽이길로 멀어져갔다.

저녁어스름이 짙어가고있었다.

정설은 승용차들이 사라진 산굽이길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오래도록 움직일줄 몰랐다.

## 2

송죽벌이 끓어번졌다.

수집대의 대형불도젤들이 발동소리를 요란히 울리며 랑쪽산기슭의 폐기논들을 깎아내기도 하고 모양과 높낮이들이 다른 논배미들을 밀어내기도 했다. 선반돌이에도 사람들과 기계들이 한벌 뒤덮여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본래의 형체를 찾아볼수 없게 내려앉았다.

어디서나 땅이 파도치고 시시각각으로 지각이 변동되고있었다.

곳곳에서 나뭇기는 붉은기, 방송차에서 울려퍼지는 노래소리, 선동구호를 웨치는 불같은 목소리들, 선소리를 치며 달리는 군인들… 그속에 군안의 기관, 기업소에서 펼쳐나선 지원자들도 뒤섞여 끓고있다.

말그대로 벌은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졌다.

정설은 이 현실을 받아안기엔 자기가 너무도 작은 존재였음을 깨닫지 않을수 없었다. 종래의 자기의 사고방식을 통채로 깨뜨려버린 엄청난 세계인것이었다.

그날 정설은 선반돌이에서 일하고있었다.

그는 함마로 바위를 까다가 돌을 쳐나르려고 달려온 애어린 병사의 얼굴에서 눈길이 멎었다.

갓 군대에 나온듯 얼굴이 처녀애처럼 귀염상스러운 그는 몸매도 애리애리한게 막내아들을 보는 것 같았다.

《질통을 달라구. 내가 좀 나르지.》

《됐습니다. 어서 도와주십시오.》

정설은 제잡담 그의 질통멜끈을 거머쥐고 달려들 말했다.

《이것 땀을 보지. 좀 쉬면서 땀을 들이라구. 그새 내가 할테니.》

《아바이는 내가 약골로 보이는 모양이군요.》

병사는 자존심이 상한듯 토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허허… 그런게 아니라 이렇게 힘든 일은 처음 일텐데 잠깐 땀을 들이라는거야.》

《힘든게 뭘니까. 전 고향에서 일하는것 같아 그저 힘이 납니다.》

《고향에서 일하는것 같다구?》

《우리 고향에서도 이렇게 토지정리를 해서 땅

을 넓힐게 아닙니까. 옛날흔적을 다 털어버리고 희한하게 펼쳐질 고향별을 생각하니 그저 힘이 납니다.》

정설은 그의 질통멜끈을 쥐었던 손을 놓고말았다. 방금 그가 한 말이 가슴을 찔렀다.

애어리게만 보았던 병사까지도 넓어지는 고향땅을 그려보며 힘든줄 모르고 일하는것이다. 그에게는 미구에 펼쳐질 그 별이 마냥 가슴을 꿰뚫게 하는 것이었다.

정설은 별에 차고넘치는 힘의 바다를 이 병사한테서 여느때없이 력력히 보게 되는듯싶었다.

이때 질통을 진 병사들이 우르르 밀려왔다.

《자, 왜 서있기만 합니까. 어서 담아주십시오.》

《아바이, 힘들면 저기 가서 쉬십시오.》

다그쳐대는게 불갈았다.

바위를 까던 사람들이 부리나케 그들의 질통에 돌을 담았다. 돌짐을 진 병사들이 떠나자 또 다른 병사들이 연방 들이닥친다. 그들은 줄창 뛰여다니면서도 힘든줄 모르는지 그냥 웃고 떠들어댄다.

정설은 병사들속에 쉽게 섞일수 없는 자기를 더욱 똑똑히 느끼게 되었다.

그들의 불같은 지향과 열정, 마를줄 모르는 힘!... 그것은 병사들의 가슴마다에 고향땅이 숨쉬고있기때문만이 아니었다. 얼마전까지도 달리 될수 없으리라고만 보았던 이 땅, 낡고 진부한 지난 세기의 자취를 끝장내고 새로운 땅을 만들고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마를줄 모르는 흥분과 격동, 고무를 안겨주고있는것이다.

정설은 그냥 가슴을 파고드는 뼈저린 느낌으로 하여 자신을 다잡을수가 없었다.

이때 관리위원장 오문석이 음식들을 담은 함지며 버치, 바께뜨들을 이고든 녀인들과 함께 작업장에 나타났다.

그가 사람들에게 휴식하자고 소리쳤다.

이윽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음식그릇들 주위에 둘러앉았다.

정설이도 문석의 손에 끌려 함께 일하던 군인들속에 끼여앉았다.

앞에는 함지와 버치, 바께뜨들이 놓여있었는데 보자기를 벗기자 하얀 떡이며 빵, 삶은 고구마, 시뻘겋게 양념이 묻은 통김치가 나졌다. 수고를 한다느니, 많이 들라느니 정겨운 말소리, 웃음소리들...

정설은 큼직한 고구마를 들고 껍질을 벗겼다.

어쩐지 맛은편에서 자기를 눈여겨보는듯 한 따거운 시선을 느꼈다. 얼핏 눈을 들어보니 백발머리에 눈썹마저 하얀 80고령의 체소한 로인이었다.

정설은 가끔 그가 토지정리를 하는 들판에 나와 오래도록 논둑에 앉아있곤 하는것을 보았었다.

하지만 굳이 상대할 까닭은 없는 로인인지라 결

을 지나면서도 지금껏 애기 한마디 나누어본적이 없었다.

문득 로인이 말을 걸어왔다.

《부위원장어른, 이 떡도 하나 맛보시우. 옛말에 잘되는 사람은 얹어쳐도 떡함지에 얹어진다고 하지 않았소. 그게 다 떡이 제일이라는 소리웨다.

사실 이 선반돌이는 떡과 사연이 깊은 곳이의다.》

《좌상아바이가 권하는데 어서 드십시오. 이 떡은 저 좌상아바이네 집에서 해내온것입니다.》

오문석이 저가탁으로 떡을 꿰어주며 정설에게 하는 말이였다.

정설은 저도 모르게 얼굴이 달아올랐다.

이 선반돌이의 눈을 발로로 만들자고 했던 자가 눈에서 나온 쌀로 만든 떡을 든다는것이 낮간지럽게 여겨졌다.

차정설이 떡을 받아든것을 본 로인이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을 꺼냈다.

《우리 송죽리사람들은 이 선반돌이하구 뻔수 없는 인연을 가지고있수다. 내 그 얘기를 한마디 하자는거웨다.... 예로부터 우리 고장에선... 손님이 오면 뉘니뉘니해도 떡을 대접해야 례절을 차린것으로 알고있지요.

해방전에 이 고장에선 봄에 씨불임을 앞두고 의례히 지신제를 지내곤 했수다. 말하자면 땅귀신한테 갖가지 떡을 차려놓고 치성을 드려야 그해 벼농사가 잘된다고 해서... 지주의 강박이 여간 아니였수다. 지주의 땅 몇뼘기라도 얻어부쳐야 입에 풀칠이라도 할 신세인지라 소작인들은 굶으면서도 떡을 쳐서 제사를 차렸지요. 제를 지내는 날은 굉장했지요. 마을가운데 있는 느티나무밑에다 벌을 향해 집들에서 해내온 떡을 주런이 산더미처럼 가려놓고 두 무당년이 색동천오리를 뒤흘들고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날뛰는 광경이란!... 모두들 신접이 들려서 얼혼이 나갔지요. 지주놈은 제를 치르고나서 지신님께 잡숫게 한다고 상에 놓았던 떡을 한개도 남기지 않고 논들에 파묻게 했수다.

이 선반돌이에는 해마다 농사가 변변치 않은지라 더 많은 떡을 파묻게 했지요.

나한테 일곱살나는 누이동생이 있었수다. 그 애가 배고픔을 참다못해 눈에 묻은 떡을 파먹으려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 선반돌이에 오지 않았겠소. 애가 떡을 묻은 눈에 와서 흙을 파다가 그만 선반돌이를 돌아보던 지주한테 들키고말았수다. 지주놈은 감히 지신님을 노엽혔다고 개화장으로 애를 마구 내리쬘수다. 대굴대굴 굴면서 애처럼 우는데도 그놈은 피눈이 돼서 막... 애는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서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수다. 이튿날 애는 〈... 떡 먹고파〉 겨우 한마디 하고는 눈을 감고

말았수다.》

로인은 잠시 말을 끊고 불그레하니 젖은 눈곱을 손등으로 훔쳤다.

《그 세월에 비명에 죽은 사람이 어디 그 애뿐이겠소. 우리 고장은 운수도 짝 막혀있었습니다. 온통 폐기논이었으니 번번한 농사를 못해봤지요. 폐기논이란게 큰 가물이 들면 그해농사는 결판이웨다. 어느 헨가는 왕가물이 들이닥쳤는데 벼포기들이 이삭도 맺지 못하고 타죽고말았지요.

그해에 마을사람들 절반이 굶어죽는 참사가 빚어졌수다.… 그 얘기를 다 하자면 끝이 없수다.》

로인은 축축히 젖은 회억에 잠긴 눈으로 멀리 별판을 바라보다가 다시금 말을 이었다.

《나라가 해방되자 세상이 달라졌지요. 지주한테 몇폐기의 땅을 얻어부치고 죽지못해 살던 사람들이 땅의 주인이 되자 장수갈아집데다.

조국해방전쟁때 바로 그랬지요. 이 고장이 전선이 코앞이라 벌에서 무엇이든 얼씬하면 놈들이 줄포탄을 퍼부어대군 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목숨 걸고 농사를 지었던 말이웨다. 그러다 놈들의 포사격에 죽은 사람들이 여럿이웨다. 관리위원장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이 선반돌이에서 모를 내다가 잘못된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 고장 사람들이 선반돌이를 논으로 계속 쓰게 규격포전으로 만들겠다고 하는건 그때문이웨다.… 전쟁이 끝나구 협동조합이 무어진 때부터 우리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우리 농장도 토지정리를 처음 하게 됐수다. 오כל코불한 논두렁이 술한게 없어지구 기계화포전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트락토르니, 모내는기계니하는 기계들이 별판을 휘젓고다니며 일을 해주니 예전에는 꿈에서도 보지 못했던 별세상이 되었지요.

현데 우리 장군님께서 지형탐에 정 손을 불일수가 없었던 폐기논들까지 다 없애게 해주시구 이 선반돌이까지 규격포전으로 만들게 해주셨으니 이런 희한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이우. 정말 우리 장군님이 아니고서야 농민들의 소원을 이렇게까지 풀어주실 분이 어디 있겠수.》

로인은 팔소매로 눈곱을 훔쳤다.

사람들은 숙연한 분위기에 잠겨있었다.

정설은 휴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져갈 때도 움직일줄 몰랐다. 무거운 자책감으로 온몸이 굳어짐을 어쩔수가 없었다. 이 선반돌이에 깃든 사연이 별로 가슴을 친다.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금 깊이깊이 되새겨진다.

우리 나라의 그 어디나 눈물겨운 사연이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토지정리를 이렇게밖에 해놓을수 없었던것이 무엇때문인지 심심히 돌이켜보아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파연 무엇때문인가.

내가 실지 이 땅에 깃든 그 사연들을 다 안단 말인가. 지금처럼 이렇게 심장이 아프도록 느껴본적이 있었던가.

부끄러웠다.

돌이켜보면 자기는 가슴으로, 심장으로 이 땅의 귀중함을 느끼지 못하고있었다. 심장으로 이 땅을 사랑하지 못했다.

이런 나를 두고 우리 장군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고 가슴이 아프셨겠는가. 아,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그는 곁에 다가온 문석에게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지금껏… 무슨 일이든 원칙의 자막대기로 재여보며 실수없이 해온다고 자부해왔소. 그런데… 말그대로 자막대기였소. 이 심장이 없는… 막대기였던 말이요.》

그는 몸을 일으키고 어디라고 딱히 정한데도 없이 허청허청 걸어갔다. 송죽벌의 토지정리를 다시 시작한 때로부터 그는 발을 디딜 지행점을 잃은듯 혼란된 자신을 견잡지 못하고있었다. 한데 지금은 이 현실의 와중에서 아예 뿌리워진듯 한 자신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문득 요란한 발동소리가 들려왔다. 저 멀리 산발너머에서 한대의 직승기가 날아오고있었다.

직승기는 고도를 낮추더니 토지정리로 한창인 별판우를 천천히 돌았다.

와릉와릉…

직승기의 드센 발동소리로 별판이 떠나갈듯했다.

정설은 녀 잃은듯 우두커니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직승기에서 일으키는 드센 바람이 그의 옷자락이며 머리칼을 마구 훑아냈다.

도내 모든 농촌들에서 다그쳐지고있는 토지정리로 자연지리상태며 지형지물들, 주민지역들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긴것과 관련하여 나라에서 새롭게 조사사업이 진행되고있었다.

정설은 말뚝처럼 우두커니 선채 멀리 사라져가는 직승기를 쳐다보고있었다. 광대한 지역에 걸쳐 태고적부터 존재해온 대자연이 마구 뒤번져지며 형체를 뒤바꾸고있는 어마어마한 광경을 그는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것이였다.

### 3

겨울날치고도 유난히 따듯한 해별이 쏟아져내리고있었다.

별은 거뭇한 자태를 드러내고 아득히 펼쳐져있었다. 주변의 높고낮은 산발들은 부각장식을 한듯

새로 토지정리를 한 벌의 아득한 풍경을 선명하게 돋구어준다.

가로세로 자를 대고 그은듯 곧게 뻗어간 논둑들, 배수로들, 시원스럽게 널찍널찍 펼쳐진 논배미들… 벌은 저 멀리 운무속에 싸인 산발들에 잇닿은듯 아련풋해졌다. 량견 산기슭에 오בות하게 자리잡은 문화주택마을들…

장군님께서는 부드러운 안색을 지으시고 벌을 둘러보시었다. 이 벌의 토지정리를 맡아수행한 군부대장이 그간의 작업정형을 말씀드리고있었다.

이 벌은 평지대와 둔덕들, 저지들로 이루어져 구역논이 있는가 하면 चे나름대로 생긴 크고작은 논들, 폐기논들과 늪지대들이 뒤섞여있었다.

그리고 벌가운데 마을들도 자리잡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부대에 이 벌의 토지정리를 맡기시며 도적인 본보기단위로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었다. 그때로부터 한달남짓한 기간 수백정보에 달하는 벌은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그 면모를 일신한것이었다.

장군님께서는 기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사회주의땅이란 이런거요. 앞으로 나라의 모든 토지를 다 이렇게 만들어야겠소!》

장령들과 일꾼들이 흥분을 금치 못하며 조용히 섰다. 그들속에 차정설이도 있었다.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송죽벌에서 달려온 그는 남다른 흥분에 휩싸여있었다. 그이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자기를 이처럼 몸가까이 불러주실줄은 몰랐었다.

여기에 와서 인민군군인들이 정리한 안성벌을 보는 순간 그는 새로 눈을 뜬 느낌이였다. 토지정리를 한다 해도 안성벌을 이렇게까지 전변시킬수 있으리라고는 감히 생각지 못했던것이었다. 예전에 보았던것과는 너무도 달라진 안성벌이어서 그는 환상세계에 들어선것만 같은 느낌도 들었다.

장군님께서는 일꾼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정설에게 시선을 주시며 말씀을 건네시었다.

《부위원장동무, 벌을 보니 어떻소?》

《장군님, 저는 꿈에서 보는것만 같습니다.… 정말 정신이 듭니다.》

《부위원장동무가 정신이 든다니 됐소. 허허…》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다시금 말씀을 이으시었다.

《동무가 여기 와보기를 잘했소. 나라의 토지를 빠른 기간에 다 이렇게 만들자고 하오. 그러자면 토지정리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넓어야 하오.

그래야 땅을 넓힐수 있는게 아니겠소.》

《장군님!…》

정설은 목멘 음성으로 뇌이고는 고개를 숙였다.

자책에 젖은 음성으로 말씀드렸다.

《사실 저는 마음이… 폐기논처럼 작았습니다. 그래서 일도… 그만큼밖에 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이 폐기논처럼 작았다, 허허… 동무의 말이 그럴듯하오. 작은 마음에서 큰것이 나올수 없지.

뜨거운 사랑을 지녀야 마음도 커지는거요. 송죽벌의 선반돌이라고 하는 둔덕의 폐기논들에는 지난 세기들에 우리 농민들이 겪은 피눈물의 력사가 그대로 비껴있소. 이 땅 어디나 다 같소. 땅과 농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 이게 바로 우리가 내세운 토지정리의 근본원칙이요.》

정설은 고개를 수그린채 뜨거운것을 삼켰다. 지금에 와서는 자기가 외워온 원칙이란 어떤것인지 너무도 뻔히 들여다보였다. 그것은 이 토지정리의 거창한 의미에 비해볼 때 말그대로 폐기논처럼 작고 보잘것 없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는 벌을 둘러보시다가 저력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지금 정리하는 토지가 농민들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시켜주는것과 함께 강성국가의 확고한 토대로 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하오. 이런 높이에서 가장 리상적인 땅으로 만들어야 하오.》

정설은 가슴에 형언할길 없는 충격을 느꼈다.

강산에 메아리치는 우뢰소리를 들은듯 했다. 눈앞이 번쩍 트이는듯 했다.

—가장 리상적인 땅으로!

그는 가슴속에 바위처럼 굳어져있던 기존관념이라 할 폐기논들이 지진을 만난듯 마구 갈라지며 환영처럼 무너져내리는것을 느꼈다.

그는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서 아득히 펼쳐진 새로운 땅을 보고있었다. 그것은 상상으로 어렵듯이 그려보던 땅이 아니라 고루하고 진부한 모든것을 뒤엎고 전혀 새롭게 펼쳐진 가없이 넓은 땅이였다.

#### 4

야전차의 전조등빛이 눈이 가볍게 깔린 도로를 밝히며 빠른 속력으로 내닫고있었다. 도로 량가녘의 어둠에 잠긴 숲이 차창밖으로 흘러가고있었다. 거뭇거뭇한 나무가지들, 골짜기, 바위들, 나무그루터기들…

고요한 대기속에는 운석쫄같은 눈가루가 반짝 반짝 서려돈다.

춥고 캄캄한 밤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차창밖을 내다보시다가 손목시계에 눈길을 주시였다. 시계바늘은 새벽 다섯시를 가까이하고있건만 어둠은 여전히 무겁게 덮여있다.

장군님께서서는 최전연의 인민군부대를 시찰하기 위해 가시는 길이었다. 가시는 도중에 있는 송죽리에 들릴 예정이었다. 며칠전에 그 농장의 토지정리를 끝냈다는 보고를 받으시었는데 직접 벌을 보셔야 마음을 놓을것 같으시였다. 그리하여 날뽕을 무렵에 벌을 보고 다음일정인 군부대에 가닿기 위해 어제 저녁 늦게까지 집무실에서 일을 보시다가 그길로 평양을 떠나 온밤 달려오시는 길이었다.

어둠은 희뵈히 들리고있었다.

숲을 꿰고 뻗어간 도로가 뚜렷이 형체를 드러내고있었다.

어느덧 《송죽리 4km》라고 쓴 눈에 익은 이정표와 함께 갈림길이 나졌다.

야전차는 곧장 갈림길로 들어섰다. 그뒤를 여러대의 승용차들이 따르고있었다.

장군님께서 송죽벌에 이르시였을 때는 동녘이 푸름푸름 밝아오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벌을 주의깊게 내다보시였다. 그것은 예전과 몰라보게 달라진 벌판이었다. 여기저기 언틀먼틀 솟아있던 둔덕들은 있어본적도 없는듯 말끔히 사라지고 널찍널찍한 논배미들이 규모있게 펼쳐졌다.

이윽고 장군님께서 타신 야전차는 벌 한가운데서 멎었다. 그이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어 기다리고있던 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시다가 관리위원장 오문석을 보시자 허물없이 말씀을 건네시였다.

《벌구경을 하자고 다시 왔소. 그래 벌이 마음에 드오?》

《장군님, 마음에 듭니다.》

《동무는 전번에도 마음에 든다고 속에 없는 소리를 했었지.》

그이께서는 웃음섞인 어조로 핀잔하듯 말씀하시였다. 주위에서 가벼운 웃음이 일었다.

문석은 눈굽에 물기를 담은채 몸돌바를 몰라했다.

《장군님...》

그이께서는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만족한 눈길로 송죽벌을 둘러보시였다.

선반돌이가 지척인듯 눈앞에 보이시였다.

거뭇한 흙, 흙... 가로세로 짝짝 뻗은 논두렁들, 넓은 규격논배미들... 선반돌이는 이미 둔덕이 아니라 논벌이었다. 종전에 폐기논이 있던 둔덕은 허상처럼 사라져버렸다. 다만 그 자리에는 벌의 전반적지표면과 조금 우로 두계단으로 나뉘어진 논벌이 펼쳐졌다. 예전의 그곳 자연지리상태를 설계학적인 면밀한 타산으로 계단식벌을 조성해놓은것이였다. 그 웃쪽산골짜기앞에 동쪽을 쌓아만든 저수지, 거기서부터 벌 한가운데를 꿰고 뻗어내려온 배수로...

장군님께서서는 벌의 랑컨 산기슭도 눈여겨보시였다.

폐기논들이 형겼을 널어놓은듯 하던 산기슭경사면은 칼로 벤듯 솜씨있게 내리깎아 평지를 만들었다. 그 어디도 빠진데 없는 웅근 하나의 벌이였다.

그이의 눈가에서 뜨거운것이 번쩍이였다. 기대했던 그대로의 벌을 보시니 가슴속에 쌓였던 천만시름이 일시에 다 가셔지는것 같으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이 벌을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것인가. 한평생 인민들을 잘 먹이시려고 마음쓰시며 벌에서 사신 수령님께서 이 외진 산골에까지 넓은 벌이 펼쳐진걸 보시면 제일로 기뻐하셨을것이다.

《이제는 이 고장 농민들이 농사다운 농사를 짓게 되겠소.》

그이께서는 갈린 음성으로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주위에는 뜨거운 걱정외 파도가 일었다.

이때 장군님께 오문석이 흐느낌섞인 소리로 말씀드렸다.

《장군님, 우리 송죽리사람들은 폐기논농사를 짓는것을 천분인줄만 알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벌이 생길줄이야 어찌 꿈에선들 생각해보았겠습니까. 저희들은 평생소원이 다 풀렸습니다.》

《평생소원이 풀렸다. 허허...》

그이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동무는 폐기논농사를 천분으로 여겼다고 했는데 그래서 반드시 넓은 땅을 주자고 했소. 내 마음도 풀렸소.》

사람들은 명절을 맞은듯 흥성이고있었다.

차정설이만이 눈굽에 물기를 담은채 고개를 숙이고있었다. 그가 흐느낌섞인 목멘 소리로 장군님께 말씀드렸다.

《장군님, 저는 송죽벌에서 자신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칙대로 일한다고 생각해왔지만 너무도 구실을 못했습니다. 인민이 바라는것이랴면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우는 장군님의 그 사랑에 원칙이 있음을 늦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군님께서 무엇때문에 어느 하루 한시도 쉬지 못하시고 험한 길만 걸으시는지 저는 너무 늦게야 흐흑...》

그는 고개를 떨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동무가 내 마음을 알아주어 고맙소.》

장군님께서서는 부드럽고 다정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뜨거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였다.

기대했던 벌과 함께 마음의 키도 커진 그를 보시니 몹시 기쁘시였다. 마침내 자기의 위치를 찾



# 장군님처럼 조국을 사랑하자

김 석 주

눈덮인 강산에  
대고조의 열풍을 일으키며  
결사의 총공격전에 나섰다  
가슴가슴엔  
철석같이 다진 맹세가 불타다

장군님품에 자란 천만의 전사 제자들  
가슴벽을 팡팡 울리는 불같은 맹세여  
장군님처럼 조국을 사랑하자  
장군님처럼 인민을 사랑하자  
한생을 깡그리 불태우며  
심장의 마지막박동까지 다 바치신 그이처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조국의 부강을 위해  
그리고 할일이 많고 그리고 갈길이 멀어  
폭우 눈보라 불벌  
한생 장군님 헤치신 그 길우에  
우리 충정으로 뜨거운 자욱자욱을 새겨가자

행복의 날에도  
이 땅에 바치신 장군님의 로고를 생각하며 살자  
한모금의 물로 목을 추기시던 길가의 샘물  
언 췌기밤을 펴놓던 전선길의 너럭바위  
눈비에 젖은 옷자락을  
언제나 심장에 안고 살자

아, 눈물겨운 천만고생의 한평생  
아, 천만년 못 잊을 헌신의 한평생  
그 한평생이 뿌리가 되어  
이 땅에 펼쳐진 사회주의선경  
인민의 만복이 꽃피나 열매를 맺는 이 락원

이 나라의 한그루의 나무 한줄기 내물에도  
만년대계의 대기념비적창조물에도

사랑과 정을 다 쏟으신 이 조국이다  
심장의 마지막고동까지 다 바쳐  
사랑하신 이 조국이다

그대가 누구이든  
장군님처럼 조국을 사랑하자  
한생을 다 바쳐  
심장을 다 바쳐

장군님숨결이 어린 그 모든것  
신군총대를 더 억세게 틀어잡자  
끓이는 쇠물이 더 세차게 폭포치게 하자  
가꾸는 벌에 풍년나락이 무르익어 설레이게 하자  
CNC기계의 동음 더 높이 울리게 하고  
주체비날론이 이 땅을 휘감게 하자

장군님의 그 사랑으로  
온 나라에 파원의 바다 백파락원을 펼치자  
장군님의 그 념원을 꽃피워  
이 나라 모든 강줄기들을 행복의 강으로 만들자  
이 땅의 모든것  
더 풍요하게 더 부강하게 더 아름답게

애국애민의 귀감이신  
장군님의 위대한 생애앞에  
삶의 순간순간을 엄숙히 세우고 살자  
세기의 창공높이 우뚝 세우자  
세계가 우러러볼 강성국가 내 조국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를 결사옹위할 불타는 맹세  
오, 폭풍쳐내달리자 천만군민이여  
맹세의 불 심장의 불을  
강성국가 최후승리의 축포로 터쳐올리자

은 그가 대견하고 미더우시었다. 이 땅에 대한 불  
같이 뜨거운 사랑을 지닌 사람만이 이런 기적을 창  
조할수 있는것이다.

정설은 자꾸만 눈앞이 흐려짐을 어쩔수 없었다.  
그는 이 별이 자연의 땅으로만 보이지 않았다.  
정녕 그것은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하늘땅을 길들이  
시는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이 낳은 열화같은 사랑  
의 화폭이 아닌가. 송죽별만이 아닌 온 나라 방  
방곡곡에 펼쳐질 대지의 풍경! ... 그것은 위대한  
아버이의 손길에 받들려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으로

날에날마다 전설과도 같은 현실이 창조되고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모습이기도 한것이였다.

저 멀리 산발너머로 아침해가 눈부신 빛을 뿌리  
며 솟아오르고있었다.

송죽별은 더한층 환희의 풍경을 이루며 안겨오  
고있었다.

얼마후 장군님께서서는 별을 떠나시었다. 이름없던  
이 고장에 사연도 많은 이야기를 남겨두시고 더욱  
더 넓어질 인민의 대지를 펼쳐가시며 그이께서 또  
다시 이어가시는 길이였다.

##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기까지

지금 우리 천만군민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속에 민족최대의 명절 광명성절을 맞이하고있다.

아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혁명의 기치로, 보검으로 드시고 수십성상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며 선군조선의 하늘가에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온 세상에 힘차게 울려 퍼진다.

이 불멸의 혁명송가는 탄생한 그때로부터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어있다.

하지만 혁명송가의 창작과 보급에 깃들어있는 가슴뜨거운 사연에 대해서는 아마 다는 모를것이다.

당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업적을 칭송한 노래가 하루빨리 세상에 나오기를 간절히 념원하여 당중앙위원회와 조선인민군협주단을 비롯한 창작기관들에 수많은 청원편지를 보내어왔다.

어느 한 군인은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면서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새 세대 혁명가들은 누가 지으라고 해서 《조선의 별》을 창작한것이 아니라고, 지금 누가 창작하라고 지시해서만 혁명송가를 쓰겠는가고 자기의 절절한 소망을 편지에 담았다.

그리고 한 녀인은 조선인민군협주단 창작가들에게 불멸의 혁명송가를 인민군대에서 제일먼저 창작하여 삼천리강산에 울려 퍼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이 충정의 마음을 제일먼저 깨닫고 불멸의 혁명송가창작에 펼쳐나선것은 조선인민군협주단 창작가들이였다.

그들은 시대의 요구와 우리 천만군민의 열렬한 소망을 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창작전투를 벌려 드디어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완성하고 주체86(1997)년 2월의 명절을 앞두고 혁명송가를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올렸다.

2월의 명절을 맞으며 불멸의 혁명송가를 올린 창작가들의 기쁨은 컸지만 한없이 겸허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여전히 자신과 관련한 혁명송가를 지어부르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승인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창작가들과 예술인들은 1920년대 새 세대 혁명가들처럼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들자고 굳게 맹세 다지고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기념일을 경축하는 공연의 첫 종목으로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선정하였다.

영광의 시각은 다가와 막이 열리자 백두산에 태양이 솟아오르는 장엄한 모습이 무대배경에 새겨지고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탄생을 알리는 자막이 새겨졌다.

순간 것처럼 바라고 바라던 혁명송가를 듣게 된 관람석에선 우렁찬 박수가 터지고 감격과 환희의 파도가 세차게 물결치는 가운데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백두산 줄기내려 금수강산 삼천리  
장군님 높이 모신 환호성 울려가네  
태양의 위업 빛내신 인민의 령도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대지의 천만꽃도 그 사랑을 전하고  
동서해 푸른 물도 그 업적 노래하네  
주체의 락원 가꾸신 행복의 창조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강철의 담력으로 사회주의 지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세상에 떨치시네  
자주의 기치 높이 든 정의의 수호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이렇게 되어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세상에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혁명송가는 그 어느 출판물에도 실릴수 없었으며 방송으로도 나갈수 없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송가 《조선의 별》 보급도, 해방후 《김일성장군의 노래》창작과 보급도 엄하게 막으시였던 아버지수령님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굳이 만류하셨기때문이다.

하지만 노래는 벌써 신문과 방송이 아니라 뜨거운 심장파 심장을 거쳐 인민군장병들속에 널리 퍼져갔다.



#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불멸의 업적 영원히 빛나리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영원한 력사》에 대하여—

박 춘 택

피눈물의 언덕에서 산악같이 일떠서 조국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천만군민의 가슴속에는 태양의 모습으로 환히 웃으시며 우리 조국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장장 수십성상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력도로 아버지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과 태양의 모습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의지를 안겨주는 승리의 기치이고 크나큰 정신력의 원천이다.

뜻깊은 광명성절의 이 아침 우리 군대와 인민은 끝없는 흠모심과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조국과 인민, 혁명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뒹어넘치는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더해주시며 수령영생위업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빛나게 실현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감명깊게 형상한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영원한 력사》(리동구 작).

소설은 가장 숭고한 혁명적도덕의리심을 지니시고 인류정치가 알지 못하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위대한 귀감을 창조하신 아버지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감동깊게 형상함으로써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존함과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이 주체조선의 무궁한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리도록 해주신 **김일성**민족의 만대의 은인이심을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다.

소설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가 열린 때

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 고결한 총정,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국가, 군대를 이끄시면서도 한평생 혁명전사로서 수령님을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고 수령님의 위업실현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고매한 품모와 숭고한 도덕의리는 우리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귀감으로 되고있습니다.》

장편소설 《영원한 력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고결한 총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를 철학적으로 해명하는것을 사상주체적과제로 제기하고 그이의 비상한 의지와 헌신성, 끝없는 심혈과 로고에 의하여 아버지수령님의 영생위업이 이 땅우에 빛나게 실현되었음을 폭넓고 깊이있게 펼쳐보이고있다.

소설에 형상된것처럼 누구보다 상실의 아픔이 크셨지만 불굴의 의지로 자신을 다잡고 자신께서는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있을 권리가 없다고 여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께서 맡기고가신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의 운명을 먼저 생각하시며 결연히 일떠서시어 수령영생위업의 새로운 력사를 펼쳐가신다.

그이께서는 온 나라가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을 때 고결한 총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안으시고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길이 모실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당시)을 일떠세울것을 결심하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금수산의사당과 떼어놓을수 없듯이 수령님의 영생도 금수산의사당에서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시며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금수산의사당에

모실것을 결심하신다. 그이께서는 금수산의사당을 주체의 최고성지, 영원한 태양의 집으로 꾸릴것을 결심하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신다.

소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시는것을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조국, 주체조선의 영원한 미래에 관한 문제, **김일성**민족의 력사가 대를 이어 영원히 흐르게 하는 문제로 보시고 그 실현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음을 생활적인 화폭으로 확증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금수산기념궁전은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리념이 영원히 빛을 뿌리는 성지라고 하시며 이 점을 명심하고 기념궁전을 꾸려야 한다고 일군들을 일깨워주시고 대계단형성안을 보시고는 인민들을 한품에 안으신 수령님의 넓은 품을 편상하도록 계단을 형성할때 대해 가르쳐주시며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국가적인 행사를 진행해온 전례를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 기념궁전에 광장을 꾸리도록 하신다.

작품은 금수산기념궁전을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의 력사가 영원히 흐르는 성지답게 꾸리도록 정력적인 지도를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품도와 고결한 총정의 세계를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세상에 위인이나 명인들은 많지만 그들을 생전에 사업하던 곳에 생전의 모습 그대로 보존하는 기적은 누구도 창조하지 못했다. 오직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만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생전이나 서거한 후이나 변함없이 인민의 하늘로 계시고 인류의 태양으로 빛나도록 하는 꿈같은 기적을 낳으시였다.

정말 금수산기념궁전은 천상천하에 유일무이한 궁전이며 영원한 기념비이다.》

《금수산기념궁전은 수령에 대한 후계자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보여주는 기념비이다.》

금수산기념궁전개관에 대한 세계인사들의 심정의 토로.

소설은 금수산기념궁전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께 바치시는 총정의 최고정화이며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계승완성하시려는 장군님의 드팀없는 의지의 결정체임을 뜻깊게 천명하고있다.

작품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기고가신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헤쳐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헌신으로 사회주의조국이 수호되고 불패의 강국으로 빛을 뿌리게 되었음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새 전쟁도발책동과 봉쇄정책, 혹심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인난관...

겉쌓이는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나가는가? 타협하는가 아니면 쓰러지는가, 세상사람들은 우리에게 이 두가지 선택밖에 다른 길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적들과 절대로 타협하지도 않을것이며 대결전에서 쓰러지지도 않을것이다! 이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의 의지였고 결단이였다.

소설은 이 불굴의 의지와 결단을 안으시고 새해 첫날에 다박솔초소를 찾아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엄한 모습을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다박솔초소를 찾으신 날 저녁 수령님의 뜻을 이어 선군의 보검을 더욱 높이 들고 원썬들을 쳐부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을 지키며 아버지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이 땅위에 영원히 흐르도록 하실 의지와 신념을 담아 하시는 장군님의 말씀.

《나는 군대를 가지고 혁명을 끝까지 밀고나가자고 합니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주신 교시를 빛나게 실현하여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주체혁명위업을 수행하는데서 주력군이 되어야 합니다. 인민군대만 강하면 두려울것이 없습니다.》

소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박솔초소를 찾으신것은 선군혁명의 기동이며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최정예강군으로 강화발전시켜 조국앞에 드리운 준엄한 난국을 멸적의 총대로 단호히 짓부셔버리며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고수하고 실현하시려는 장군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의 선언이었음을 격이 있게 형상하고있다.

작품에서는 또한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장에 대한 현지지도장면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군인들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들로 키워주시고 그 정신을 높이 들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인민군대가 앞장에 서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불멸의 업적을 감동깊은 생활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지꽃계 내리는 비발속을 뚫고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발목이 잠길 정도로 전구간에 물이 차있고 천정에서 석수가 떨어지는 험한 물길굴안으로 서슴없이 들어가신다. 그렇게 험한 곳에 그이를 모실수 없다고 일군들이 앞을 막아서자 우리 인민군전사들이 희생을 무릅쓰고 건설한 물길굴인데 들어가보자고, 물길굴에 물이 차있으면 차를 타고서라도 꼭 들어가겠다고 결연히 말씀하시는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

《우리는 쓰러져도 붉은기는 앞으로!》

《말은 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전사는 죽을 권리로 없다!》

물길굴을 뚫은 군인건설자들의 불굴의 희생성과 영웅적위훈을 보여주는 글밭들을 유심히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군인들이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들은 만난을 뚫고 명령을 관철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입니다.》라고 격동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태자연개조공사인 안변청년발전소건설은 인간의 보통상식이나 실무적타산으로써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어려운 공사였다.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면서 수시로 생명을 위협하는 봉락과 석수와 싸워야 하는 그야말로 인간의 의지력의 한계, 용감성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상 류례없는 대건설격전, 한차례의 전쟁과 맞먹는 이 간고한 공사를 우리 병사들은 과연 무슨 힘으로, 어떤 의지와 배짱으로 해제끼였는가.

소설은 안변청년발전소를 일떠세운 군인건설자들에게 무적의 장수함과 불사신의 용맹을 안겨주신분은 바로 우리 장군님이시고 인민군전사들이 발휘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비상한 혁명적실천력과 완강한 투쟁기풍은 우리 장군님의 불가능을 모르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그대로 닮은것이였으며 그들이 보여준 고귀한 희생정신과 동지애도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주의와 동지애를 그대로 따른 것이고 그들이 간직한 난관극복정신과 락관주의는 우리 장군님의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 주체의 인생관을 자기의 신념으로, 생활로 체현한것임을 깊이있게 철학적으로 해명하고있다.

작품은 숨죽은 공장과 허리띠를 조이는 인민들을 뒤에 두고 아픈 가슴을 달래며 최전연부대들과 인민군군인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통하여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조국이 어떻게 수호되고 우리 인민의 행복이 어떻게 지켜졌는가를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바다날씨가 사나와 경비정으로 향해하실수 없다고 하는 부대장에게 초도의 병사들이 나를 기다린다고, 병사들을 찾아가는 나의 길은 그 어떤 풍랑도 막지 못할것이라고 하시며 경비정에 오르시어 세찬 바다바람에 옷자락을 날리며 노호하는 바다를 헤쳐가시는 장군님의 모습과 최전방중의 최전연인 판문점에 나가시어 병사들에게 자주적근위병의 신

념과 기개를 안겨주시는 모습 등을 통하여 선군의 위력으로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지켜내신 백두령장의 위대한 헌신의 세계를 높은 경지에서 부각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받들어모신다는것은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는것과 함께 수령님의 념원, 인민과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영원히 꽃피워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소설은 또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여 하루빨리 인민생활문제를 풀고 강성국가건설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풍모를 감명깊게 그리고있다.

조국앞에 엄혹한 시련이 드리웠던 그 나날, 그 누구보다 인민을 사랑하시는 우리 장군님께서는 힘겨운 생활난을 겪고있는 인민의 정상을 눈앞에 그려보시면서 달리는 야전차안에서 고생을 겪는 인민들생각으로 남몰래 눈물을 흘리시는것이다.

소설에 그려진것처럼 인민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있는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기여서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도시와 농촌들을 돌아보면서 내색하지 않는 인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꿰뚫어보고 눈물을 머금은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들이 오히려 나에게 툭 터놓고 쌀이나 필수품을 달라고 제기를 한다면 그렇게 가슴이 아프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들은 풀죽으로 끼니를 예우면서도 내가 췌기밥을 먹으며 전선길을 걷는것을 걱정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인민이기에 나는 그들을 위해 이 한몫 서슴없이 바칠 각오를 가집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결심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허덕복 황해남도 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을 전화로 찾으시고 자신께서는 것처럼 훌륭한 우리 인민들이 배를 뚫는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소스라쳐 잠을 깨고 전선길에서 췌기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것만 같다고, 자신께서는 한덩이의 췌기밥을 온 나라 인민들과 나누고싶다고 하시며 자신의 아픈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도 농사를 잘 지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두벌농사를 만정보 해볼데 대한 과업을 주신다.

소설에는 쿵우유생산과 애기젓가루개발에 대한 화폭도 감동깊게 펼쳐지고있다.

날알로 애기젓가루를 개발하려는 장연순연구사의 착상을 적극 지지해주시고 말도 못하는 젓먹이들이 배가 고파서 우는 정상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

프다고 하시면서 우리 식의 애기젓가루개발의 성공을 위해 훌륭한 연구조건을 보장해주시는 장군님.

우리 어린이들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콩우유생산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고 나라사정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흰쌀과 콩, 사탕가루를 비롯한 원자재를 해결해주시고 전기와 증기의 사정이 긴장해졌을 때에는 어린이식료품공장만은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단독선을 공장에 부설하도록 은정 어린 조치를 취해주신다.

어린이식료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공장을 떠나시면서 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나는 아버지수령님께서 남긴 사업수첩에서 콩우유와 애기젓가루에 대해 마음쓰신 기록을 여러 군데에서 보았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다 성장할 때까지 우리의 후대들을 배불리 먹이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념원이었습니다. 수령님의 제자, 전사들인 우리는 이 념원을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아버지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신다는것은 수령님의 유훈을 영원히 고수하고 실현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소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어린이식료품공장에 크나큰 관심과 사랑을 돌려주시고 애기젓가루생산을 위한 장연순녀성 연구사의 연구사업에 훌륭한 조건을 보장해주시고 은정을 베풀어주신것은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시고 콩우유를 정상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신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심오한 예술적화폭으로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은 역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실데 대한 새 헌법이 채택되는 장면의 묘사에서 더욱 웅심깊게 형상되고있다.

새 헌법은 수령영생의 법전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천만년 길이 모시자면 주석제를 없애는것이라고, 주석의 직함은 영원히 수령님의 존함과만 결부되어야 하며 앞으로 누구도 주석의 직함을 도용할수 없게 해야 하며 수령님은 공화국의 첫 주석이자 영원한 주석이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결한 뜻.

작품은 장군님께서 바쳐오신 심혈에 의해 작성된 새 헌법을 받아안은 최고인민회의 참가자들의 격동된 심정을 깊이있게 묘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은 사회주의조선의 영생이다! 그이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는 우리 조국과 겨레는 영원토록 무궁번영할것이다!

이 땅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가 영원히 흐르도록 오늘의 역사적전변을 안아오신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무궁번영할 조국의 미래에 살게 될 후손들도 길이길이 전해갈것이다!》

정녕 아버지수령님을 태양의 모습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여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것은 장군님께서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기록하신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된다.

소설은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우리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시고 우리 인민을 영원히 수령님의 품속에서 살게 해주신 혁명적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시며 **김일성**민족의 만대의 은인이시라는 것을 격조높이 구가하고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 속에 수령님의 영생의 력사가 흐른다는것을 심오한 예술적화폭으로 확증하고있다.

## 력사적사실을 예술적진실의 높은 경지어로

력사적사실을 총서작품에 형상적화폭으로 재현하는데서 기본은 뜻깊은 종자를 잡고 생동하고 살아숨쉬는 산인간의 성격을 창조하며 생활을 풍만하고 진실하게 그리는것이다. 이것은 력사적사실을 예술적진실로 전환시키는 기본요인이며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이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도록 하는 기본방도의 하나이다.

위대한 력사적사실들의 심오한 내용은 작가들로 하여금 사실들의 본질을 깊이 파고들며 그 의의를 형상으로 뚜렷이 구현할것을 요구한다.

장편소설 《영원한 력사》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나날에 있는 력사적사실에서 위인의 영생은 위인만이 빛내일수 있다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를 깊이 심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 수령님께서 영생하시며 장군님 계시여 이 땅우에 영원한 태양의 력사가 흐르고있다는 사상미학적주장이 뜨겁게 울려나오게 하고있다. 그러면서 작품은 수령의 영생은 후계자의 숭고한 혁명적도덕의리에 의해 담보된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인하면서 아버지수령님의 영생으로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영원무궁토록 부강번영한다는 력사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깊이 새겨주고있다.

소설은 수령의 영생에 관한 종자를 심은데 기초하여 수령님의 영생은 사회주의의 영생이라는 주제를 바로세우고 충정과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품모를 부각시킬수 있는 전형적이고 진실한 생활들을 감동깊게 펼쳐고있다.

작품의 형상적품위는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부적체험세계에 대한 진실한 묘사로 이루어지고있다.

피눈물속에 1994년을 보내고 맞은 새해 첫아침 다박술초소를 찾아가시며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바라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그 깊은 심리세계에 대한 묘사.

아버이수령님을 잃은 아이들이여서 장군님을 더욱 그리며 공연장에 나오시기를 바라는 아이들의 그 심정을 아시면서도, 자신께서 공연을 보아 주지 못한다면 더없이 서운해할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계시면서도 사회주의조국의 운명을 지키고 아이들의 밝은 앞날을 위해 군부대로 찾아가시는 장군님의 심리세계에 대한 묘사는 선군의 보증을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을 지켜나가시려는 그이의 불굴의 의지를 감명깊게 부각하고있다.

아버이수령님 서거직후에 《은빛-7》이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수령님께 급히 보고드릴것이었다고 하시며 교환수에게 수령님의 집무실에 빨리 연락하라고 했을 때 교환수처녀의 갈린 목소리와 흐느낌소리를 들으시고 수령님을 그리는 장군님의 심리체험에 대한 묘사...

작품에 그려진 심리적체험에 대한 이러한 분석적인 묘사들은 내면독백의 수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정토로의 수법으로 실현되고있다. 그리고 소설의 심리묘사는 생활과 자연스럽게 밀착된 립체적묘사로 품위있게 그려지고있다. 소설에서 조성된 엄혹한 정세를 두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체험하시는 심리묘사는 그이의 사상감정, 의지, 심리에 대한 전면적인 묘사로서 작품의 품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한 특색있는 심리묘사이다.

날로 엄혹해지는 정세를 꿰뚫어보시고 무거운 사색에 잠기시는 위대한 장군님, 사회주의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그이께서는 자신의 어깨에 실리는 력사의 중하를 무겁게 실감하며 심중한 사색을 거듭하신다. 조용히 눈을 감고 수령님께서 헤쳐 오신 시련많은 력사를 더듬어보시는 장군님의 사색의 세계, 수령님께서 비록 곁을 떠났지만 혁명의 진리와 풍부한 력사적경험으로 자신을 고무해 주신다는 느낌이 강렬하게 솟구치는것을 의식하시는 그이의 심중의 세계의 묘사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수령님께서 넘겨주신 혁명의 붉은기를 끝까지 들고나갈 철의 의지를 지니신 장군님의 위대한 품모를 잘 보여주

고있다.

작품은 인상깊은 세부묘사로 형상의 사상정서적 감화력을 강화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금수산의사당에서 수령님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손수 가꾸신 포도를 따서 탁아소, 유치원들에 보내주도록 하시는 세부는 숭고한 후대관을 지니시고 어린이들에 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인품과 숭고한 덕망을 감동깊게 부각하고있다.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활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퇴직했다가 아버지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공장에 다시 나온 강순녀를 만나주시는 생활세부는 지난날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따듯이 품어안아주시고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장군님의 숭고한 품모를 잘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영원토록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위업을 굳건히 이어 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모습을 우러르며 이 땅에 수령영생위업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그려 보면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더욱욱 목메여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뜻과 념원을 심장에 새기시고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드시고 수령님의 위업, 장군님의 위업인 주체혁명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오직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이 땅우에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력사가 영원히 흐르고있으며 우리 당과 조국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존함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영원한 력사》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고 우리 사회주의조선의 력사가 수령님의 혁명력사로 영원히 흐르도록 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감동깊게 형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기를 혁명대오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차게 고무추동할것이다.

## 우리 장군님과 시간

강 혜 옥

수도의 아침시간이다.

날마다 비약하고 전진하는 시대의 활력이 그대로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속에 옮겨진듯 아침출근을 서두르는 모두의 걸음은 내려가 돌힌듯 빠르다.

마치도 앞에서 누가 부르는듯, 뒤에서 누가 쫓는듯...

《순영동무! 같이 가. 아이 숨차라.》

《애, 늦었어. 빨리 가자.》

내일을 다우쳐지나치는 처녀들의 말소리를 들으며 자연히 나의 걸음도 빨라진다.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들도 달리고 사람도 달리고...

언제나 이렇게 바쁘게 걸으며 바쁘게 사는 우리들이다. 바쁘게 살며 투쟁하는 이 정신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것인가.

바쁜 출근시간이지만 자연히 시간에 대한 사색에 잠기느라니 한생토록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시간을 열시간, 백시간 맞잡이로 사시며 헌신의 세월을 누벼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시간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렇다.

우리 장군님은 것처럼 시간을 앞당겨 사시였다.

시간과 세월을 주름잡으시며 한평생 불처럼 활활 자신을 태우시며 바쁘게 사시였다.

우리 장군님의 시간에 대하여 말하자고 하니 절세위인의 너무도 많고많은 가슴뜨거운 사랑의 이야기가 수놓아진 력사의 그 나날들이 다시금 어려온다.

정녕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되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시간이다.

우리 혁명의 수심성상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을 위해 맞고보내신 날과 시간이 단 하루, 단 한시간 만이라도 있었다면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 이다지도 아프고 쓰리지는 않을것이다.

자신의 탄생일을 맞으시는 2월의 그날에도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바람세찬 험한 령을 넘으시여 최전방 인민군군부대들을 찾으시였고 공장과 농촌 그 어디나 불멸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별들도 깊이 잠든 밤에도 달리는 야전렬차와 야전승용차에서까지 사색하시며 너무도 많고많은 밤을 지새우셨으니 그 길에서 우리 장군님 문건을 보시다가 쪽잡에 드신적은 그 얼마이고 한공기 죽을 드시고 또다시 이어가신 강행군길은 몇천 몇만리이던가.

지금도 생각하면 눈시를 뜨겁게 젖어오는 우리 장군님의 고난의 그 길에 새겨진 선군혁명령도의 나날들이다.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적들의 봉쇄가 계속되는 엄혹한 정세와 거둬지는 자연재해로 불꺼진 공장거리, 마을을 보시면서도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데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고 또 부르시며 끝없이 가고가신 우리 장군님의 선군길이였다.

이처럼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물려주신 조국과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한평생 자신의 모든 시간을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다 바치시였다.

그리고 아끼고 사랑하신 귀중한 시간, 우리 장군님 헤쳐오신 애국헌신의 혁명시간속에 조국땅에는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고 대고조의 봉화, 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인공지구위성들이 우주를 향해 장쾌하게 날아올랐으니 우리 조국은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핵보유국으로, 우주강국으로 세상에 우뚝 솟아올랐다.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금수산태양궁전의 하늘가를 우러르느라니 나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대로 위대한 장군님을 더잘 받들어모시지 못한 자책감이 또다시 이 가슴에 파고들어서였다.

어째서 우리모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어느 일이나 마음을 놓으실수 있도록 자기의 일터마다에서 맡은 일을 더 잘하지 못했던가.

이것이 바로 온 나라 천만군민이 패늦게나마 뉘우친 가슴아픈 자책의 심정이다.

그 가슴아픈 자책의 마음을 천백배의 맹세로 다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백두령장이신

# 영광에 대한 시

김 정 곤

시간은 짧았다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우리 로병들이  
기념촬영을 하던 영광의 그 시간은

짧았어도  
총을 메고 포화를 헤치던  
열다섯살부터 칠십고령 이 나이  
흘러간 세월들이 다 모여와  
물목을 터친 밀물처럼  
진정 못할 걱정과 환희로  
이 가슴에 일어번졌나니

무슨 말이면  
이 심정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목이 메여 눈물이 앞을 가리워  
마디마디 끊어지던 만세소리  
웃음을 적시던 뜨거운 눈물방울...

수령님따라 미제를 쳐부시며  
장군님따라 사회주의를 지키며  
곧바르게 살아온 이 한생을  
영광의 단상위에 우뚝 세워주신  
아, 운명의 태양 **김정은**동지

촬영대 두번째 줄에 선 나에게  
자애로운 미소 보내주시니  
아, 꿈속에서도 뵈고싶던  
수령님과 장군님도 함께 계시는듯

아아  
일일천추 갈망하던 소원  
백두의 천출명장을 한자리에 높이 모시고싶은  
이 꿈같은 영광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로병들에게  
다 안겨주신것 아니었더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이 흘러가는 시간, 흘러가는 세월과 더불어 영원히 빛나도록 하시려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그토록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인민들의 문화휴식터와 새 살림집들도 찾아주시고 강성국가건설을 진두지휘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 군대와 인민들과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며 온갖 사랑과 정을 다 안겨주고계신다.

아, 정녕 그 시간은 한평생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이 민위천의 사랑이 영원히 이어져흐르는 사랑의 시간, 정의 시간, 력사의 시간이였다.

너무도 평범하지 않은 시간이 내 조국땅에 끝없이 흐른다.

오늘도 우리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모두에게 귀중한 시간을 아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일을 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더잘 받들어 하루빨

리 이 땅위에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라고 간곡히 당부하시는것만 같다.

그 당부를 심장에 새겨안은 우리 천만군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시간이 조국땅위에 영원히 흐르게 하시려고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할 충정의 맹세를 다지고있다.

이 아침!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시간이 줄기차게 이어져흐르는 선군의 세월속에 또 하루가 흐른다.

이 시간속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천만군민은 얼마나 긍지롭고 행복한 인민인가.

주체혁명위업의 한길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령도따라 끝까지 걸어갈 천만대오의 모습인양 온 나라 인민이 지금 이 시각도 강성국가건설전투장으로, 자기 초소와 일터마다로 가고있으리라.

이런 생각속에 출근길을 걷는 나의 발걸음도 더 더욱 빨라만진다.

# 아 철령아

주 경

말없는 산천도  
그리움에 잠겼느냐  
바라보기만 하여도  
우리 장군님 생각으로 목메어 불러보는  
아, 철령아

너의 령길  
사연깊은 굽이굽이는  
우리 장군님과 떨어져 살수 없는  
병사들과 이어진  
운명의 피줄  
사랑의 피줄이던가

너의 산악을 스쳐오는  
한줄기 바람결에도  
금시 울려올것만 같구나  
귀에 익은 야전차의 발동소리  
네 산정에 찢찢 메아리치던  
장군님의 호탕하신 웃음소리가

철령아 말하여다오  
츠렁바위에 울긋불긋 피어난  
철쭉꽃을 바라보시며  
우리 장군님 환한 미소 지으시던  
그 산벼랑은 어디...

너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한떨기 꽃향기에도  
우리 장군님 그날의 숨결 뜨겁게 흐르는  
선군의 산악  
그리움의 산악이여

말하라 철령아  
우리 장군님 아니시였다면  
그 누가 조국의 운명을 지키어  
비내리는 깊은 밤 눈오는 이른새벽에도  
사랑하는 전사들을 찾아  
이 높고 험한 령을 넘고 또 넘으셨으랴

너의 령우에선  
정녕 무심히 들을수 없구나  
새소리 바람소리 숲의 설레임소리도  
우리 장군님 뜨거운 심장의 박동으로 울리는  
선군장정의 대교향악같아

철령이여 너는  
우리 장군님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밀려오는 침략의 불구름을 쳐물리치신  
조국수호의 최전방

여기서 세계제패를 꿈꾸던  
미제의 핵야망은 깨어졌고  
침략전쟁계획들이  
선군의 거세찬 불길에  
한줌 재가루가 되어 흩날렸나니

가장 간고한 시련의 나날  
조국과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며 넘나드셨던  
력사의 증견자 철령이여

그 력사의 선군길에서 힘차게 날아올랐다  
제국주의의 포위와 봉쇄환에 돌파구를 낸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들이  
그 길에서 울려야갔다  
제국주의의 기둥을 밀뿌리채 뒤흔든  
지하핵시험성공의 만세소리

아아, 철령아  
너는 우리 장군님의 업적 노래하는  
선군혁명의 불멸의 기념비  
너는 또 한분의 천출명장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삼천리강산에 터져오를  
통일의 축포성을 선참 보게 되리라

## 상 식

### 3대꺾음꽃과 10대꺾음꽃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쟁반 등 여러가지 꽃 장식물과 꽃송이들이 사람들의 생활에 널리 이용되면서 세계적으로 꺾음꽃생산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세계적으로 오래전부터 꺾음꽃으로 생산량이 가장 많은 장미, 국화, 카네이션을 3대꺾음꽃이라

고 한다.

한편 오늘날 화초업이 발전함에 따라 꺾음꽃으로 쓰이는 종류가 늘어나면서 나리, 게르베라, 은하수꽃, 글라디올라스, 튤립, 향설란, 칼라 등이 추가되어 10대꺾음꽃으로 불리워지고있다.

# 빛나는 별의 노래

문 용 철

가없는 저 하늘  
그 어디서 빛나고있느냐  
천하를 굽어보며 날으는  
우리 조선의 별  
《광명성-3》호 2호기여

12월 ...  
장군님 생각으로 가슴짓는  
이 12월에 태어난  
우리의 별이어서  
샘솟는 눈물은  
이리도 뜨거운것인가

위성이여 너는  
우리 장군님  
달리는 야전철차의 차창가에서  
소중히 안아보시던 별  
그이의 심장에 타끓던  
애국애민의 불덩이

어느 거룩한분의 손길이  
제국주의자들의 횡포와 도전이 빗장을 지른  
우주의 문을 열어젖히고  
선군조선의 찬란한 별  
우리의 광명성을 안아올렸더냐

오, 그이는  
피눈물의 12월에  
억장이 슬픔에 무너져내리던

이 나라의 하늘을 들어  
우리의 머리우에  
삶의 푸른 하늘을 펼쳐주신분

우러르노라  
우리 장군님의 리상을  
우주에도 펼쳐가시며  
선군조선의 창창한 앞길을 밝히는 태양  
**김정은**원수님의 환하신 영상을

태양의 그 미소를 안고 빛나는 광명성  
선군의 눈보라길에 한평생을 다 바치신  
**김정일**대원수님께  
경애하는 그이 삼가 드린  
고결한 충정의 별이여

별!  
별은 소리없이 빛나도  
만리대공 가득히 울려오는  
별의 노래를 내 듣노라

백년천년  
이 나라 이 민족이 부르고부를  
절세의 애국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세기의 하늘가에 찬란한 우리 태양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노래를

## 조선의 2012년이 우주에 올랐다

한 동 선

《광명성-3》호 2호기!  
우리의 광명성이 우주에 올랐다  
우리의 꿈과 리상을 안고  
우리의 사랑과 정열을 안고  
우리의 피와 땀 지혜를 안고  
조선의 2012년이 우주에 올랐다

선군의 존엄과 힘을 떨치며  
제국주의의 횡포한 독설과 전횡을  
용용 불사르며  
압살의 개꿈을 산산이 짓부시며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조선의 량심과 지성이

우주에 또다시 올랐다

집집에서 박수소리 터져나오고  
일터마다 환호소리 터져올라도  
마주보는 얼굴마다 눈물이 내리누나  
저 우주길 열어주신 장군님 생각  
12월의 하늘가에 조선을 떠올리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생각

눈앞에 우렁이 안겨온다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 만세소리 울리고  
저마다 열싸안고 부둥키며  
원수님 우리를 때  
조용히 손수건 눈가에 가져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모습

금수산태양궁전 우러러  
원수님은 보고를 드리시여라  
—장군님  
우리의 광명성이 하늘을 납니다  
조선은 또 우주에 붉은기를 날립니다

오, 우주보다 더 넓은 그 총정의 세계에  
우리의 광명성이 날르고있다  
말하라 사람들이여  
운명의 1년  
그 나날 우리 파연  
어떤 힘으로 위성을 만들었던가

가 사

그 무슨 힘이 위성을 만들어올렸던가

력사의 시련과 슬픔을 디디고  
원수들의 도전을 쳐물리치며  
원수님두리에 뭉치고뭉쳐온  
일심단결의 분출로  
우리의 위성은 우주를 날은다  
일심단결의 응결체로  
광명성 우리 별은 더 아름답구나

수령님 닦아주신 터전우에서  
장군님 마련해주신 도약대우에서  
조선은 지구를 딛고  
더 높이 나래쳐올랐나니

우리의 존엄을 우주에 세우고  
우리의 힘을 창공에 떨치며  
우리의 위성은 오르고 또 오르리  
더 용감하게  
더 지혜롭게  
더욱더 통쾌하게

장하다 우리의 위성이어  
사랑한다 《광명성-3》호 2호기여  
너 태양민족의 2012년을 우주에 새겼구나  
조선의 장엄한 진군을 우주에 웨치고있구나

## 만출선 멋이로세

김 정 삼

동해의 해돋이가 용해장에 펼쳐졌나  
출선종 울려가니 불노을도 황홀해라  
쇠물의 파도가 넘실 기쁨의 파도가 넘실  
행복의 노을이 피니 만출선 닐리리야  
에헤야 열씨구 좋다 데헤야 절씨구 좋아  
행복의 노을이 피여 만출선 멋이로세

금강의 폭포수 그 경치 좋다지만  
불비단 쇠물폭포 볼수록 장쾌해라  
쇠물의 파도가 넘실 환희의 파도가 넘실

부강의 노을이 피니 만출선 닐리리야  
에헤야 열씨구 좋다 데헤야 절씨구 좋아  
부강의 노을이 피여 만출선 멋이로세

애국의 불노을로 하늘땅 물들이며  
위대한 우리 조국 강철로 떨쳐가리  
쇠물의 파도가 철썩 위훈의 파도가 철썩  
승리의 노을이 피니 만출선 닐리리야  
에헤야 좋구 좋다 데헤야 절씨구 좋아  
승리의 노을이 피여 만출선 멋이로세

# 태양송가로 빛나는 백인준의 숭고한 시형상세계

리 주 정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게 되는 2월의 이 아침 우리 작가들은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김일성**민족의 100년사와 더불어 길이 남을 명작들을 수많은 창작하여 주체문학예술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이바지한 선배작가들을 가슴뜨겁게 추억하고있다.

그들속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계적인 대문호라고 높이 평가해주신 작가 백인준도 있다.

시, 영화문학, 희곡 등 문학의 여러 종류와 형태에서 명작들을 많이 창작한 백인준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받들어 문학예술혁명을 수행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재능있는 작가였으며 위대한 태양의 노래창작에 자기의 온넛과 심혈을 다 바친 충정의 시인이었다.

그가 창작한 태양송가들은 오늘도 우리 천만국민의 심장마다에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겨주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며 뜨겁게 울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부문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를 톡톡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한다.》

백인준이 창작한 태양송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과 건강을 바라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마음을 담은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합니다》를 비롯하여 가사 《**김일성**장군님은 우리의 태양》, 《오직 한 마음》, 《그이 따라 나 갈 때》, 서정시 《태양》, 《그이를 불러 우리의 태양이라 노래함은》, 《크나큰 그 이름 불러》, 《삶에 대한 송가》, 《위대한 심장》 등 수십편에 달한다.

백인준의 태양송가는 시 《태양》〔주체 35(1946)년〕으로 고고성을 터치였다.

작품에서는 《별을 이고 나가 별을 이고 돌아오》던, 《태양은 참말 먼 나라의 이야기거리》로만 느끼던 서정적주인공이 로동법령의 발포

로 태양이 비치는 삶을 누리게 된 환희를 노래하면서 그 태양은 곧 **김일성**장군님이시라고 걱정을 터치고있다.

...

오, 태양!

뒤꼐목 나의 창가에도 가득 찾아온 새로운 태양  
태양은 곧 그이 **김일성**장군님  
나의 모든 행복을 그이께 돌리리

이 시는 그가 해방전에 썼던 모든 시들을 불살라버리고 해방후 처음으로 쓴 시, 민주의 새 감정으로 쓴 시이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진행되는 민주개혁수행에 앞장섰던 시인이였기에 일제식민지노예의 멍에에서 해방된 우리 로동계급을 노예적로동의 고역에서까지 해방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민주개혁의 태양으로 열렬히 칭송하였던것이다.

백인준의 태양송가는 주체36(1947)년 6월에 창작한 시 《그이를 불러 우리의 태양이라 노래함은》에서부터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다.

주체36(1947)년 5.1절을 하루 앞둔 날 저녁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 조국건설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시여 해방산기슭의 저택으로 작가들을 부르시였다. 리기영, 조기천, 김사량, 리동규 등의 작가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있었던 가지가지 이야기들을 감동깊이 듣고난 시인은 그 걱정을 누를길 없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로 손에 펜을 들었다.

그때를 회상하여 백인준은 도서 《신생의 노래》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겸허하게 하시는 수수한 회고담이었으나 나는 걱정과 흥분을 금할수 없었다.

(그 피어린 항일대전의 빛나는 승리로 캄캄하던 이 땅우에 광명이 오고 새 민주조선이 일떠섰으니 장군님은 정녕 민족의 태양이시다!)

나는 집에 돌아오자 서둘러 원고지를 내놓고 책

상에 마주앉았다.

저택에서 한가슴 넘치게 받아안은 흥분과 걱정을 그대로 글줄에 담아 한행두행 시를 써나갔다.》

송시 《그이를 불러 우리의 태양이라 노래함은》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을 왜 태양이라 노래하는가 하는 수사학적질문을 제기하고 세차례의 계기에서 토로하고있다.

첫 계기에서는 《저 푸른 하늘높이 빛나는 일륜(태양)이/언제나 대지에서 솟아 다시 대지의 품으로 들듯이/인민의 앞장에 선 장군님의 가르치심이/언제나 우리들의 가슴속에서 우러나/다시 우리들, 인민의 혈관으로 뻗쳐흐르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온 누리가 태양을 향해 생명을 뻗치듯 전체 인민의 손길이 위대한 수령님을 향해 환호하는 바로 그때문에 수령님은 《우리들 머리위에 빛나는/조선 인민의 태양》 이시라고 노래하였다.

둘째 계기에서 시인은 우리 수령님께서는 《20성상 민족의 피줄을 이어왔고 인민의 화불을 밝히셨》다고 하면서 《5천년 혈맥을 맥맥히 이어온/오, 그이는 우리의 자랑》이라고 긍지높이 찬양하였다.

셋째 계기에서는 창공의 일륜이 압록강이 흘러내리는 길을 밝히고 이 땅의 산줄기들을 세계에 전하듯이 우리 수령님께서는 《3천만의 앞길을 밝히고/세계를 향하여 웨치》 신다고 자랑높이 터치였다.

백인준의 태양송가는 그 이후 줄기차게 이어졌다.

주체41(1952)년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40돐에 드린 송시 《크나큰 그 이름 불러》에서는 《한밤에도 솟는 전설의 태양과 같이/신비로운 희망의 불빛을 밝혀주었네》라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은 《나의 조국이며/나의 당!/스승이며/동지!/행복이며/생활!/어버이이시며 수령!》이라고 걱정을 터치였다.

같은 해에 창작한 송시 《위대한 태양이 솟아 오른다》에서는 8.15해방 7돐을 맞으며 솟아오르는 아침해는 자연의 해가 아니라 이 나라에 해방을 가져왔고 온 세계에 찬연히 빛을 뿌리는 태양이라고 칭송하였다. 이것은 8.15아침의 밝은 해는 민족해방을 안아오고 세계에 밝은 빛을 뿌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영상이라 칭송한것이다.

백인준의 태양송가에서 그러한 사상감정은 주체 47(1958)년에 창작한 송시 《아침태양과 함께》에서 더욱 절절해진다.

작품에서는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리도 환하신 미소를 솟아오르는 아침

해의 찬란한 빛발에 비기면서 사회주의진영뿐 아니라 진보적인류의 앞길을 밝히시는 태양으로 열렬히 칭송하였다.

백인준은 주체49(1960)년에 창작한 서정서사시 《봄노래》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남녘땅도 비칠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자연의 봄은 남쪽에서 북으로 오지만 이 나라의 봄은 북에서 남으로 내려간다고 뜻깊게 노래하였다.

주체57(1968)년에 창작된 영화문학 《해발》의 주체가 《김일성장군님은 우리의 태양》과 영화문학 《한마음으로》의 주체가 《오직 한마음》은 태양송가로서의 그 열렬함과 진실성으로 하여 만사람의 심장을 흔들며 온 나라 가는 곳마다에서 울리었으며 세기를 넘어 오늘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1960년대말에 이르러 백인준의 태양송가에서 새로운 양상은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칭송한것이다.

주체58(1969)년에 창작한 가사 《우리의 평양》(영화문학 《금강산치녀》에서 나오는 노래가사)에서 《온 세상이 노래하는 주체의 태양》이라고 심장으로 노래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시인 백인준이 자기 창작의 첫시기부터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정의 한마음을 뜨겁게 지니고 태양송가창작에 자기의 온넋과 심혈을 다 바칠수 있었는가.

백인준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당의 작가로 내세워주시었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문학예술혁명의 나날에 손잡아 이끄시어 키워주신 작가였다.

바로 그러하기에 백인준은 투철한 수령관, 예리한 정치적안목, 높은 지성, 불타는 심장으로 수령송가들을 창작하였던것이다.

그의 수령송가들이 창작된 역사적배경만 보아도 그것을 알수 있다.

송시 《그이를 불러 우리의 태양이라 노래함은》은 해방후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각양각색의 운동자들이 저마다 《영웅》행세를 하며 나서던 시기에 창작되었으며 송시 《크나큰 그 이름 불러》는 조국의 운명이 판가리되던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였으며 송시 《아침태양과 함께》는 천리마의 나뉠을 퍼기 시작하던 력사의 분기점에서, 가사 《오직 한마음》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해가던 력사적전환점에서 창작된 작품들이다.

아직은 사람들이 수령과 당, 조국과 인민의 관계를 혁명적수령관의 견지에서 보지 못하던 1950년대



초엽에 벌써 송시 《크나큰 그 이름 불러》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나의 조국》, 《나의 당》,  
《스승이며 동지》, 《행복이며 생활》,  
《아버이이시며 수령》이라고 열렬히 칭송한 바로 여기  
에 시인 백인준의 당의 시인으로서의 높은 정치적안목,  
세계적인 대문호로서의 높은 문학세계가 있는것이다.

백인준의 태양송가는 1970년대에 이르러 새로운  
경지에 올라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온 사회  
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를 주체63(1974)년 2월 19일  
에 발표하신 후 주체형의 인간전형에 대한 형상탐  
구가 문단의 초점으로 되었다. 주체형의 맑은 피만  
이 차고넘치는 인간이란 어떤 인간이며 그런 인간  
은 이 땅위에 어떻게 태어났는가?

깊은 사색과 고심어린 탐구끝에 백인준은 주체형  
의 맑은 피만이 차고넘치는 인간이란 바로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생명을 지닌 사람이며 그것을 발견  
하고 안겨주신분은 정치적생명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라는것을 열렬히 토  
로하였다.

주체65(1976)년에 창작한 《삶에 대한 송가》가  
그 대표작이다.

시인은 작품에서 인류가 생겨 수백만년이 흘러  
철학자, 성인들이 인간의 생명과 삶에 대하여 몇백  
만권의 책을 서술한데 대하여, 엥겔스가 《생명은  
단백의 연소과정》이라 하였고 다윈은 생명의 진화  
를 말했으나 그 누구도 인간에게 육체적생명과 함  
께 정치적생명이 있다는데 대하여 말하지 못하였다  
는것을 먼저 토로하였다.

시에서는 계속하여

...

20세기에 이르러 인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심으로 하여  
인간에게는 다른 하나의 생명  
정치적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나니  
억만년 닫겨있던 생명의 신비는  
주체의 해빛아래 비로소 밝히여졌더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견하신  
그 새로운 생명의 원천을  
경애하는 수령의 존함과 결부하여 이름 지으시어  
온 세상에 높이 알려주신  
영명하신 지도자 **김정일**동지!

만일 그이께서 나의 가슴에도  
그 새로운 생명의 씨앗 뿌려주시고  
그토록 따뜻한 사랑의 해빛과  
그토록 두터운 믿음의 토양으로  
나의 삶을 꽃피워주시지 않았더라면  
내 이밤 이렇듯 생의 끝없는 기쁨과  
높은 보람을 느끼지 못했으리

...

의사들은 말한다 인간의 혈액속엔  
나이와 함께 로쇠가 온다고  
그러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우리들에게 로쇠할줄 모르는 새 생명 주셨으니  
...

...

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이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고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과  
진할줄 모르는 장수힘 키워주신분!

...

아, 지구위에  
인간의 영원한 락원을 꽃피우시고  
불멸하는 생명의 새 화원을 가꾸어가시는  
위대한 봄의 창조자 **김정일**동지!

그 성스러운 품속에 안겨 우리는  
인류가 생겨나 수백만년후  
20세기 조선땅에 처음 나타난  
새형의 인간—주체의 혁명가들로 자라  
종말을 모르는 위대한 생명의  
존엄한 첫 선조들로 되었어라

...

이때로부터 시인의 태양송가창작은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태양송가창  
작으로 확대발전하였다.

같은 해에 창작된 축원의 송가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합니다》가 그 대표작의 하나이다.

백인준은 송가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계승완성의 찬란한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열렬한 흠모와 축원의 감정을 절절히 노래하였다.

언제나 파사로운 사랑의 한품에 인민들을 안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행복과 영광을 마련해주시는 어버이장군님께 자기들의 운명과 조국의 미래를 영원히 맡기고 따르려는 철석같은 신념,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며 온 세상에 인류의 새봄, 자주의 새봄을 꽃피워가시는 위대한 그이의 령도를 받들어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이라면 산과 바다, 물과 불속이라도 넘고 헤쳐 대를 이어 충정다하려는 우리 전체 인민의 감정을 절절히 토로하였다.

백인준의 태양송가는 1980년대에 이르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그 밝은 앞날을 비쳐주시는 주체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한 깊은 정서적체함에 기초하여 더욱 거대한 진폭을 가지고 장엄하게 울리었다.

서정서사시 《새봄의 전설》〔주체78(1989)년〕이 그런 대표작이다.

...

조선땅에 새봄이 왔다  
주체시대의 새봄이 화창하여  
거리마다 마을마다  
행복의 노래 넘치고  
방방곡곡 가가호호  
창문마다에서 감사와 흠모의 노래 흘러나온다

...

오늘 복녘땅에 가득 서린  
민족대통운의 서운은  
이 나라 겨레가 사는 온 강산 끝까지 퍼져가리니  
남녘땅에도 새봄은 오리다

...

조선에 새봄이 왔다  
주체시대의 새봄이 왔다  
21세기보다 한결음 앞서는 이 봄은  
세기의 고개를 넘으며  
온 누리에 찬란히 빛을 뿌리리라  
아, 주체조선의 위대한 새봄이여!  
甦성하는 이 나라에 찾아온 경사로운 봄이여!

백인준의 태양송가는 1990년대에 이르러 더욱더 구체적정서로 절절해졌다.

송시 《위대한 심장》〔주체81(1992)년〕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미소어린 그윽한 안광을 통하여 온 세계와 인류를 안고계시는 그이의 위대한 심장을 노래하였다.

작품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자애로운 시선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의 생각을 하나하나 펼치면서 서정을 전개했다.

봄날의 해빛같이 눈부신 미소가 어린 그이의 시선, 30년간의 긴긴 세월 하루와 같이 돌보며 키워주신 그 모든 사람을 다 담은 시선, 잠든 첫아기를 품에 안고 사랑과 축복의 감정에 넘쳐 조용히 굽어보는 젊은 어머니의 맑은 눈동자와 같은 눈길, 외지에서 나돌다 집에 돌아온 고생땀은 자식을 말없이 쳐다보는 늙은 아버지의 생각깊은 눈길인 듯 한 시선, 그 위대한 시선앞에서는 백발이 된 나이도, 직위와 공로도 내 몸을 장식했던 모든것들이 형체없이 사라지고 애기가 된다, 마치 태양앞에 한 방울의 물방울같이...

물방울은 작아도 우주가 비긴다.

작은 물방울이 된 서정적주인공에게는 태양의 찬란한 빛을 뿜는 그이의 안광을 통하여 크나큰 태양의 전모, 온 세계와 인류를 안고계시는 위대한 심장이 비껴든다. 그것은 눈이 마음의 거울, 심장의 반사경이기때문이다.

이처럼 송시 《위대한 심장》은 어버이장군님의 따뜻한 미소가 어리고 태양의 빛발처럼 눈부신 안광에 대한 숭엄한 느낌, 진실한 형상을 통하여 인류의 태양을 노래한 시대의 명작이다.

백인준의 태양송가는 송가 《그이따라 나갈 때》〔주체81(1992)년〕에 이르러 백두의 천출명장, 선군령장에 대한 칭송으로 승화되었다.

작품에서는 우리 운명의 수호자, 행복과 번영의 창조자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만을 믿고 따를 때 언제나 백전백승하리라는것을 노래하고있다.

작품은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심으로 하여 간직하게 되는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터치고있다.

우리 인민을 서정적주인공으로 하고있는 작품에서는 그러한 사상감정이 세계의 절로 전개되고있다.

작품의 1절에서는 오늘 《우리들의 생명도 행복과 영예도/모두다 지켜주는 최고사령관》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라고 긍지높이 토로하면서 《그이따라 나갈 때 백전백승하리라》라고 신심드높이 토로하고있다.

작품의 2절에서는 《후대들의 미래도 민족의 존엄도/모두다 지켜주는 최고사령관》이라고 노래함으로써 오늘뿐아니라 인민의 래일까지도 책임지는 우리 운명의 영원한 수호자라는것을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다.

작품의 3절에서는 온 세상의 모든 원수들이 무리져온대도 그이가 계시기에 두려울것이 없다는것을 배짱있게 선언한다.

서정적주인공—인민의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 신심과 배짱은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신 백두의 천출명장 우리 장군님의 비범한 품모에 바탕을 두고있다.

판단이 정확하고 결심이 단호하고 타격이 무자비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천하무적의 장군품모에 매혹되어 시인이 터치는 걱정외의 분출인것이다. 그러한 사상감정은 후렴에서 열렬히 토로되고있다.

**김정일**동지는 우리들의 운명을 영원히 지키네  
그이따라 나갈 때 백전백승하리라

새길수록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불변의 믿음이 어려온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것은 생사운명을 같이할수 있다는,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맡길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때이다. 선군혁명의 빛나는 력사를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천출명장의 품모, 백두산장군의 자질을 폐부에 새겨온 우리 인민이기에 오직 그이 한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만을 믿고 따르려는것이다.

송가는 위대한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뼘을 맞으며 창작한것으로 하여 보다 큰 의의를 가지였으며 이후의 선군태양 송가창작들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참으로 백인준의 태양송가들은 주체문학예술과 함께 영원히 빛을 뿌릴 빛나는 시대의 명작들이다.

위대한 수령들의 품속에서 자라난 세계적인 대문호 백인준이 넘과 심혈을 다 바쳐 한생토록 창작한 태양송가들은 선군조선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역센 발걸음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힘과 용기를 안겨주며 영원토록 울릴것이다.

## 상 식

### 게르베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게르베라는 꽃이 색깔도 다양하고 곱다고 말씀하시였다.

게르베라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화초이다. 원산지는 남아프리카이다.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꺾음꽃의 한 종류이다. 화분꽃으로도 널리 쓰인다.

게르베라의 잎은 짧은 땅속줄기에서 모여나오며 꽃은 그 잎사이에서 나온 꽃대끝에 한송이씩 핀다. 꽃은 년중 계속 피는데 5~6월과 9~10월에 가장 많이 핀다. 겨울에도 방안온도가 10℃이상 되면 계속 꽃이 핀다.

꽃색은 흰색, 노란색, 감색, 붉은색, 붉은 보라색 등 여러가지이며 꽃크기는 10cm안팎이다.

게르베라는 햇빛이 잘 드는 서늘한 환경에서 잘 자라며 씨앗, 포기가르기 및 조직배양방법으로 퍼치운다.

### 외첩꽃과 만첩꽃

꽃은 꽃잎과 꽃받침잎, 암꽃술과 수꽃술로 이루어져있다.

그런데 나리꽃과 같이 꽃잎이 한겹으로 이루어져있으면서 이 모든 꽃기관들을 다 가지고있는 꽃이 있는가 하면 다리아와 같이 암꽃술과 수꽃술이 없이 꽃잎이 여러겹으로 겹쳐있는 꽃도 있다.

꽃잎이 한겹으로 이루어진 꽃을 외첩꽃이라고 하고 여러겹으로 많은 꽃잎을 가지고있는 꽃을 만첩꽃이라고 한다. 또한 꽃잎겹침성이 외첩꽃과 만첩꽃의 중간에 있는 꽃은 반만첩꽃이라고 한다.

만첩꽃이나 반만첩꽃은 암꽃술이나 수꽃술, 꽃받침잎 등 꽃기관의 일부가 꽃잎으로 변화되어 생긴것이다.

그러므로 국화나 만첩다리아와 같이 만첩성이 강하여 씨앗을 맺지 못하는 화초들은 가지심기나 포기가르기를 비롯한 영양번식방법으로 후대들을 퍼치운다.

# 인민이란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전 이 련

하루강의를 마치고 퇴근길에 올라 함박눈이 내리는 수도의 거리를 달리는 버스안에서 나는 줄곧 아들을 그려보았다.

(오늘은 일웅이가 또 어떤 글씨들을 보여줄까? ...어제 보니 백두산이라는 글을 제일 잘 썼어.)

오늘도 글씨공부를 많이 했을 아들을 그리며 또 다음날 강의할 내용들도 더듬느라니 버스는 벌써 우리 집앞 정류소에 와뒀었다.

걸음을 다우쳐 집문앞에 다가서니 나의 마음은 벌써 즐겁고 유쾌한 저녁정서생활에 흠뻑 젖어들었다.

매일 퇴근하여 집에 들어서기 바쁘게 목에 매여 달리는 유치원생인 귀염둥이 아들과와의 포옹으로부터 시작되는 나의 저녁생활일과는 아들의 글씨 학습장을 보여주는것으로 이어진다.

요즘은 유치원에서 우리 글을 익히기 시작하였는데 이제는 제법 받침이 있는 글자까지도 척척 써내는게 볼수록 사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이다.

《엄마! 이것 봐요. 오늘은 인민이라는 글자를 배웠어요.》

《어디 좀 보자... 우리 일웅이가 정말 잘 썼구나.》 하며 칭찬하는데 아들은 또다시 나에게 말하는것이였다.

《엄마랑 함께 갔던 인민야외빙상장에도 인민이란 글자가 있지요? 그러구 룡라인민유원지, 인민극장에도 인민이란 이름이 있어요.》

《그래,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말하고난 나는 아들의 글씨학습장에서 눈길을 땔수가 없었다.

네모칸안에 조그마한 꽃잎손으로 곱게 쓴 인민이라는 글자들, 레사롭게 던진 아들의 말이였지만 무심히 들을수 없는 인민이란 그 이름속에 나의 가슴은 밀물처럼 차오르는 뜨거움으로 하여 생각이 깊어졌다.

총대가 약한탓에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야만 했던 우리 인민이 삼천리강산에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심으로 하여 오늘은 자기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위대한 당, 자기들이 영원히 안겨사는 위대한 조국의 품속에서 가장 복받은 인민, 행복한 인민, 존엄높은 인민으로 되였다.

정녕 우리 인민처럼 나라의 주인이 되어 하늘처럼

떠받들려우고 내세워지는 그런 인민, 국가의 모든 정책과 시책이 인민을 위해 제정되고 복무되는 그런 나라가 이 세상 그 어디에 있으랴.

오늘 우리 조국땅우에 일떠선 대기념비적전축물들마다에도, 수많은 명예칭호들과 구호마다에도 인민이란 그 이름이 놓여있다.

바로 여기에는 인민을 제일 아끼고 사랑하시며 내세워주시던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다.

어찌 이뿐이랴.

더더욱 생각도 깊어지느라니 대동강기슭에 솟아 오른 인민야외빙상장이 떠오른다.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이 개관된 후 나는 제일 선참 남편과 함께 아들의 손목을 잡고 인민야외빙상장에 갔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피눈물을 뿌리며 다진 신념의 맹세를 심장에 간직한 우리 군인건설자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이 일떠세운 인민야외빙상장!

폐년에 없는 강추위속에서 수십미터가 넘는 고공에서 뿔트라스조립작업을 하고 새로운 건설공법들을 도입하며 일해나가던 미더운 그들의 그 충정의 작업모습들을 나는 오늘도 잊을수 없다.

나도 그 나날 야간돌격대원이 되어 자주 건설장에 나갔다.

그때 20살을 갓 넘긴듯 한 처녀돌격대원이 하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정말 이렇게 모두가 도와주어 고맙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사랑하신 우리 인민에게 안겨질 인민야외빙상장을 훌륭히 일떠세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 한평생 사랑하신 우리 인민!

그렇다.

자신을 언제나 인민의 아들로 여기시며 혁명의 그 길에서 인민사랑의 력사, 헌신의 력사를 수놓아 오신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인민이 꼭 차있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 조금이나마 무관심한 현상이 나타나면 그리도 가슴아파하신분이 우리의 장군님이시였고 언제나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그 길에서 남먼저 찬눈비를 다 맞으시며 초강도 강행군길을 걸으신분이 우리의 장군님이시였다.

인민이 알게 하신 일보다 모르게 하신 일이 더





홍 남 수

똑, 똑.

누구인가 나들문에 손기척소리를 냈다. 이어 공장초급당비서 창원이 방으로 들어왔다.

맹진주는 몸가짐을 흐트리며 고개를 들었다.

이제는 환갑고개에 이른 보통키의 창원은 쏘파에 꿇— 소리를 내며 앉고서 넋지시 물었다.

《이젠 퇴근하지 않겠소? 지배인동무가 퇴근하기를 기다리자니 배가 다 출출하구만.》

지배인 맹진주는 빙그레 웃었다.

《먼저 들어가십시오. 전 현장을 돌아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좀더 기다려야겠구만.》

창원은 정말로 기다릴듯 쏘파등받이에 깊숙이 등을 기댔다.

진주의 동그스름한 얼굴에 다시 어설픈 웃음이 스치었다. 진주는 가슴을 펴며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사실 지금 진주는 초급당비서와 다른 이야기를 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있지 못했다. 그럴만한 일이 있었던것이다.

오늘 공장에서 생산되어 상업망들에 반출되었던 아동용여름옷 150벌이 퇴송되어왔다. 그것은 진주가 공장에 없을 때 만들어 내보냈다는 옷이었다. 진주가 평성대동강피복공장에 지배인으로 임명되어 온지가 불과 한달밖에 안되었던것이다.

진주는 그 옷을 몇벌 가져다 눈여겨 살펴보았다. 무엇때문에 퇴송되었을가?... 진주는 어렵지 않게 그 원인을 찾아내었다. 천의 질과 색은 나무랄데 없는데 옷모양이 아이들의 기호에 맞게 새롭게 설계되지 못했던것이다.

진주는 지체없이 기사장을 불렀다. 그는 단도직 입적으로 말했다.

《기사장동무, 퇴송되어온 옷을 한벌도 남기지 말고 다시 수정해야겠어요.》

《예?!...》

기사장 한정실은 대뜸 눈을 치떴다.

《지배인동무, 그 많은 옷을 어떻게 다 고친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생산은 어떻게 하고. 농촌상점들에 내보내면 될걸 가지고 괜히 그러니까.》

한동안 기사장은 말을 끊고 바닥을 지그시 내려다보았다. 그러다 다시 말을 이었다.

《제 체면도 생각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요?》

정실의 마지막말은 대뜸 진주를 놀라게 하였다. 덩석 안겨드는 실망감... 그는 형언할수 없는 허전한 감정이 밀물처럼 마음속으로 흘러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어쩔 그런 말을 내놓고 한담... 체면? 체면이라... 그렇다면 기사장은 자기의 체면과 일군의 랑심을 바꿀 생각인가?...

이윽고 진주는 정실을 곧바로 마주보며 입을 열었다.

《기사장동무 잘못 생각하고있군요. 우리가 농촌 아이들옷은 따로 생산하는가요? 하나 묻자요, 기사장동무라면 자기 자식에게 이 옷을 입힐수 있어요? 자, 더 말 말고 품이 들더라도 다시 수정하자요.》

《지배인동무의 결심이 그렇다면 다시 해야지요 뭐. 래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실은 진주의 시선을 외면한채 내키지 않는 대답을 하였다. 그리고는 남자들처럼 어깨숨을 내쉬며 돌아섰다.

진주는 어떤 알수 없는 중압감이 어깨를 내리누르는것을 느꼈다.

이 일은 진주가 지배인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처음으로 생긴 사건이고 사람들과의 감정의 마찰이었다. 그런데 그 감정의 마찰이 기사장과의 사이에서 일어난것이 무척 불미스러웠다. 누구보다도 자기와 제일 보조를 잘 맞추고 일해야 할 기사장이 아닌가....

잠시동안 말없이 진주를 쳐다보던 창원은 움쭉 몸을 일으켜 그한테로 다가왔다.

진주는 마치 그가 곁에 오기를 기다리고있은 듯 말했다. 까닭모를 흥분이 그의 온몸을 휩쓸것이었다.

《초급당비서동지, 사람들이 어쩌면 자기만을 먼저 생각할까요? 더우기 일꾼이라는 사람이 체면부터 론하다니... 다들 그렇게 자기본위로 생각하면 공장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아픉니다.》

창원은 길쭉한 얼굴에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지배인동무, 사람들이 아니라 기사장을 녀두에 둔거겠지? 난 동무의 립장이 백번 옳다고 보오. 옷은 마지막 한벌까지 열번이든 스무번이든 다시 수정해야 하오.》

《초급당비서동지, 난 그저 일을 시키고 말로 지도하는 그런 일꾼이 되고싶지 않습니다. 난 퇴송해 온 옷은 기사장동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엄격한 상벌제도 실시해야 합니다. 국가의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눈앞의것만 생각하고 실적만 올려 평가를 받게 되면 대신 녹아나는건 공장이 아닐까요?...》

창원은 한동안 입을 꼭 다물었다. 그는 진주의 얼굴을 쳐다보고 아직 그가 마음속의 할말을 다 하지 못했음을 느낄수 있었다.

《그 일에는 내 책임도 없지 않소.》 하고 창원은 말했다.

《지배인이 없을 때 생산을 책임진 기사장을 잘 도와주지 못했거던. 동무도 공장에 온지 이젠 시간이 어지간히 흘렀으니 공장실태를 손금보듯 알지요. 최근년간 우리 공장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소. 지배인동무가 공장을 자기 궤도에 올려세우자면 힘에 부칠거요, 사람들 호상간에 생길 감정의 마찰도 각오해야 하고.》

진주도 그것을 모르는것은 아니었다.

창원은 진주의 옆얼굴을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힘들지요. 이제도 말했지만 지배인동문 오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수도 있소. 하지만 난 지배인동무가 그 모든것을 이겨내리라고 보오. 지금 사람들은 동무가 내디딘 첫걸음을 지켜보고있소. 어찌지 지배인동무가 이 공장에 처음 오던 때가 생각나는구만.》

...그날 공장사람들은 새로 오는 지배인을 기다리며 공장정문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지배인으로 올것인가? 남자일가? 녀자일가?...

사람들은 어느때보다도 새 지배인에 대한 관심이 컸다.

하지만 기다리는 새 지배인은 한낮이 기울도록 종내 나타나지 않았다.

후에 안 일이지만 진주는 그날 공장 뒤문으로 조용히 들어섰다. 그리고는 누구의 안내도 없이 공장의 안팎을 살살이 돌아보았다.

진주는 도착한 첫날에 벌써 공장의 실태를 훑하니 께였다. 그리고 머리속에 앞으로 자기가 할 일들을 하나하나 궁리하고 차곡차곡 계획을 세워놓았다.

진주는 공장종업원들의 생활형편부터 알아보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피복공장은 많은 녀성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다, 녀성들의 힘과 의지로 생산이 진행되고 생활이 흐르고있다, 또 그 녀성들의 손에 매 가정들의 살림살이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공장의 일이 잘되자면 뭐니뭐니 해도 종업원들의 생활에서 근심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진주는 생각했던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진주는 초급당비서와 정식으로 마주앉아 그동안 자기가 보고 느낀것과 자기의 계획을 담담하게, 침착하게 이야기해나갔다.

창원은 단아한 이목구비를 갖춘 진주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확실히 이 맹진주지배인은 잡도리가 달랐다.

진주의 한마디한마디의 말들이 론박할수 없을 정도로 정확했고 자기가 다년간 공장에 있으면서 스쳐버렸던 문제점까지도 찾아내여 이야기하는것이였다.

허나 창원은 느닷없이 어깨숨을 내쉬었다. 그가 아직 자기의 어깨에 얹혀질 짐의 무게를 다는 모를수 있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던것이다.

진주는 창원의 마음을 들여다본듯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듬어쥔듯 확신성있게 말했다.

《초급당비서동지, 우리 공장은 반드시 자기 위치에 올라설겁니다. 공장에는 그럴 힘이 있습니다. 전 그 힘을 온몸으로 느끼고있습니다.》

《음-》

창원은 심중하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옳다. 우리 일꾼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주는가에 따라 공장의 박동이 빨라질수도 있고 떠질수도 있는것이 아닌가!)

드디어 공장은 새 지배인과 함께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떡 활발한 성격인 진주지배인은 외형적으로 얼핏 보기엔 특이한데가 없는듯 하였으나 날이 갈수록 남다른 점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는 영민한 두뇌와 지칠줄 모르는 창조력을 지니고있었다.

진주는 항상 이런 생각을 좌우명처럼 간직하고 자신을 채찍질하고있었다. 무슨 일이든 지휘관이 하루로 결심하면 그 집행도 하루가 걸리고 한달로 결심하면 한달이 걸린다고...

진주는 우선 여러가지 옷설계를 창안하는데 몰입했다. 그는 이 일을 몇명의 옷설계가들한테만 국한시키지 않았다. 자기부터가 뛰어들었다.

한번은 그가 창안한 엉뚱하고 기발한 옷설계형태를 보고 창원이 그에게 이렇게 말한적이 있었다.

《지배인동무는 선천적이지요? 어떻게 남들이 못하는 생각을 척척 해내오? 동무 머리가 참 부럽소.》

진주는 눈가에 웃음을 지었을뿐이었다.

그때는, 더 정확히 말하면 한달전에는 그렇게 행동이 민첩하고 활기에 넘쳐있고 얼굴과 몸가짐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뚜렷하던 진주지배인이 오늘날에 와서 눈에 띄이게 변하였다. 어딘가 성격이 날카로워지고 무엇인가에 쫓기는것 같이 행동하고있다. 이것은 좋지 않다. 지나친 흥분은 사람들 호상간에 해소되기 힘든 감정을 삼거위처럼 엉키게 한다.

창원은 지배인이 어째서 이전과 다르게 변하는지 그 원인을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공장사람들이 호감을 크게 하는 그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기때문일까? 아니면 그 반대? 그럴수도 있지만 필경 다른 원인도 없지 않을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얼마후 그들은 공장정문을 나섰다.

밤이 펴 깊어선지 거리는 한적하리만큼 조용했다. 규칙적으로 옮겨놓는 그들의 발소리만이 가락맞게 울리며 대기를 흔들뿐이었다.

《지배인동무, 언제부터 묻자고 했는데 동무 어떻게 되어 피복계통에 발을 내디뎠소? 내 듣기엔 지배인동무는 예술에도 조예가 깊다고 하던데. 부모들도 다 예술인이 아니었소.》

창원은 비로소 생각난듯 걸음발을 늦추며 물었다.

진주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는 살아오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번 받았었다. 그럴 때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부모생각이 떠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우리 나라 연극부문의 이름있는 연출가였었다. 그가 연출한 여러 연극들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작품들이었다. 어머니 역시 예술단의 성악가수였다.

그의 부모들은 또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손에 총을 잡고 락동강까지 진격해나갔던 전쟁로병이기도 하였다.

진주가 바로 이런 예술인가정의 막내딸로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들은 어린 딸이 걸어갈 앞날을 미리부터 확정해놓았다. 막내딸이 점점 자라는것을 보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기대가 결코 헛된 일로 되지 않으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진주도 부모들처럼 천성적인 예술적재능을 가지고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중학교졸업을 앞두고 진주는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을 지망하였다.

그의 부모들은 선뜻 믿을수가 없어 딸을 앞에 불러 앉혔다.

《진주야, 우린 네 말을 듣고싶구나.》

막내딸은 미리 준비하고나 있는듯 또박또박 대답하였다.

《전 옷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싶어요.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싶어요.》

아버지는 딸의 녀이 샘솟는듯 한 반짝이는 두눈을 지그시 쳐다보았다. 이 애가 다 자랐구나....

결에 앉아 줄곧 딸의 잔등을 쓸어주던 그의 어머니가 자기식의 규정을 담은 말로 뇌이였다.

《우리 진주는 앞으로 네모방정한 사람이 될거예요.》

이제는 퍼그나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어머니의 그 말은 잊혀지지 않고 때없이 떠오르곤 한다.

《살아보니 나도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더 진한것 같소. 지배인동무, 어머니가 살아서 큰 공장의 주부가 된 딸을 본다면 정말 기뻐할거요.》

창원은 두뼉두뼉 걸음을 옮기며 생각깊은 어조로 말했다. 진주는 부지중 가느다란 숨을 내쉬었다.

《초급당비서동지, 전 아직 공장의 주부구실을 못하고있어요. 뭘 숨기겠습니까. 처음에 공장에 올때 전 모든 일을 어렵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오늘에 와서 제 어깨에 얼마나 큰 짐이 메워져 있는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서동지가 많이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는건 비판 많이 해주는겁니다.》

창원은 빙그레 웃으며 우선우선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게아니라 비판을 좀 해야겠소. 지배인동무 제 몸을 생각하지 않는게 결함이에요. 난 지배인동무가 첫걸음에 쓰러질가봐 걱정이요.》

지배인동무, 공장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높이에 올려세우자면 한두사람의 힘만으로 안되



오. 공장 전체 종업원들의 힘을 최대한 발동시켜야 하는거요. 종이장도 여럿이 들면 가볍다지 않소. 사람들의 힘은 곧 그들이 체현하고있는 정신에 있소.》

진주는 생각이 깊어졌다.

초급당비서는 지금껏 어느 한시도 자기를 시야에서 떼놓지 않고 투시해본것이였다.

문득 며칠전 일이 되살아났다.

그날 진주는 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 확장할 결심을 하고 기사장과 토론을 해보았었다.

그런데 기사장의 대답이 정말 뜻밖이였다.

《공장을 새롭게 변모시키면야 좋지요 뭐. 그런데 재봉질이나 하는 우리한테 그럴만한 힘이 있을가요. 제 생각엔 불가능할것 같아요.》

정실이 힘없이 말했다.

진주는 실망을 느꼈다. 그 실망이 얼마나 컸던지 다른 말을 할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한테 다른 말을 했댔자 객적은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가능, 그 소리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어낸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힘과 지혜에는 절대적인 한계점이 있을수 없었다....

(당비서동지의 말이 옳아. 한두사람의 힘만으로는 우리 공장을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 올려세울수 없다. 난 아직 공장에 잠재하고있는 힘을 다 모르고있는가봐. 난 그 힘을 알아야 한다.)

이때 당비서의 목소리가 진주의 상념을 깨뜨렸다.

《응?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지배인동무, 빨리 가요. 거리에서 밤을 새겠소.》

창원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나서 제먼저 빠른 걸음을 옮기였다. 진주는 한자리에 못박힌듯 서서 창원의 뒤모습을 바라보았다.

문득 그는 이밤 자기가 내짚은 걸음에 초급당비서의 남모르는 힘도 보태여지고있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낄수 있었다.

×

투쟁과 창조를 떠난 생활은 그 의의를 상실한 것이다.

투쟁과 창조가 있어 생활과 인간은 그 존재가치를 가지는것이고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다고 말할수 있다.

시간이 가고 날이 흐름에 따라 공장의 생산경영 활동에는 새웃이 하나하나 입혀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기쁜 일은 그해 공장에서 생산한 남자용솜옷이 도옷전시회에서 1등으로 평가된것이

였다.

이것은 맹진주지배인의 사색과 탐구의 결실이기도 하였다. 그의 두눈은 마치 모든 옷형태의 아름답고 새로운것을 찾아내기 위하여 생겨난듯싶었고 그의 머리도 기억과 활용 모든 측면에서 그 눈의 재현인듯싶었다.

기술자들과 종업원들은 다들 무척 기뻐하였고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진주는 재단직장을 새로 건설할 결심을 품고 협의회를 조직하였다. 사실 30여년전에 건설한 재단직장은 오늘에 와서 볼 때 너무도 협소하고 많이 뒤떨어져있었다. 그런데 협의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상상외로 태반이 침묵을 지켰다.

진주는 사람들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렵뜻이 짐작은 할수 있었다.

그동안 공장에서는 옷생산공정에서의 새기술정보실을 일떠세웠고 공장 뒤마당포장을 비롯해서 큼직한 일들을 해제끼였다. 그러나 재단직장건설은 그것과 대비도 되지 않는 판이 큰 공사였다.

생각에 잠겨있던 정실이 몸을 움직이였다. 자기의 의견을 말하려는듯싶었다. 정실은 자기한테 쏠린 사람들의 눈길에 압박감을 느낀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재단직장건설은 언제든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형편에서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우리가 지금껏 생산에서 부하를 받는것은 그런 부차적인 일을 많이 벌려놓았기때문입니다. 사람들도 이제 지쳤습니다.》

진주는 움쭉 몸을 일으켜 창문을 활 열어제끼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우리가 지금껏 한 일들을 부차적인 일로 보는 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공장에 남아있는 낡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공장으로 만들어야 해요.》

찌르릉—

진주의 말허리를 끊으며 전화종소리가 울리었다.

송수화기를 들고 상대방의 말을 듣던 진주의 표정이 굳어졌다. 정실을 언뜻 쳐다보더니 상대방에게 물었다.

《그래서요? 예? 백벌씩이나요? 알겠어요. 제가 알아보고 소식을 알려주겠습니다.》

진주는 송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정실을 쳐다보며 물었다.

《기사장동무, ××수산사업소에 작업복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인차 천을 보장하도록 하겠으니 이달중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는군요. 도대체

언제 그런 약속을 했어요?》

정실은 진주가 공장에 오기 전에 한 약속이라고 대답하였다. 그곳 수산사업소에 출장을 갔던 경리과장이 물고기를 먼저 받아오는 대신 작업복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한 것이었다.

《지배인동무는 잘 모를겁니다. 우리 공장은 이전부터 그곳 수산사업소에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작업복을 만들 로력예비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진주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얼핏 듣기에는 십분 납득이 되는 일인듯 했으나 밑바탕에는 좋지 않은 것이 깔려있었다. 어쨌든 진주는 지배인의 립장을 명백히 할 필요성을 느꼈다.

《기사장동무 우리 공장의 사명을 잘 모르는게 아니예요? 그 수산사업소에 꼭 신세를 갚아야 한다면 우리가 도와줄수 있는 다른 일을 생각해보지요.》

《...》

정실은 고집스레 입을 다물고있었다.

이때 신고개를 넘긴 경리과장이 그들의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지배인동무, 다른 일을 생각할게 있습니까? 지금처럼 어려울 때 그렇게 해서라도 종업원들에게 물고기를 먹이면 좋지 않습니까. 작업복을 만들어줍니다. 인정도 없음값음이라는데...》

진주는 경리과장의 목소리에 깔린 불만을 대뜸 느끼었다. 그는 협의회의 방향이 바뀌고 서로의 감정이 야기될수 있으나 할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경리과장동무, 하나 묻자요. 동무는 자기가 공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본적이 있어요?》

《예?》

반사적으로 눈길을 든 경리과장은 알팍한 입술에 웃모를 웃음을 지었다. 그는 거의 20년나마 경리과장사업을 해오고있었다. 그는 사업년한을 실무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경리과장동무.》 하고 진주는 다기차게 내쏘았다.

《눈앞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엔 리기적인 인간으로 되고말아요. 그리고 지배인파 기사장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동무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일군들인 우리는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자기 위치에서 량심껏 해야 하는거예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요. 이건 다른 문제인데 앞으로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 가까운 단위라고 해서 제 낮내기를 하면 안되겠어요.》

장내가 금시 서늘해졌다.

경리과장의 얼굴이 삼시에 창백해졌다. 그러더니 말마디들을 뺨개치듯 입밖에 내쫓았다.

《섭섭합니다. 저도 일을 하려고 뵙니다. 종업원들한테 공급한 물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진겁니까? 너무 뺨정하게 말씀하시는군요. 지배인동무는 평가를 받고 저는 지배인동무한테서 비판을 받고, 좀 잘못된것 같군요. 지배인동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 자리를 내놓겠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바빠난 기사장이 그들사이에 끼어들었다.

《경리과장동무, 무슨 말을 해요? 동문 정말... 지배인동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정실의 인상은 침울한 표정이었다. 방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창밖에서는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했는지 비가 오고있었다.

협의회는 진주가 생각했던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했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있던 진주는 초급당비서와 이야기를 하고싶어 방을 나섰다. 그가 초급당비서의 방앞에 섰을 때 방식 열린 문틈으로 경리과장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제가 독단적으로 그런 일을 결심한건 잘못입니다. 하지만 지배인동무는 사람을 너무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글썽 지배인이 아는것이 많고 실무가 높은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식이 그 사람의 총체는 아니지요. 지배인동무는 너무합니다. 유능한 지휘관은 구령을 크게 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자 경리과장의 말을 무질러버리듯 초급당비서의 말소리가 인차 따라섰다.

《대중의 평가는 경리과장동무에게도 폐외가 되지 않소. 나는 뭐니뭐니해도 지배인동무가 왜 과장동무에게 그런 비판을 했겠는가 하는것부터 생각해봐야 한다고 보오. 그리고 구령을 크게 치지 못하는 지휘관에 관한 문제데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고있기때문이에요. 자기 일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일군의 배짱으로 되는 것이니까.》

경리과장동무, 사람은 너나없이 조국앞에 후회없는 인생을 자각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소? 그것이 곧 조국에 바치는 자기 량심의 값이거던. 지배인동무 노엽게 생각마오. 지배인동문 지금 동무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있소.》

진주는 왜서인지 초급당비서방으로 들어설 힘이 나지 않았다. 그는 자기 방으로 스적스적 돌아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진주는 얼굴에 와닿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다. 언제 들어왔는지 창원이 앞에 서있었다. 서로가 입을 꼭 다문채 묵묵히 침묵을 지켰다.

한참후 창원이 침묵을 깨뜨렸다.

《지배인동무, 일군은 단것보다 쓴것에 더 맛을 들어야 하오. 이제 공장이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 올라서면 지금껏 동무가 겪은 일들이 즐겁게 추억될거요.》

한참후 진주는 나직이 말했다.

《비서동지, 전 평탄한 길을 걸어가 생각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야 한 공장을 책임진 일군이 아닙니까. 일군이 평탄한 길을 걸으면 다른 사람들이 힘든 길을 걷게 될겁니다. 전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허— 지배인동무가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한결 마음이 개운해지는구만.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오, 출장도 갔다왔는데... 자, 이걸 가지고 들어가오.》

창원은 밑에서 구력을 들어 책상우에 내려놓았다. 진주는 엉거주춤 일어났다.

《아니, 그건 뭘니까?》

《오늘이 동무 세대주생일이 아니요. 지배인동무는 출장지에서 오늘 돌아왔으니 아침에 세대주한테 술도 한잔 붓지 못했겠지.》

《고맙습니다.》

얼마후 진주는 사무실을 나섰다.

다음날 아침 초급당비서 창원은 찾아온 경리과장을 만났다. 어제 일이 아직 내려가지 않아 왔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입에서 나오는 첫마디가 뜻밖이었다.

《비서동지, 사람이 나이를 헛먹었구나 하고 생각되는 때처럼 허무한 일을 겪어봤습니까? 이 나이가 되도록 사람의 진심 하나 제대로 가려보지 못하니 그게 헛나이가 아니고 뭘니까? 제 지배인동무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창원은 경리과장의 태도가 의외여서 눈섭을 치켜올렸다.

《엇저녁에 지배인동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나에게 대뜸 하는 말이 자기가 사람됨이 굴렀노라고, 장소와 분위기를 가림없이 막 욕하면 옳은 욕도 잘 접수되지 않을거라는것쯤 생각 못하는 자기가 무슨 일군의 풍모를 갖춘 사람이겠는가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난 고까운 감정이 내려가지 않아서 뿌루통해있는데 서로 손잡고 힘합쳐 공장을 새 세기의 맛이 나는 현대적인 일터로 꾸려나가자면 경리과장동무같은 후방일군들이 뒤선을 든든히 막아줘야겠는데 고까운 감정만 내세울내기 하지 말자고 아, 글썄 술을 한병 척 내놓는게 아니겠습니까. 서로 일군답게 속을 톡 털자나요. 내 속으로 껌짝 놀랐습니다.

우린 많은 이야길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배인

동무의 마음도 알게 됐구요.

지배인동무 대들이더군요. 자기를 허심하게 인정한다는게 간단한 일입니까?》

창원은 없었던 체중이라도 내린듯 순간에 마음이 가벼워졌다. 창원은 경리과장의 가슴팍을 톡 내질렀다.

《결국은 그 술이 거기로 갔구만.》

경리과장이 눈을 휘둥그래 떴다.

《예? 그 술이라는건?...》

《하하, 됐소. 그럴만한 내용이 있소.》

허허허... 하하하...

마음이 가볍게 터치는 사나이들의 웃음소리가 창문을 넘어 대기를 흔들었다.

×

드디어 완성된 재단직장설계가 넘어왔다.

진주는 이미전에 세워놓았던 건설계획을 다시한번 따져보았다.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오늘 다시 검토해보니 어설플데가 몇군데 눈에 띄었다. 진주는 그것을 수정하고 기사장과 마지막토론을 하려고 그와 마주앉았다.

정실은 전번에처럼 자기의 립장을 말하지 않고 그저 진주의 말을 수궁할뿐이었다. 그러던 정실은 밀도끝도 없이 이렇게 말했다.

《전 지배인동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어떤 땐 자신이 무력한 존재라는 생각도 들고.》

《?》

진주는 언뜻 시선을 들었다. 그의 말을 무심히 들을수가 없었던것이다. 알수 없는 그의 심중이 내포되어있었다.

정실은 깍지킨 손을 책상우에 올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지배인동무, 전 기사장을 그만둬야 할가봐요.》

《?》

순간적으로 진주의 두눈이 치떠졌다.

《그건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예요? 어째서 그런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하고있어요?》

진주는 연방 물고나서 어이없이 웃었다. 정실의 말이 끝이 믿어지지 않았던것이다.

정실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난 똥판지같은 말을 하는게 아닙니다. 전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 정말이군요.》

정실을 마주보는 진주의 속눈썹이 바르르 떨었다. 하지만 정실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

었다.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리유가 도대체 뭐예요?》

진주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었다.

불현듯 정실은 반발하듯 말했다.

《지배인동무, 전 공장을 이끌어 나갈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이예요. 자기 능력의 한계점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인간이지요. 이 공장에는 다른 기술일군이 필요합니다. 제가...》

진주는 그의 말을 밀막았다. 누구도 동무의 능력을 저울질해보지 않는다, 동무스스로가 마음을 괴롭히고 자신을 낭떠러지에 세우고있다, 현실을 도피하지 말라, 아는것이 적으면 이제라도 배워서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

《제가 배우는 시간이면 현실은 그만큼 또 발전합니다. 전 이미 결심했어요. 정말입니다.》

정실은 누가 붙잡을가봐 겁내듯 서둘러 나가버렸다. 진주는 정실의 뒤모습을 보지 않으려는듯 두 눈을 감았다.

실망... 진주는 크나큰 실망을 느꼈다. 기사장은 정말 현실을 받아들이 힘 없단 말인가?... 혹시 나에 대한 무슨 오해라도?... 아니, 그는 그렇게 웅장한 사람은 아니야. 그렇다면 왜?...

저도 모르게 방을 나서 발길이 닿는대로 걸어가던 진주는 공장 뒤마당에 심어놓은 은행나무앞에 멈춰섰다.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낸 은행나무는 봄물이 한창 오르고있었다.

문득 진주의 머리속에 기사장과 함께 은행나무를 심던 일이 되살아났다.

작년 초겨울 그들 두사람은 언땅을 까내고 두그루의 은행나무를 심으며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사장동무, 은행나무는 천년이상 산다고 해요. 그러니 오래오래 이 공장의 증견자로 서있을 거예요.》

《그럼 수십년후엔 아마 우리 공장을 온통 뒤덮을겁니다. 그때 가서 공장을 위해 우리가 해놓은 일들을 이 나무가 말해줄지도 몰라요.》

그렇듯 소중한 추억과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공장에 남기려던 기사장이였었다.

진주는 그렇게 믿고싶었다. 그런데 그 모든것을 어떻게 쉽사리 버릴 생각을 했을까? 난 절대로 그의 요구를 들어줄수 없어. 먼 후날 사람들이 이 공장을 추억할 때 그도 우리들속에 함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진주의 마음을 배반하였다. 아니, 육체가 먼저 배반하였다.

한달전부터 왼쪽다리에 아픈 증상이 나타나던 것이 닷새전부터는 아예 걷기 힘들 정도로 저리고 쏘기 시작하였다. 종내 진주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진주는 병원에 입원해있으면서도 얼마전에 시작한 재단직장건설이 머리속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병원에 입원한 그 며칠동안이 몇달맛잡이로 느껴졌다. 바늘방석에 앉아있는듯 한 심정이었다. 진주는 배개밑에서 수첩을 꺼내들었다.

이때 창원이 입원실로 들어왔다. 진주는 오래간만에 만난듯 반색했다.

《비서동지가 마침 오셨군요. 그러지 않아도 한가지 토론할 일이 있었는데.》

《병원에 와서야 치료를 받아야지 뭘 또 생각하오. 난 듣지 않겠소. 그런데 지배인동무 벌써 도수안경을 끼오?》

진주는 대답은 않고 상그레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다시 물었다.

《재단직장건설은 어떻게 합니까?》

창원은 버럭 성을 냈다.

《동무 다른 생각 말고 다리부터 고치오. 다리를 고치기 전에는 내가 공장에 안 들어놓겠소.》

진주는 가느다란 숨을 내쉬었다.

《참, 이걸 좀 봐주십시오. 공장올타리공사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창원은 진주가 내민 수첩을 받아들고 한참동안 들여다보았다. 수첩에는 그가 착상한 우가 아치형으로 된 공장올타리모양이 그려져있었다. 그 하나의 그림만 보아도 세심하고 간진 실천가의 새로운 모습을 엿볼수 있었다.

수첩장을 번져보니 그것 말고도 여러 형태의 남자와 여자, 아이들 옷형태가 그려져있었다. 한마디로 그것은 진주의 창안수첩이었다.

창원은 병원에 와서까지 공장을 위해 애쓰는 그가 더욱 고맙게 생각되었다. 그런데 기사장은... 창원은 수첩에서 눈길을 들다 진주와 마주쳤다.

《얼굴에 구멍이 나겠소. 왜 그렇게 보오?》

《비서동지, 공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얼굴색이 좋지 않군요.》

진주는 어느새 창원의 얼굴에 언뜻 비꼈다 사라지는 어두운 빛을 알아본것이였다.

《기사장동무가 공장을 떠났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거요.》

진주는 눈을 치떴다.

창원은 그제서야 실언을 깨달았다. 잘못하면 진주의 병을 악화시킬수 있었던것이다.

《지배인동무, 나도 이제 늙은것 같소.》 하고 창원은 말했다.

《난 또 사업에서 공백을 남겼거든. 그가 공장에 서 떠나가는걸 종래 붙잡지 못했거든.》

진주가 병원에 입원한 다음날 정실이 초급당위원 회를 찾아왔다. 정실은 자기가 그만두려는 이유를 구구하게 설명하였다.

《지배인동무가 공장에 온 후에 전 저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은 그의 말을 더 듣고싶지 않아 창가로 돌아섰다. 정실의 말이 변명처럼 들리었다. 두팔을 벌려 창력을 짊 잡고있던 창원은 몸을 바로세우며 저력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기사장동무, 누구보다도 지배인을 잘 도와주고 공장을 이끌고나가야 할 동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있소? 지배인동무를 좀 보오. 그도 동무와 같은 녀성인데 같은 녀성으로 뭘 생각되는것이 없소?》

정실은 어깨를 내리뜨리며 호— 하고 긴숨을 내쉴뿐이었다....

진주는 창밖으로 눈길을 돌리었다. 창밖에는 봄빛이 완연하였다. 미구하여 화창한 계절이 올것이다. 인간생활도 자연의 법칙처럼 고정불변한다면?...

열흘후에 진주는 병이 어느 정도 완치되자 슬그머니 병원을 나와버렸다.

공장정문으로 들어선 그는 곧장 재단직장건설장 쪽으로 갔다. 그런데 한창 건설로 끓고있어야 할 건설장은 쥐죽은듯 조용했다.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쪽에서 걸어오던 자재부원이 진주를 보자 걸음을 빨리했다. 그는 건설을 책임지고있었다.

《지배인동지, 언제 퇴원했습니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진주는 대답을 앓고 물었다. 자재부원은 손을 뻗 내리그었다.

《나도 뭐가 뭘지 모르겠습니다.》

일은 이렇게 된것이였다.

가공직장장이 며칠동안 달라붙어 월계획을 끝내려고 건설에 동원되였던 직장 로동자들을 슬그머니 끌어들이었다. 그러자 김새를 보고있던 다른 직장에서도 연줄연줄 로력을 데려갔다.

(어쩌면 이럴수가 있는가?...)

진주는 눈을 감아버렸다. 그는 왼쪽다리에 심한 통통을 느꼈다.

진주는 누가 건드리지 않으면 언제까지 한자리에 서있을듯싶었다. 어쩌보면 공장안에는 그만이 외롭게 서있는듯 하였다. 비가 오려는지 날씨가 흐려있었다.

진주는 누구인가 자기한테 다가오는것을 느꼈지만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가공직장장의 목소리가 울리었다.

《지배인동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 일이 이렇게 될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진주는 어깨를 흠칫할뿐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잠시후 진주는 다리를 절며 정문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갔다.

《지배인동지!》

가공직장장이 소리쳐 불렀으나 진주는 그냥 걸을뿐이었다.

진주는 마음이 아팠다. 왜서인지 순간에 공장을 떠나간 기사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치도 그가 공장을 떠난데 원인이 있는것처럼 그를 붙잡고 막 행패질이라도 하고싶었다.

어둠이 사위를 덮기 시작하였다.

진주는 자기의 발걸음이 기사장이 공장을 나가 일터로 정했다는 꽃방을 향하고있다는것도 미처 알지 못하고있었다.

꽃방은 한적하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눈에 익은 자태의 한 녀인이 조용한 꽃방안에 앉아있었다. 정실이가 분명했다.

천천히 그의 등뒤로 다가가던 진주는 녀인의 어깨너머를 바라보고 멍칫 멍칫하였다.

책상우에는 옷형태도안이 그려져있는 종이장들이 펼쳐져있었다.

순간 진주의 마음속에서 모든 오해와 노여움이 씻은듯이 가셔졌다. 진주는 와락 정실을 부여안았다. 그리고 속에서 불불고있던 말마디들을 팔팔 쏟아놓았다.

《기사장동무! 바로 이게 진짜 동무의 마음이지? 동문 옷공장을 떠나선 못살겠지? 말하지 말아요. 내 다 알아요. 이 종이장들이 동무의 맘인줄 내 믿었다니까. 가자요, 정실동무. 일어서요, 공장엔 동무가 꼭 있어야 해.》

까딱앓고 앉아있던 정실이가 천천히 돌아앉았다.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있었다.

《지배인동무, 정말이지 공장을 떠나 못살겠어요. 잃고야 운다는 말이 무슨 소린가 했더니... 난 정말 속통머리가 못돼먹은 녀자예요. 괜히 엇드레 질하면서 지배인동무의 속만 썩이구. 날 옥해주세요, 막 때려주세요.》

《정실동무, 내 글썽 이럴줄 알았다니까. 동무야 다르겐 살수 없는 사람이지.》

진주는 뜨거운 걱정으로 마음이 그들먹해졌다.

그들이 아이들마냥 손을 잡고 공장을 향해 오고 있는데 방송선전차의 음악소리가 공장구내에서 울

# 적 정 의 웨 칭

변 홍 영

얼마나 가슴후련한 소식이나  
얼마나 통쾌한 선군의 승리이나  
우리의 위성이  
또다시 우주에 날아올랐다  
또다시 조선이 세계를 뒤흔들었다

창창히 열린 하늘  
눈부신 해빛  
온 나라 강산이 환희에 설레인다  
주체의 강국으로 누리에 빛발치는  
내 조국의 위용을 금치높이 안아보며  
내 북받치는 격정을 터치노라

조용히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눈굽이 후덥게 젖어오는  
우리의 《광명성-3》호 2호기  
세계를 앞서나아가는  
조선의 기상을 안고  
만리창공에 나래쳐올랐나니

내 아이처럼 울고웃는다고  
탓하지 말아다오  
오늘의 이 승전의 소식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아뢰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심중의 세계가  
눈물겹게 안겨와 뜨거움을 금할길 없구나

백두산대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천백배로 다지시며  
우리 원수님 견고걸으신  
애국충정의 그 자욱자욱우에

이 세상 가장 향기로운 꽃들을 피우고싶다

민족변영의 만대를 여시려  
최첨단돌파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주시며  
원수님 찾고찾으신 공장과 일터  
맞고보내신 그 무수한 낮과 밤들을  
이 세상 가장 숭고한 태양찬가에 다 담고싶다

오, 듣느냐 세계여  
또 한분의 위대한 백두령장  
우리 원수님의 거룩한 손길따라  
아름다운 미래에로 노도쳐 내닫는  
조선이 터친 장쾌한 우뢰소리들

보느냐 인류의 망심이어  
우리 원수님 진두에서 향도하시는  
선군혁명의 궤도따라  
정의와 평화의 푸른 하늘을 펼쳐나가는  
주체조선의 자랑찬 모습을

아아, 내 세상을 향해  
소리높이 웨치노니  
불패의 강국으로 거연히 솟아빛나는  
우리 조국의 앞길은 찬란하다  
우리 민족은 후손만대 변영하리라!

세기의 위인  
절세의 령장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위대한 선군조선 만세!

려나왔다.

아니?!...

들어서고보니 불빛이 환한 재단직장건설장에서  
사람들이 와글와글 뿔고있었다.

여이씨, 여이씨 맞들이를 들고 달리는 사람들,  
삽날에서 불꽃이 튼 정도로 걸싸게 혼합물을 이기는  
사람들, 한쪽에서는 벽체를 쌓는 사람들이 미장  
칼을 잡은 손을 날래게 놀리고있다.

역시 공장종업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발동되면 무  
서운 힘이 발휘되는것이다.

진주의 몸에서 아픔이 사라지고 희열과 새 힘이  
천천히 샘솟듯 살아오르기 시작했다.

《기사장동무, 우리도 저기 뛰어들어 땀을 쏟아  
보지요.》

《예.》

대답하는 정실의 얼굴을 바라보니 무척 젊어보인  
다. 문득 그가 한쪽을 손짓해보였다.

《비서동지도 저기 계시누만요.》

바라보니 초급당비서 창원이 한 처녀와 함께 속  
보를 막 붙이고있는 참이었다.

《달리자! 우리 장군님 바라시는 새 령마루를 향  
하여!》 내용이 시뻘건 붓글씨체를 통해 막 튀어나  
오는것만 같았다.

《비서동지!》

두 녀인은 건설장의 한복판을 향하여 성큼 걸음  
을 내짚었다.

...그로부터 몇달후 재단직장은 30여년간의 낡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현대적인 건물로 일떠섰다.

# 시적환상과 사색이 비낀 시어

리 동 수

시창작에서 시어를 어떻게 선택하고 활용하는가 하는것은 시작품의 사상에술성과 정서적감화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

생활을 깊이있게 파악하고 체험한데 기초하여 형상으로 실현되는 시의 사상정서적내용은 시인이 선택하고 활용하는 시어에 의하여 펼쳐지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시인들은 새롭고 뜻이 깊은 시어, 기발하고 참신한 시어를 골라쓰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훌륭한 언어표현은 허공에서 생겨나는것이 아니라 생활에 대한 깊은 탐구와 사색과정에 발견된다.**》

시 《오! 그날의 판문점》〔김형준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101(2012)년 4호〕은 시어형상에 기울여진 시인의 남다른 열정과 사색과 탐구의 흔적을 엿보게 하는 시이다.

시에서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험계선인 판문점시찰을 단행하신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의 기상과 담력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다.

시에서는 전쟁유령이 바람처럼 배회하는 판문점의 팽배한 정황에 어울리면서도 무적의 령장의 기상을 돋구기 위한 시어들을 선택하기 위해 시적환상의 나래를 펴고 사색과 탐구를 기울여 개성적이면서도 기발하고 발견이 깃든 참신한 표현들을 색채있게 쓰고있다.

무혈의 전쟁마당 판문점! 《그곳에선/해도 달도 별도 총창우에서 솟고 진다》.

바로 그런 곳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밝은 대낮에 태연자약한 모습으로 나오시여 환히 웃으시며 병사들과 팔을 끼고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해도 달도 별도 총창우에서 솟고 진다》, 표현이 얼마나 기발하고 참신하고 깊은 뜻을 담고있는가.

판문점에선 해도 총창우에서 솟고 지며 달도 별도 총창우에서 솟고 진다. 하루낮 하루밤 삼백에순

다섯날 긴장과 초긴장의 련속으로 이어지는 무혈의 격전장, 분초도 방심할수 없는 원쑤와의 대결장이라는 의미가 이 짧은 표현속에 얼마나 생동하게 함축되어있는가.

이런 시어는 시적정황과 내용에 맞는 가장 적합한 표현을 골라쓰기 위해 환상을 펴고 깊이 탐구하는 과정에 발견해낼수 있었던 표현이다.

...

그날 원쑤들은 보았다  
가련한 자기들의 잔명은  
백두산악앞에 한알의 모래  
작열하는 태양앞에 한갓 곶뽕이

...

밤도 아닌 청청대낮  
정의와 부정의 대결장  
적아의 총창이 맞붙어 마른 번개 날리는  
전쟁과 평화의 두 전호사이를 시찰하시는  
그런 대담무쌍한 령장의 모습  
세계는 아직 보지 못하였거니

감히 어떤 원쑤가  
우리를 넘본다더냐  
우리에게 천출명장 **김정은**동지가 계신다  
분렬장벽 땅금처럼 지워버릴  
핵불기등도 초볼처럼 꺼버릴  
정의와 평화의 수호자 **김정은**동지가 계신다

이 시에 선택된 시어들과 표현들은 사실에 대한 확인이나 재현이 아니라 시적환상을 펼쳐 얻어낸 사색과 탐구가 비낀 발견적인 시어들로서 새로우면서도 깊은 뜻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비유와 상징으로 이어진 시어들은 모두다 새롭고 비반복적인 개성적인 시어들로서 폭이 있고 중심이 깊은것으로 하여 이채롭게 안겨온다.

백두산악앞에 《한알의 모래》, 작열하는 태양앞

# 그날이 보인다

함영주

눈과 바람 비가 하도 세차  
고장이름도 세포라 부른 땅  
오늘은 군대와 인민  
온 나라가 달려오는 세포등판

수천년세월  
사계절의 그 변덕과 광란앞에  
순종하던 땅이  
움썩 솟구쳐일어섰는가

아, 무연한 너의 등판우에  
집집승때 흐르는 인민의 무릉도원 가꾸시려  
한평생 그리도 마음써오신  
대원수님들의 념원 꽃피우시려  
**김정은**원수님께서 내리신 결심이어

가없이 펼쳐진 저 멀리 방목지에서  
얼룩젖소들의 영각소리 메아리쳐오는가  
청고운 방목공들의 노래소리 들리는듯  
산굽이를 안고도는 랭동운반차의 긴 행렬이며  
우유를 마시는 능금불아이들  
그 밝은 모습 눈앞에 보이는듯

전변의 그날을 그려보는 가슴에  
산도 떠울길 새힘 용솟나니  
눈이여 평평 어서 내리라  
너는 초원이 기다리는 봄날의 생명수  
기승을 부리는 바람이여 아느냐  
동서남북으로 둘러막을 방풍림은

초원의 억년성벽

얼마나 웅대한 전망인가  
얼마나 눈부신 앞날인가  
개척자들의 붉은기와  
첫 통성을 나눈 드넓은 세포등판이여

한모습으로 진을 친  
돌격대병실들과 붉은기 나뭇기는  
그 어데를 둘러보아도  
눈길을 열고 언땅을 까내며  
멋쟁이호동과 가공공장러를 닮건만  
나는 여기서 대축산기지의 패일을 본다

아, 눈포 비포 바람포에 못이겨 사람들  
살길 찾아 떠나갔다는 그 이야기는  
영영 사라진 옛 전설  
애국의 불을 안고 달려온 개척자들의 이야기는  
홍하는 선군세월의 새 전설

해썬는 아침처럼 눈앞에 보인다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이 땅우에 빛내가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대자연개조의 웅대한 구상으로 펼쳐질  
대축산기지의 밝은 패일이 보인다  
신심에 넘쳐 마음속에 불러보는  
새 고장의 이름  
아, 행복의 천포여 락원의 만포여

에 《한갓 곰팡이》，적아의 총창이 맞붙어 《마른  
번개 날리는》，전쟁과 평화의 《두 전호사이를 시  
찰하시는》，분렬장벽 《땅금처럼 지워버릴》，핵  
불기둥 《초불처럼 꺼버릴》，《백두산의 무게로  
남기신》 그이의 자욱과 같은 표현들에는 시인의  
깊이있는 사색과 탐구가 력력히 비껴있다.

이러한 시적표현들은 그 어떤 천만대적도 눈아래  
로 굽어보시며 백두의 단력과 기상을 떨쳐가시는 정  
의와 평화의 위대한 수호자이신 천출명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인상을 높이 부각시키고있다.

시인들은 표현 하나를 써도 자기의 남다른 얼굴  
과 개성이 어려있는 언어를 골라쓸줄 알아야 한다.

그러자면 늘 환상과 사색속에 살아야 하며 새것을  
탐구하고 창조하기 위해 머리를 쓰면서 시적기교와  
재능을 부단히 련마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인의 목소리가 뜬소리가 아니라 독자  
들의 심장을 울리는 시대의 웨침으로 될수 있으며  
형상에서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통일을 보장할수 있  
으며 시대를 노래하고 대중을 선도하는 시인으로서  
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시《오! 그날의 판문점》은 시창작에서 시어형상  
에 각별한 주목을 돌려야 하며 색깔이 있고 기발하  
고 뜻이 깊은 시어를 찾아쓰기 위해 끊임없이 사색  
하고 탐구해야 한다는것을 시사하고있다.





## 안 동 춘

송경희가 온것은 러단이 적의 종심을 교란하는 작전을 끝내고 새로운 지구로 이동하던 때였다. 이 시기는 러단의 행로에서 가장 간고했던 불길천리, 피의 천리의 나날이었다.

처녀는 나타나기 바쁘게 인차 젊은이들의 화제에 올랐다.

어려운 때였지만 젊은이들은 역시 젊은이들이어서 미모의 처녀에게 무심할수 없었던것이다.

그런 한담속에서 처녀는 애꿎게도 《거만하겠다.》, 《멋쟁이었겠다.》는 평을 받았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만 만나면 뻥뻥한 비평가로 되던 사람답지 않게 평소의 자기를 잊어버리곤 했다. 러단의 젊은 군의는 그 처녀가 보이기만 하면 군복자락을 당겨내렸고 공병참모는 모자를 제껴서 매력있는 고수머리가 솟구쳐나오게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동작은 유감스럽게도 처녀에게서 호의가 아니라 경멸을 샀다. 전장에서는 오직 싸움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하며 다른 감정을 나타내는것은 한심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그였기때문이다. 그런데다가 그의 머리속에는 이미 미래의 대상자의 얼굴이 자리잡혀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만날지 모르는 미지의 그 배우자는 특출한 성품과 미로 빛나는 남자들중의 남자였다.

그에게 친절을 보이며 애쓰는 남자들중에는 배낭을 메다주겠다고든가 머루나 다래같은것을 권한다든가 했는데 그때마다 처녀는 《괜찮아요. 저 중기관총수는 탄약통까지 메었군요.》 라고 부드럽게 사양하든가 《고마워요, 전 한송이면 돼요.》 라고 하며 상대가 무안을 타지 않을 정도에서 인사를 차렸다.

아름다우나 범접하기 어려운 형의 녀자였다. 더구나 러단장이 그를 만나 《그래 경희야, 집에다 편지했냐?》라는 육친다운 물음을 던진 후부터 처녀는 더욱 특별한 존재로 되어갔다.

이때 처녀는 참모부 서기였으나 위생소와 함께 생활했는데 걸보기와는 달리 부상병간호라든가 피배인 봉대를 빠는 일을 곧잘 해제겼다. 그런데다가 한번은 불의에 달려든 적의 정찰대와 육박전을 벌리는 마당에 보병총을 잡고 달려감으로써 그런 녀자들치고 쉽게 얻을수 없는 존경을 획득하였다.

하지만 그는 반포대대 병사들한테서는 우연스러운 사건으로 못된 녀자라는 호칭을 받았다.

반포대대의 총아라고 해도 파연이 아닌, 이미 반공격시기에 한번 부상을 당하고 두개의 훈장을 탄 조성진화력부관은 엄정한 군의학적인단에 의하여 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본인의 완강한 고집과 지휘관들이 원심을 쓴 덕분에 그대로 포와 함께 움직였는데 이번 밤행군때에 왼발목을 접질렀다. 그리하여 그는 대대장의 명령으로 로획한 군마를 타게 되었다.

끼긋한 체격에 신수가 환하고 눈에 정기가 팔팔한 젊은이가 말을 타고 뚜버덕거리며 가는것은 그의 구멍이 뚫리고 소금기 배인 군복만 아니라면 경마장에 들어서는 경마수의 호사스러운 입장식으로 보일것이었다.

그때 경희는 몇명의 간호원들과 함께 경상자들을 부축하고 고개길을 오르고있었다. 밤낮없는 행군통에 그들은 누구나 가림없이 발탈이 나서 간신히 걸음을 옮겼다.

그 대렬을 따라 조성진이 탄 말이 경쾌하게 달려왔다.

처녀들은 부러움에 차 말을 보았고 기수의 인상에서 동정어린 빛을 찾으려 하며 방조를 기대하였다.

경희 역시 초조한 눈매로 말과 기수를 보며 기다렸다.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는데 말은 튼버덕거리며 그대로 그들옆을 스쳐지났다.

《량심이 없어.》

《어쩌면 저럴가, 동정심도 없이...》

지나가는 군마를 원망스레 쏘아보며 처녀들은 종알거렸고 경희는 그 기수의 탄력있는 몸매를 보며 입술을 옥물었다.

《런락군관인가부지.》

경희가 웃으며 돌아보자 류순덕중사가 입술을 삐죽거렸다.

《그럼 좋게요. 반포대대 군관이랍니다. 흥, 이제 우리 신세 안 지나 보자.》

그 말에 경희의 눈에는 알릴듯말듯 그들이 지나갔다. 그는 입술에 하얀 옥이를 박고 군마를 보다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웨쳤다.

《군관동지!—》

기수는 말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별에 절지 않은 아름다운 흰 얼굴의 낯선 녀자특무상사의 반쯤 벌린 입과 성난듯 한 눈을 보았다.

두 시선은 순간에 부딪혔다가 헤어졌다.

《왜 그러오?》

조성진이 물었다.

그 태연한 목소리는 경희의 얼굴에 땀소하는듯, 비웃는듯 한 웃음을 띄워주었다. 경희는 낮으나 땀 뻘뻘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동무들은 부상자들입니다.》

《알고있소.》

조성진은 무뚝뚝하게 경희를 보다가 말고삐를 껏 채며 더는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다.

경희는 그 끼끗한 자태와 색바랜 군복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남자군관의 무례함을 두고 커다란 실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입술을 꼭 앙다문채 걸었다.

그런데 좀 있어 금방 지나갔던 그 기수가 결승선에 들어서서는 경마수처럼 말을 쳐몰아 달려왔다.

경희는 그를, 그 말을 애써 보지 않으려 고개를 수그리고 부축하고있던 전사의 팔만 더욱 꼭 잡으며 걸었다.

갑자기 말발굽소리가 멎었다.

머리를 쳐들자 그앞에 말이 고개를 쳐들고 코깎을 붙어댔다. 그우에서 화력부관은 묵묵히 일행을

돌아보고 매우 굼뜬 동작으로 말에서 내렸다.

그는 경희앞에 마주섰다.

그리고는 마치 경희가 지금의 자기에 대하여 품고있는 불신감을 읽으려는듯 유심히 보다가 조용히 입을 떼었다.

《이 말을... 도착하면 우리 반포대대에 넘겨주시오.》

하고는 절뚝거리며 길옆에 물러섰다.

그리고는 넘적한 바위에 앉아 담배를 꺼내는것이였다.

예상외의 일에 모두 어리둥절했다.

경희는 보조개를 파고 먼구한 웃음을 감추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화력부관은 그들이 말에 부상병을 태우고 고개마루에 올라갈 때까지 그대로 앉아 담배만 빼금빼금 빨았다.

《그래도 인정은 있구나.》

《아니, 경희언니한테 끌려서 선심을 써봤겠지 뭐.》

처녀들은 기분이 나서 재깅거렸다.

말덕분에 한결 힘들이지 않고 휴식지점에 와서 그들이 충분히 쉬고났을 때 반포대대가 도착하였다. 그 대렬속에서 경희는 한사람의 부축을 받고 절뚝거리며 간신히 걸어오는 화력부관을 보았다.

경희는 자기가 큰 실수를 했음을 깨달았다. 런락군관이 아닌 중위가 말을 탔을 때는 꼭 그럴만 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겠는가.

경희의 얼굴은 빨갛게 타올랐다.

모든 처녀들이 화력부관의 눈에 띄지 않으려 했으나 경희는 그럴수 없었다. 그는 말고삐를 잡고 입술을 깨문채 자기네 부상당한 지휘관을 건게 한데 대한 힐난과 이죽거림의 포화를 퍼붓는 전사들 앞을 지나 조성진의 앞에 다가갔다.

이젠 얼굴이 파리하게 질린 경희는 분함어린 눈길로 조성진을 보았다.

《어쩔 그럴수 있어요... 말을 해야지요... 그건 위선입니다.》

그 말에 화력부관은 싱긋이 웃었다.

그 웃음은 경희의 가슴에 타래쳐들던 자책과 부끄러움을 노여움의 불길로 뒤바꿔놓았다. 더 상대할 마음의 여유를 잃은 그는 《하어튼 미안해요.》라고 쌀쌀하게 말하고 돌아섰다.

화력부관은 실수를 깨달았다.

《특무상사동무!》

경희는 오연한 눈길로 되돌아보았다.

이미 화력부관은 웃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미안할것은 없습니다. 말은 도로 가져가시오. 그건 나보다 부상병들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팬찮아요. 동지도 부상병이 아닙니까.》

경희는 그대로 가려 했으나 화력부관은 그보다 더 집질렀다.

《가져가시오. 그건 이미 우리 대대장동무까지도 승인한겁니다.》

그의 말에는 집요하고 완강한 요구와 함께 애원조가 스며있었다.

그의 눈길을 쳐다본 경희는 이 화력부관이 그 어떤 희떠운 판용이나 선심을 써 그러는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거절하는것은 친한 동무의 집에 갔을 때 쥐여주는 숟가락을 집어던지는 것보다 더한 행동이라는것을 알고있었다.

경희는 말고삐를 잡으며 한풀 수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중위동무는 어떻게 하렵니까?》

《난 발목을 약간 다쳤을뿐입니다.》

화력부관은 경희의 미안스러운 기색을 엿보고는 왜서인지 어쭙은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정 그러면 멘솔담을 얻어주십시오. 난 이런 경우에 그 약만 바르면 제격 낫는답니다.》

경희는 그가 말을 가져가기 웅색해하는 자기의 마음을 능쳐주기 위해 그 말을 한다는것을 알았다.

경희는 생긋이 웃으며 거수경례를 했다.

《그럼 잘 쓰겠어요. 약은 구해보겠어요.》

화력부관은 경희의 뜻밖의 거수경례에 낮이 벌짓해지며 맞받아 거수경례를 하였다. 경희가 말을 끌고가자 류순덕중사는 입이 벌글서해 기뻐했다.

《그 구두쇠들이 말을 내놓은건 특무상사동무의 얼굴값이에요.》

《그건 그들의 성의에 대한 모욕이에요.》

경희는 그를 꾸짖었다.

그러나 말을 끌고올 때 자기와 화력부관을 번갈아보던 그 대대 병사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무언가 게름직한 기분이 끈덕지게 살아올랐다.

(아니, 그건 그럴수 없어.)

경희는 자기의 거수경례를 받을 때 낮이 처녀들처럼 붉어지던 화력부관의 순진스런 모습을 확대해보며 그 끈덕진 기분을 털어버리려 애썼다.

그로부터 이틀째 되는 날 러단은 하마트면 적의 포위에 들번 하였다. 그들이 통과할 산협에 적의 한개 사단이 대기하고있었다.

러단은 은밀히 별판으로 방향을 돌려 포위망을 벗어났다. 그러나 그들이 포위망을 벗어났다고 생각한 그날 아침 적의 기계화부대가 꼬리를 물고 망

크포와 박격포로 러단의 후미를 감겨댔다.

경희는 나서 처음으로 《불의 소나기》라고 하는 포격권속에 들었다.

온 공간이 쇠와 불의 광란속에 휘말려들어갔다. 그속에서 경희는 한순간 당황하였다. 류황내쉬인 먼지구름속에서 어쩔바를 모르고 폴썩 주저앉았던 그는 《다쳤소?》라고 묻는 자기네가 후송하던 부상병의 웨침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그는 자기가 겁많은 소년처럼 웅크리고있었음을 부끄럽게 깨달았다. 궁지높은 처녀는 전사들의 눈앞에서 겁쟁이로 보이는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하여 그는 이런 정황에서는 안전한 곳을 찾아 은폐하는것이 옳다는것도 잊고 허리도 구부리지 않은 채 머리를 쳐들고 포화속을 달렸다.

먼 후날 어느 누가 이때의 감정을 묻는다면 그는 포탄의 끊임없는 작렬음과 파편의 앙칼진 휘파람을 장엄한 교향곡처럼 들었다고 할것이였다.

학교시절부터 마음속 숭배의 대상으로 되던 조선인민혁명군 내대원의 형상을 눈앞에 그리며 그는 자신을 영웅시가의 주인공으로 생각했다.

(그때, 나는 싸움터가 항상 이러리라는것을 알았지. 나는 바로 이 죽음의 마당을 웃으며 달리리라고 이미 속다짐하지 않았던가. 조국을 위한 이 싸움에 나는 목숨을 바치리라 맹세하지 않았던가.)

허나 폭음과 불과 포연은 부단히 공포의 바줄로 그를 얹으려 했다. 하여 그는 이 공포와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비장하고 용감한 노래를 부르려 했다. 그런데 평시에 그렇게 많이 알고 부르던 노래구절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불타네, 불타네.》하는 소절만 끝없이 되풀이되고 그 음은 떨리는 입술새로 가쁜 숨소리마냥 흘러나왔다.

《나는 강하다!》

파편에 모자가 날아가고 머리칼이 흐트러지는것을 바로잡으며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기도 했다. 화력부관이 준 말이 피를 쏟으며 쓰러지는것을 보면서 눈만 크게 떴을뿐 놀라지 않았다.

그는 러단지휘부로 달려가 삼촌인 러단장에게 자동총을 달라고 소리쳤다.

유축진 바위밑에 작전지도를 놓고 참모장과 이야기를 나누던 러단장은 머리칼이 앞이마에 드리우고 두눈에 달이 뜬 경희를 보자 처음엔 놀랐고 다음엔 웃었다.

《어데— 적이 있나?》

그때야 경희는 총으로 쏠 거리안에는 한놈의 적도 없다는것을 알았다.

하지만 러단장은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경희에게

자동총을 주게 하였다.

포사격이 멎은 후에도 경희는 그러한 정열의 첨단에서 쉬이 벗어날수 없었다. 심장은 여느때없이 세차게 고동쳤다.

질서정연하게 흘러가는 대렬을 보면서도 만세라도 부르고싶었다.

상처 하나 나지 않고 살아났다는 기쁨, 공포와 싸워이겼으며 비겁쟁이로 되지 않았다는 희열이 그 충동을 일으킨것이다.

(나는 이겼다, 앞으로도 이길것이다!)

그는 자기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겨운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러나 죽은 말의 고삐를 끌고있는 병사를 봤을 때 경희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때야 그는 말의 반쯤 감은 눈과 허공으로 들린 검스레한 발통을 똑똑히 보았다. 말이 불쌍했다. 그의 랑볼로는 눈물이 줄져내렸다. 말을 주던 화력부관의 얼굴이 피땀 뒹굴었으나 그 모습은 떠오르던것처럼 사라졌다.

려단대렬은 행군속도를 높였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작전적방침에 따라 펼쳐지는 군단의 새 전투지구에 려단이 한시바삐 도착해야 한다고 선전원들이 다니며 말했다.

또 한번 본때있는 승리의 싸움을 바라보는 전사들의 걸음발은 빨랐다.

그러나 지휘관들의 얼굴은 어두웠다.

그들은 뒤따르는 적 기계화부대의 발동소리를 가늠이나 하는듯 어떤 때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강구기도 하였다.

흐린 날씨였다. 해도 보이지 않았다.

소나무잎들이 물기를 머금고 번들거리고 검은 땅은 찬기운을 뿜었다.

드디어 적땅크들의 발동기소리가 대렬후미의 병사들한테까지 들려왔다.

얼마 안 있으면 놈들이 려단의 쫑무니를 짓뭇개려 할것이다. 직사사격으로 려단을 제압할것이다.

경희는 병사들의 수군덕거림에서 각각각 위험이 가까와오고있음을 깨달았다.

《뒤로 전달, 속도 빨리!》

연신 독촉이 왔다.

그런데 갑자기 앞으로부터 일어덥의 군인들이 한결같이 철갑모를 쓴채 준엄한 얼굴로 마주와서는 대렬과 반대방향으로, 이미 지나온 적이 있는쪽으로 걸었다.

그들은 걸으면서 지나가는 대렬을 유심히 살폈고 누구를 향해서는 빙긋이 웃어보이기도 하는데 그 웃음 역시 평범하지 않았다.

경희는 그 일어덥명의 뒤에 화력부관이 있음을 보았다.

철갑모를 눈섭까지 내려쓰고 입을 꼭 다문 그도 지나치는 군인들중에 누구를 찾거나 하려는듯 세심히 훑어보는것이였다.

경희는 불쑥 류순덕이 말하던 《...얼굴값이에요...》라고 한것이 생각났다. 저 사람이 혹시 하는 자기로도 경박스러운 선입감이 튀어나는 그 순간 화력부관이 경희를 보았다.

경희는 거의 무표정한 눈매로 화력부관의 시선을 맞았다. 화력부관은 무언가 말을 할듯 하다가 경희의 곳곳한 태도때문인지 인츰 고개를 돌리고 엄숙한 기색으로 앞만 봐보며 걸음을 다그쳤다.

경희는 부지중 미안스러웠다.

그는 이 화력부관이 류순덕이 말한 류의 남자가 아님을 알았다.

(나를 뭐라고 할가, 인사도 않는...)

경희는 화력부관이 걸을 지나는 순간 낮은 소리로 재빨리 말했다.

《안녕하세요, 중위동지.》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중위는 무슨 말인가 하여 걸음을 멈추고 처녀를 응시하다가 경희의 얼굴이 빨갛해지는것을 보며 그 역시 얼굴이 벌갛해졌다. 하더니 눈섭을 찌프리며 끝낸 사람처럼 걸어갔다.

경희는 그가 자기 말을 잘 못 알아들었으며 그래서 무슨 말인가 기다렸음을 알았다.

(아이, 성미가 급하네.)

이번에는 마디마디를 국어강독때의 발음으로 했다.

《중위동지, 말이 죽었어요. 포탄에 맞아-》

화력부관은 돌아봤다.

그는 경희의 얼굴을 뚫어질듯 보다가 손을 뻗 휘젓고는 뛰다싶이 갔다. 그것은 경희에게 인사라기보다 그 어떤 모욕적인것으로 느껴졌다. 상대할 필요가 없을 때, 아니 그 상대가 자기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 때 저렇게 하는것이 아닌가.

경희는 자기 자신이 너무 경망스러웠다고 후회하였으며 그에 대한 언짢은 기분을 가셔낼수 없었다.

경희가 머리를 가우뚱하고 몇걸음 옮기는데 앞에서부터 이상스러운 말소리들이 들려왔다.

《차단조야, 공격을 견제하자는거지.》

《한마디로 결사대지.》

《돌아오지 못할거야.》

《그럴수 있지.》

《전쟁이니까.》

경희는 놀랐다.

경희가 뒤돌아보니 화력부관일행은 벌써 저만치 사라져간다.

(왜 저 사람들만 갈까. 이 많은 사람들은 뭘 하고... 한개 기갑부대무력을 저들이 어떻게 다 막는단 말인가.)

경희는 풀지 못할 방정식과 맞다들었을 때처럼 머리가 혼탁되었다.

가슴은 마구 활랑거리기 시작하였다.

경희는 자기의 의문을 풀지 않고는 견딜수 없어 앞으로 비집고 나갔다.

안면있는 포병참모를 만나자 경희는 언젠가 《동무는 협주단에 갈걸 그랬소.》라는 말의 양감음으로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의 팔소매까지 잡으며 다급스레 물었다.

《반포대대에서 왜 저 여덟사람만 떨어집니까?》

포병참모는 이 도시태생의 거만한 녀자의 촌스러운 물음에 두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왜 그들만 차단조예요. 그들은 위험하겠지요?》

그제야 경희가 무엇때문에 그러는가를 안 포병참모는 침울한 어조로 말했다.

《물론 위험하지요. 하지만 위험없는 싸움이야 없지 않습니까.》

그는 화력부관일행이 간쪽을 한번 돌아보고는 그 이야기에 더 끌려들기 싫다는 표정으로 걸음을 빨리했다. 그러나 경희는 그를 놓지 않았다.

《아니, 그럴수 없어요. 러단이 막아 족치면 되잖아요. 러단전체가 달라붙으면 쉽게 진압하겠지요?》

경희는 재빨리 말하며 포병참모의 눈을 곧추 쏘아보았다.

포병참모는 낯을 찡그렸다가 경희의 타는듯 한 맑은 눈동자를 보고는 엄하게 말했다.

《물론 그렇소. 하나 우리가 저놈들을 짓밟개는 사이면 다른 적의 사단이 우리를 포위하러 할것ियो. 그때면...》

포병참모는 여기서 말을 끊었다. 《쩍-》하고 입을 다시며 더 말하기 피롭다는 표정으로 걸어갔다.

경희는 아직도 석연치 않았으나 포병참모의 론거에 무시할수 없는 진리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니 그들은 결사전에 나간것이다.

이 많은 사람들속에서 그들만이.)

경희는 못박힌듯 우두커니 서서 지나가는 군인들을 보았다.

그러나 대렬은 안개속에 잠긴것처럼 뿌옇해지고 방금전에 헤여진 화력부관의 얼굴만이 두드러지게 떠올랐다. 어딘가 경멸하는듯 한 눈길로 자기를 보며 손을 뻗 내리쥔 그 모습은 경희의 얼굴에 모

닥불을 끼얹었다.

(그가 그런것은 당연해. 글썄 결사전에 나가는 그에게 내가 무슨 말을 했던가. 따듯한 인사도 작별도 아닌, 말의 죽음에 대한 열빠진 이야기들...

그러니 그는 나를 어떻게 알겠는가. 무슨 철부지로 보겠는가.)

경희는 입술을 아프게 깨물었다.

첫 피로움의 파도가 지나가자 불시에 비상한 결심이 일떠섰다.

(그때, 그들만이 그렇게 싸운다는 법은 없지. 나도 가서 싸울수 있지 않는가.)

그러자 이제껏 자기가 화력부관에게 약속한 멘솔담을 주지 못했음을 상기했다. 구해놓고도 줄생각은 가뭇 잊고있었던것이다. 지금 와서 보면 그에게 죄송스러운 일이었으나 한편 다행스런 실책이기도 하였다.

경희는 상긋 웃음까지 머금었다.

(꼭 가져다주자. 그러면 놀랄거야. 그리고 내가 함께 싸우려 한다면 더욱 그럴거야.)

가슴이 울렁거리고 오한이 난듯 몸이 떨렸다.

그는 자기가 이제 가지 못하면 일생을 두고 후회하리라는것을 알았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섣뜻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있는것은 자기 마음속에 숨어있는 비겁한 처녀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입대할 때 군인선서에서 한 맹세를 잊은 처녀때문이라고.

그는 자동총을 꺼꾸로 메고 뺨 돌아서서 달리기 시작하였다.

군인들은 무슨 영문인가 하여 그를 유심히 보았을뿐 제지시키려는 사람은 없었다. 풋났이나 아는 군관들은 그가 참모부에 속해있으면서 위생소일까지 돌본다는것으로 사업한계가 매우 넓고 다양함을 아는터에 묻지 않은것이였고 여느 군인들은 이 아름다운 처녀가 그 무슨 특별한 명령수행을 위해서 뒤로 달려가는것으로만 여겼다.

경희는 등판을 곧추 질러 달렸다.

밭밀에서 땅이 휙휙 지나가고 귀속에서는 웅웅바람소리가 울렸다.

산딸기와 쑥대가 무성한 비탈로 정신없이 달려 내려가던 그는 무엇엔가 걸려 허공 넘어지며 한고패 굴렀다.

인츰 일어서자니 온몸이 지근지근했다. 팔목언저리마저 무엇에 긁혔는지 빨갛한 점들이 생겼다. 좁쌀알같은 피방울이 맺히는것을 보고나니 더욱 아파났다.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어 그 상처자국을 꼭꼭 눌렀다.

그러는데 그의 조금 뒤에서 황-하는 폭음이 울

렸다. 벌떡 일어선 경희는 멀리 가물가물 보이는 도로에 검은 점들이 움직여오는것을 보았다. 그 검은 점들에서 목화송이같은것이 피어올랐다.

포탄은 이곳저곳에서 요란스레 터졌다.

그러나 경희는 한참이나 그대로 서서 검은 점만을 점도록 쫓아보았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저놈들이구나.》

경희의 한껏 커진 눈에서는 적의의 예리한 빛이 섬광처럼 튀겨나왔다. 상처에 아픔을 느끼던 소녀는 사라졌다.

경희는 발사된 탄알처럼 내달았다.

이 정열에 충만된 여자, 소녀로부터 처녀로, 평범한 학생으로부터 자각된 공민으로 변화과정에 있는 이 여자는 리성이라는 팽성한 계산의 저울대를 잃어버렸다. 만약 미리 나가 잠복해있는 차단조가 그를 발견하고 멈춰세우지 않았더라면 적의 땅크에 까지 육박했을지 모른다. 모름지기 마지막탄알까지 쏘버리고는 원쑤를 절규하며 쓰러졌을것이다.

하지만 경희의 이런 심정은 아는듯모르는듯 그를 멈춰세운 전사들은 이 여자가 온전한 정신을 가졌는가 하는 시선으로 맞이하였다.

경희는 처음엔 그런 눈치도 모르고 무작정 반가움부터 앞섰으나 《빨리 엎디시오.》, 《동무 정신있소?》하는 투박스러운 웨침과 그 웨침 못지 않게 꾸짖는 무뚝뚝한 눈길들과 맞다들자 당황했다.

경희는 여태껏 이처럼 불친절하고 무뚝뚝한 눈길을 한번도 대한적이 없었다.

그 눈총들에 경희의 앓은 얼굴은 탈듯이 달아올랐다.

무엇때문에들 이렇게.

경희는 억울함을 금치 못하며 나이지긋한 장탄수의 옆에 가 엎드렸다. 엎드리고나니 수치감과 모멸감이 전신에 재물을 쏟아놓는것만 같았다.

《어떻게 왔는가요?》

옆의 나이지긋한 병사가 의아쩍은 눈길로 쳐다볼 때 경희는 여기의 모든 전사들이 자기를 군인으로가 아니라 철부지소녀처럼 보고있다는것을 느꼈다.

경희는 자동총을 천천히 벗어내리며 누구도 보지 않고 말했다.

《싸우자고 왔어요.》

《싸워요?》

아바이장탄수는 입을 다물지 못한채 경희를 뺨해서 보다가 이마에 날아드는 메뚜기를 철썩 같겨 떨구고는 재차 물었다.

《누가 보냈니까?》

《아바이는 누가 보내서 왔어요?》

경희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되물자 장탄수의 눈

은 더욱 커졌다.

《아, 기야 그렇지요. 명령이니까... 군사규율이 그렇지요. 하긴 자원하긴 했지만두.》

그러면서 방조를 청하는듯 자기 동무들쪽으로 시선을 보냈다. 경희는 그가 자기 물음의 의도를 리해하지 못했음을 알았다.

경희는 안타까움에 질려 입술만 감싸는데 포탄뒤에 앉아있던 얼굴이 검스레한 상사가 역시 그 생김처럼 똑똑하게 입을 열었다.

《여긴 동무가 올테가 아닙니다.》

《나도 군인이예요.》

경희는 뵈얇게 흐려진 눈길로 상사를 쫓아보았다. 그의 분노한 표정에 상사는 얼떠름해서 인차 대답을 못하고있다가 싱긋이 웃었다.

《누구의 지시로 여기 왔는가 하는거지요. 혹시 규율을 위반하고 오지나 않았는지.》

《예?—》

경희는 억이 막혀 말이 나가지 않았다.

이때 길가의 뽕나무에서 웬 사람이 주르륵 미끄러져내렸다. 쌍안경을 목에 건 그는 경희가 여기 와서 처음부터 찾아보던 화력부판이었다.

경희는 그가 자기의 행동과 말을 처음부터 낱낱이 보고 들었으리라는것을 알았다. 그마저 돌아가라고 한다면... 경희는 입술을 옥물고 기다렸다.

그러나 화력부판은 눈살을 찌프린채 피곳 보았을 뿐 그에게서 돌아서고말았다.

《1포 류탄! 보병놈들까지 붙었소. 2포 철갑탄!... 그리고 부소대장동문 중기를 가지고 저앞을 차지하오. 보병놈들을 견제하시오.》

화력부판이 소리쳤다. 그러자 부소대장이라고 하는 얼굴이 검스레한 상사가 어찌된 일인지 매개 대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경희에게 다가왔다.

그는 한없이 부드럽고 선량한 미소를 띄우며 경희에게 손을 내밀었다.

《내 말에 노엽타지 마십시오. 빨리 가줄걸 바래서 그랬습니다. 이제 몇분후면 후회할 틈도 없습니다.》

《!...》

경희는 가슴속에 뜨거운것이 몽클했다.

그는 상사의 손을 꼭 잡았다.

상사는 화력부판앞에 다가갔다.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서로 마주보다가 그 어떤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외락 꺾어안았다.

상사는 중기를 끌고 천천히 기어나갔다. 화력부판은 옷깃단추를 열어제끼고 상사가 포탄구멍에 들어가는것까지 지켜보다가 경희에게 고개를 돌렸다.

눈길은 내리깔았으나 여전히 찌프린 성난듯 한

얼굴이었다.

《어떻게 왔습니까?》

《부상병이 생길수 있잖아요.》

경희는 앵돌아져 대답했다.

《우리에게 부상병은 없을것입니다.》

경희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았다. 그러자 아무 말도 나가지 않았다.

갑자기 머리우에서 슈- 슈- 하는 소리가 울리고 땅이 진동했다. 거의 동시에 폭음이 귀청을 울렸다.

려단과 이 차단조를 연결시키는 도로중심에 짙은 포연이 서렸다.

화력부관은 포탄이 떨어지는것을 불안스럽게 살피다가 걱정어린 눈길로 경희를 보았다.

《이젠 떠나십시오. 저 오른쪽비탈로 방향을 잡으시오. 거긴 포탄이 떨어지지 않을것입니다.》

《동진 너무해요.》

경희는 눈에 눈물이 글썽해서 짜붙였다.

그러자 화력부관은 방금까지의 엄하고 똑똑스런 표정은 싹 잃고 소년처럼 당황한 빛이었다. 그는 경희의 눈길을 애써 피하려 하며 떠엄떠엄 말했다.

《사실... 여기 와준건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문... 떠나야 됩니다. 우린... 동무를 좋게 기억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경희는 하마트면 울음을 터뜨릴번 하였다. 그러나 그는 터지는 흐느낌을 씹어삼키고 태연한 빛을 띠우며 말했다.

《참, 발목은 어때요? 빨리 멘솔담을 바릅시다.》

《멘솔담?!》

화력부관의 눈이 커졌다. 그 눈엔 환희라고 할 그런 행복스런 빛이 번개처럼 스쳤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나 이젠 필요없습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했겠군요.》

《아니, 사실 멘솔담을 쓴답니다. 난 축구를 좋아했는데 다리를 풀치면 우리 엄마는 그 약을 발라주곤 했습니다. 아니, 왜 웃습니까?》

《엄마라고 합니까.》

경희는 순간 환경의 엄혹성도 잊은듯 눈물맺힌 눈에 발랄한 웃음을 함뱉 실었다. 화력부관은 시무룩이 웃으며 경희의 모습을 뚫어지게 보다가 씩씩한 기색으로 변했다.

《다른 때라면 동문... 우릴 거들떠보지도 않았겠지요.》

《왜요?》

화력부관은 인차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미간을

쥔그리고 무언가 듣고있었다.

경희도 들었다. 아니, 몸으로 느꼈다.

망질하는듯 하는 동음이 땅을 타고 흘러왔다.

《이제 3~4분후면 보일것ियो.》

화력부관은 조용히 뇌이고 전방도로를 주시했다.

가까이에서 포탄이 터졌다.

그러나 화력부관은 몸자세를 흐트리지 않았다.

경희 역시 것처럼 태연한 빛으로 서있었다.

화력부관이 갑자기 핵 돌아서며 소리쳤다.

《없드렛!》

그의 두눈은 동전처럼 커졌다.

경희가 어쩔념 앓고 멍히 서있자 화력부관은 날듯이 달려들었다. 그 무게에 눌려 쓰러진 순간 경희는 눈앞이 번쩍하며 벼락치는듯 한 폭음이 터지는것을 들었다.

눈을 감았다 떠보니 사위는 짙은 연기속에 잠겼다.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고 다음은 부끄러움이였다.

《무엇때문에 이래요?》

경희는 몸으로 자기를 가려준 화력부관에게 성을 내려 했으나 얼굴만 화끈 달아올랐다. 그 심정을 알아차렸던지 화력부관은 그에게서 떨어져 저쪽 물러나며 통명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그대로 엎디어있으시오.》

그 말을 따라 고개를 돌리던 경희는 포탄 한귀통이가 장검으로 쳐놓은듯 찢어져 번쩍이는것과 5~6미터밖에 안되는 거리에 포탄흠이 켜하니 입을 벌리고있는것을 보았다.

(하마트면...)

끔찍스런 참변을 그려본 경희는 소스라치듯 몸을 떨다가 까딱않고 엎터있는 화력부관에게 눈길이 몇자 얼굴이 확 붉어졌다.

경희는 그에게로 기여갔다.

《다친데는 없어요?》

화력부관은 대답을 앓고 무언가 종이장에 급히 쓰고있었다.

《참, 왜 여기다 자리를 잡았어요. 저아래 움푹진 곳엔 포탄이 안 떨어지는군요.》

경희는 자기의 말이 사개에 맞건 안 맞건 관계없었다. 무슨 말이든 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수 없었다. 화력부관은 쓰던것을 멈추지 않고 무뚝뚝히 대답했다.

《여긴 맞기도 좋지만 맞히기도 좋은 곳ियो.》

《옳아요. 나도 동무가 다른 곳은 택하지 않으리라는걸 알아요.》

화력부관의 흙투성이된 잔등에 하얀 들꽃 한송이

가 뿌리채 올라붙어있었다.

《아이!》

《뭐요?》

화력부판이 엄하게 돌아볼 때 경희는 천진한 소녀의 마음이 되어 웃었다.

《잔등에 꽃이… 내가 꺾어 가질래요.》

두사람의 눈길이 마주쳤다. 그러자 둘다 똑같이 외면하였다.

경희는 그 꽃을 자기로서도 무엇때문인지 모르며 가슴팍에 드리운 위장그물에 꽃았다. 화력부판은 말없이 보기만 했다. 이때 뽀뿌라나무에서 감시병의 다급한 웨침이 울렸다.

《주의! 거리 천오백, 적땅크 8, 자동포 12…》

화력부판은 시계를 보고 고개를 쳐들었다. 순간 타는듯 한 눈길이 경희에게 닿았다. 그러나 그는 인차 눈을 내리깔고 연필에 침을 묻혀 쓰던것을 계속 써나갔다.

최후를 앞둔 맹세문인가. 그래, 결사전을 할 때가 왔다는것이지. 이들은 모두 죽을것이다.

경희는 심장이 비틀리우는듯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승엄하고 비장한 감격에 휩싸이며 생각했다.

(나도 저 맹세문에 수표할테야. 후날 어느 박물관에서 저걸 보면 사람들은 나같은 처녀도 결사대원으로 영웅적으로 전사했다고 눈물 머금고 이야기하리라.)

화력부판이 일어나 뚫어앉았다.

《특무상사동무!》

그는 낮으나 엄하고 딱딱스런 말투로 불렀다. 경희를 쳐다보는 그의 눈도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차갑고 엄했다.

화력부판은 종이장을 접으며 말했다.

《이 쪽지를 러단장동지에게 전해주시요.》

이 말에 경희는 아연하였다. 자기의 심정따위는 아랑곳 않는 그의 처사가 야속하기 그지없었다.

《전 안 가요.》

《나는 여기 지휘관으로 명령합니다.》

화력부판의 얼굴은 화석같이 보였다.

경희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안개낀듯 한 눈에는 뜨거운것이 피어올랐다. 화력부판은 못 볼것을 본듯 외면하며 입술만 잘근잘근 깨물다가 말했다.

《동문 우리를 위해서 왔지요?》

경희는 무언가 애원하는듯도 하고 두려워하는듯 한 소심스런 눈동자를 보았다. 그 눈을 보며 경희는 어조의 날카로움과 전혀 다른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경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렇다면 가주십시오.》

화력부판은 한결 풀린 기색으로 말하고나서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계속했다.

《이건 우리를 위한 제일 고마운 일로 될것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경희에게 《나》라는 말처럼 들렸다.

경희는 고개를 떨구었다.

다른 길은 없었다.

《이 쪽지가 닿으면 우리의 부담은 한결 덜어질것입니다. 다른 동무를 보낼수 있으나 여긴 한명의 포수가 귀중합니다.

우린 놈들을 반드시 막아버립니다. 자, 그럼—》

화력부판은 손을 내밀었다.

경희는 그 손을 보지 않았다. 다만 이 순간 무한히 선량하고 표정이 풍부한 아름다운 눈만을 쳐다보았다.

경희는 가슴이 미여지는듯 했다.

이제 헤어지면 다시 못 만나리라는 생각이 뇌리를 때렸다.

그것이 너무나 명백한것 같음으로 하여 끔찍스러웠고 그만큼 그것을 부정하고싶었다.

그리고 화력부판은 부디 그것을 잊었으면 했다.

경희는 용기를 내어 무척 천연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그럼 가겠습니다.

저… 인차 오겠지요?》

《갑니다.》

화력부판은 빙긋이 웃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어깨까지 올렸다내리고 돌아섰다.

경희는 자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속삭였다.

《잘 싸워요, 사랑하는 동무.》

화력부판의 어깨가 부르르 떨렸다.

그는 핵 돌아섰다.

경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꼭 다시 만나요.》

《…》

《오세요. 먼 후에도,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우리 집은 찾기 쉬워요. 해방산아래 국수집옆 대문에 딸랑이가 달린 집이에요.》

경희는 간신히 말을 이었다.

화력부판은 거센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흠뻑했다.

그 눈빛은 이글이글 타고 얼굴은 환하게 밝았다. 무어라 정열에 넘친 말을 할듯 하던 그는 조용히 말했다.

《찾아가겠소. 꼭 찾아가겠소. 잘 가요.》



그는 돌아섰다. 쌍안경을 눈에다 대고 그는 힘찬 구령을 내렸다.

그를 멍하니 보던 경희는 불쑥 생각나는데 따라 멘솔담을 꺼내가지고 화력부판의 웃주머니에 밀어 넣어주었다.

《재발하면 바르세요.》

《바르겠소.》

화끈 단 쇠조각같은 손이 약속하듯 경희의 손을 꼭 잡았다놓았다.

경희는 전사들에게 인사를 하고 머리를 수그린채 종종걸음으로 달렸다.

그가 등판에 올랐을 때 차단조가 있는 곳은 치열한 격전장으로 변했다. 검은 땅이 일떠서 하늘과 맞닿고 희푸른 연기가 밀려다녔다. 둔하고 쉼쉼한 각종 구경의 포소리가 지동치듯 했다.

하나 경희가 있는 등판은 고요했다.

그의 발등으로 딱정벌레가 발뼘발뼘 기여올랐다.

경희는 화력부판네와 자기는 서로 다른 강기슭에서 있음을 그리고 이제부터 그들에게는 각이한 시간이 찾아들었음을 느끼며 몸을 떨었다.

그가 대렬을 쫓아와 리더장에게 사연을 보고하고 쪽지를 보였을 때 리더장은 눈을 내리깔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사람과 잘 아는 사이냐?》

《아니예요.》

《어떤 사람인가 봐라.》

리더장은 경희에게 쪽지를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적의 기동무력수자를 밝혔고 맨 마지막에 ※부호를 하고 이렇게 썼다.

《...이 동무를 처벌하지 말아주시시오. 부락한약을 가지고왔습니다.》

경희는 끝내 참지 못하고 가느다란 소리로 흐느꼈다.

그를 거만하다고 하던 참모부의 몇몇 군관들은 비통하게 울고있는 처녀의 의아스런 울음을 차마 맞바로 볼수 없어 조용히들 물러갔다.

경희는 리더장에게 그들을 구원해야 하지 않는가고 옆에 떠 말하였다.

리더장은 그 말을 묵묵히 듣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듯 타일렀다.

《그들은 죽으러 간것이 아니야.

너랑나랑 바라는데로 꼭 돌아올거다. ...》

그로부터 얼마후 군단작전지구에 도착한 리더단은 사단으로 승격하였고 경희는 그길로 군단참모부로 조동되었다가 대학생소환에 관한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에 따라 평양으로 떠났다.

×

조국해방전쟁은 승리로 끝났다.

전선에서 사람들이 돌아오고 도시는 불에 그슬린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을 시작했다.

대학을 졸업한 경희는 생물학연구소에 배치되었다. 영웅적위훈, 영웅적희생에 대한 처녀의 랑만은 이른아침 파벽돌 깔린 건설장을 지나 회벽 산뜻한 연구소로 들어가는 좁은 길우에 내려앉았다. 맡겨진 사업에 대한 성실성이 포화속에서의 위훈과 상사되는 때임을 잘 아는 경희였다.

경희는 이때 스물네살이었다.

그의 동무들은 거의가 시집을 갔다.

경희에게도 남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하얀 바탕에 까만 점이 박힌 달린옷을 입은 날씬한 몸매의 경희가 걷는 길에는 그 시절에 외출복이라 일컫는 검정바지에 흰 셔츠를 입은 멋쟁이총각들이 자주 얼씬거렸다.

그러나 경희는 그 총각들을 보지 않았다.

《난 싫어요.》

소개자가 찾아온다는 어머니의 말을 이렇게 잘라버리는 경희였다.

그러나 경희는 동무들의 결혼식에는 꼭꼭 갇으며 갔다올 때마다 심란한 마음을 금치 못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 동무들이 부럽기도 하였으나 한편 무언가 허무한감을 느꼈다.

(저들은 서로 무엇에 끌렸을가. 무엇으로 하여 사랑할가.)

그런 어느날 레스토랑에서 전정참가자인 두 신랑신부의 2중창 《전호숙의 나의 노래》를 듣던 그는 연기몽몽한 불의 별판을 그려보며 화력부판의 얼굴을 상기하였다.

이미 경희는 그때의 차단조성원 거의가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는것을 알고있었으나 그만은 이 땅 어디엔가 살아있을것이라고 믿으려 했다. 그러면서도 그에 대해서 남들에게 묻는다든가 지어 회상하는것조차 두려워했었다.

그런데 이때만은 그 화염이 노을처럼 서린 전장에 대한 추억을 깊이 오래도록 끌고싶었고 그와 나란히 꿈안개의 오솔길을 걷는 달콤한 환각에 빠져들기도 했다.

(이 감정이 진짜사랑일까?... 모든것을 바치고 위하는 사랑이...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하여 그를 사랑할가. 조국앞에 충실한 그 정신에!... 하긴 그것이면 다지, 그것이면!...

그러나 그는 영영 못 올수도 있잖는가.)

이 마지막생각은 예리한 비수처럼 심장을 찔렀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옆의 잣 지은 2층벽돌집에서는 아이들의 글썽는 소리가 랑랑히 들려왔다. 그 창문들에는 붉은 노을이 아롱져 뿔날았다. 집에서는 며칠전에 외국에서 돌아온 아버지(아버지는 외교관이였다.)가 금간 벽돌에 땀질을 하고 담쟁이와 포도넝쿨을 뽐내려왔다. 잎이 푸른 포도나무를 보며 아버지는 기뻐 말하였다.

《이 뿌리에도 파편이 박혔더구나. 그런데 봐라, 생은 이렇게 검질긴것이다.》

경희는 이날 어두울 때까지 포도나무를 가꾸는 아버지를 도왔다. 흙을 복돋고 물을 주고 매개 손을 해여보기도 했다.

잡자리에 들었을 때도 눈앞에 잎푸른 포도나무의 말라버린듯 한 터슬터슬한 줄기에 뽕뽕뽕뽕 돋았던 새순이 삼삼히 떠올랐다.

《뿌리가 상했는데도 살았어.》

다음날 경희는 아버지가 사온 새옷을 입고 그 어느때보다 생기에 넘쳐 직장에 나갔다.

연구소의 나이많은 녀학자는 경희의 변모에 눈이 휘둥그래졌다.

《봄이 찾아온가보지요.》 하면서 그는 귀속말로 사랑의 철학을 풀었다.

《사랑이란 마른 하늘의 번개불갈아서 돌연히 찾아오는 때도 있답니다. 그 불을 조심해야 돼요. 자칫하면 모든것을 다 태워버리거든요.》

경희는 이 수다스럽지만 맘씨고운 녀학자의 통담에 처음은 웃었지만 결국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고 말았다. 자기의 고민도 이야기하였다.

녀학자는 진심을 기울여 듣고 말했다.

《런정이란 소녀에게 처녀의 눈을 띄워준다고 해요. 한다면 동무의 그때 감정을 한 총각에 대한 처녀의 순정으로 볼가요.》

그렇순 없지요. 그건 화선에 선 전사의 열렬한 감정, 범일반적인 공민감정으로 우리가 영웅들앞에서 갖게 되는 공통된 감정일 따름이지요. 그걸 사랑이라 할순 없지 않아요. 참된 녀성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남자만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러한 동무의 감정을 사랑이라 부르면 이 세상 처녀들은 전사했거나 영웅적으로 싸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하는것으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동무는 순간의 말 한마디로 약속한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약속이 아니예요. 잊으라요. 사람에겐 미련이 있어요. 특히 과거에 대한 미련, 과거를 보존하려는 욕망은 강한것인데 그건 저급한 정신적속성이지요. ... 생활의 흐름에 따라야 해요.》

경희는 그 말을 끝까지 들었으나 이미 자기의 비

밀을 터놓은것을 뉘우쳤다. 머리가 땡하고 불쾌했으며 녀학자마저 막 혐오스러웠다.

그는 다시는 자기 마음속의 비밀을 그 누구에게도 헤쳐놓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이것을 모르는 주변에서는 아름다운 처녀를 가만 뒤돌수 없었다.

경희네 집 때문에 달린 팔랭이는 이즈음 와서 더욱 자주 울렸다.

그 소리는 기대를 안고 찾아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소개자들에게 보내는 이 집의 미안스런 인사처럼 울렸고 경희의 어머니에게는 주름살질게 하는 원인으로 되었다.

그런 어느날 경희가 직장에서 돌아오니 어머니는 옷방의 옷장을 열어제껴 옷이란 옷은 모조리 꺼내 놓으며 제일 화려한걸로 골라입으라고 했다.

아버지가 같은 직장에 있는 총각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었다.

경희는 이때껏 혼사말에 간참하지 않던 아버지의 이 뜻밖의 발기에 너무나 아연하여 아무 말도 못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뜻이니 어기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하고는 부엌으로 내려가 칼장단을 울리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나가자 경희는 옷들을 하나하나 개여 옷장에 넣기 시작했다. 나프탈린내가 나는 옷가지들중에는 고종때 입던 교복도 있었다. 그 교복을 대보니 허리단이 깡충 올라간것이 우습기 그지없었다.

《수태 컸구나.》

철없던 그 시절이 떠오르며 왜서인지 불쑥 눈물이 솟구치려 했다. 그는 황급히 교복을 개여 옷장에 밀어넣었다.

그런데 옷가지속에 하얀 가제천으로 싼것이 드러났다. 대학에 올 때 입은 군복이다.

군복을 만지는 경희의 손가락은 가늘게 떨렸다. 고결한 리상, 위훈에 대한 동경에 가슴 불태우며 포연서린 전장의 길을 견딘 랑만에 찬 시각들이 영화의 화면처럼 떠올랐다.

애틀한 정과 선망어린 눈길로 자기를 보던 역센 사내의 모습이 얼썩얼썩 지나갔다.

이처럼 묵은 기억이 되살아나 가슴찌릿한 정회를 불러일으키자 경희는 군복에 얼굴을 묻고 소리없이 따뜻한 눈물을 쏟았다.

아픔은 시간의 흐름따라 사라져버리고 간 사람들의 모습은 세월의 입김에 다 씻어지련만 처녀의 가슴에 안긴 한벌의 군복은 피와 땀과 먼지와 불과 포연과 무수한 위훈의 모습들을 별찌처럼 휘뿌리며 무언가 뜻깊은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이었다.

좀 있어 경희는 눈을 닦고 평소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거울에 비춰본 후 연화장을 하여 울음의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그리고 웃어보았다.

그러자 방금전의 울던 자기는 어디로 가고 매혹적인 여성이 홀리듯 그를 마주보는 것이었다.

(참, 이렇게 얼굴표정과 색깔을 바꾸듯 마음과 감정을 필요에 따라 조종하고 필요에 따라 지워버린다면 얼마나 편할까.)

경희는 자기의 가슴속에 뿌리박힌 사람에 대한 감정은 그 무엇으로도 변하게 할수 없음을 더욱 사무치게 깨달았다.

이 시각 연구소의 녀학자가 앞에 있다면 그는 무언가 신랄하고 의미심장한 말로 그 녀자의 사랑철학에 맞섰을 것이었다.

이때 대문가에서 딸랑이소리가 울렸다.

경희는 약간 흠칫하였으나 인차 태연하고 밝은 기색으로 아래방에 내려갔다.

어머니는 그가 옷을 갈아입지 않은데 대해서 책망할 틈이 없었다.

아버지와 함께 까만 모직의 단긴옷을 단정하게 입은 청년이 들어섰던 것이다.

그 청년에게 기계적으로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던 경희는 하마트면 《아니!》하고 소리칠 뻔 하였다.

순간이지만 그의 눈은 앞에 청년을 화력부판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의지와 담력이, 선량함과 억센것이 담긴 환한 얼굴과 크고 검은 두눈은 귀중한 그 사람을 몹시도 방불케 하였다.

그러나 한참이나 지나자 경희의 눈앞에서 청년은 너무나 낯선 먼거리의 사람으로 되고말았다.

경희는 이 청년이 수도복구건설을 지원하는 청년학생집회에서 만장의 인기속에 토론하던 대학생 돌격대 대장이었음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반가움은 느끼지 못했다.

경희를 긴장히 주시하던 청년은 대범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를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군요.》

《네, 그랬답니다.》

경희가 이렇게 뻔뻔히 대답하자 청년은 가슴속까지 투시하는 그런 명민한 눈길로 꿰뚫듯 보다가 눈을 내리깔았다.

《그랬던군요.》

청년의 얼굴엔 그림자가 스쳐갔다.

그러나 자리에 앉았을 때 그는 명쾌한 태도로 요즈음의 복구건설정형이며 자주 흐리는 날씨가 농사에 주는 영향을 이야기했다.

행동거지는 소탈하면서도 점잖았다. 말도 은근했다.

경희는 그가 선보러 온 남자가 아니고 여느 동무였다면 나무랄데없이 훌륭한 벗으로 되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 어머니가 옷방에 올라가 이야기들을 나누라고 하자 청년은 선뜻 응하는 것이었다.

《그렇지요. 제목이 〈선보기〉니 내용은 채워야겠군요.》

웃으며 통말로 넘긴 청년은 혼연한 태도로 방문턱을 넘었다.

경희는 그에 대한 좋은 인상을 잃어버리고마는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청년은 개다가 만 군복과 깍듯이 선 경희를 보다가 이제까지의 험한하고 명쾌스런 빛을 싹 거둔 채 무겁게 물었다.

《오지 말아야 할데를 왔지요?》

경희는 인차 대답하지 못했다. 이 남자의 얼굴과 눈빛에서 괴로움을 보았기때문이였다.

《난 동무를 대학생할때부터 알고있었습니다.》

두번째 말에 경희는 그를 마주보았다.

《난 동무를 좋게 기억하겠어요.》

《그것이 전불니까.》

청년은 묻고 한숨을 지었다. 그는 군복을 보다가 쓸쓸히 물었다.

《저 시절이 제일 좋았겠지요?》

《훌륭했어요.》

《알겠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경희는 청년을 바래 대문가에까지 따라나갔다.

거기서 청년은 분함어린 어조로 다급히 물었다.

《어데 있습니까? 누굽니까?》

경희는 비에 젖어 선뜩한 딸랑이를 한손으로 잡고 살그머니 대문을 밀어젖히며 말했다.

《...먼곳에 있어요. 전선에-》

대문은 소리없이 열리고 소리없이 닫졌다. 그러나 경희는 남자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뜨지 않았다.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발자국소리를 헤이며 가슴쓰린 동정과 런던을 느꼈다. 《거기 서세요.》하고 부르고싶었다. 그러나 세운 다음 할말이 없다는 것을 잘 아는 그는 그저 속으로 미안해하며 랑해를 바랐을뿐이였다.

방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외면하였고 아버지는 머리를 저었다.

《넌 사람을 잘못 보는구나. 네 일이 섭섭하다.》

경희는 그 언제나 리해성이 많고 공명정대한 아

버지의 이 말에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았다. 이 순간 그는 자기 마음속 비밀을 절대로 헤쳐놓지 않겠다던 맹세를 잊고말았다.

《아버지, 저한텐 약속한 사람이 있어요.》

《뭐라구? 어데 있니?!》

먼저 묻고 반색하는것은 어머니였다. 경희는 화력부판에 대해서, 그와의 약속에 대해서 말했다. 그의 말에서 화력부판은 영웅이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열렬하고 참된것이었다.

《돌아 못 온다면—》

그의 말이 끝나 오래동안 움작 앓고있던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다.

경희는 인츰 대답을 못했다. 입만 열면 흐느낌이 터져나올것 같았다. 저고리고름으로 조용히 눈굽을 짙어내던 어머니가 목잡긴 소리로 뇌였다.

《살아온다면 오죽 좋으랴만 이제껏 안 오는 사람을 어찌 기다린단 말이나.》

《어머니!》

그는 오열을 터뜨리듯 웨쳤다. 혼자 속으로 몇 십백번을 외었던 맹세의 말들이 똑 터진 물처럼 쏟아져나왔다.

《기다릴테예요. 살아도 죽어도 나는 그를 잊을수 없어요.

조국을 위해, 오늘의 우리를 위해 자기를 바친 그 정신에 나는 반했어요. 그래서 사랑했어요. 그때 약속했던것이에요. 만약 내가 배반한다면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배반일것 같아요?

난 녀성이기 전에 공민이에요.》

《원, 무슨 말인지—》

어머니가 혀를 찰 때 아버지는 경희의 손을 꼭 잡고 흥분한 어조로 말했다.

《장하다, 내 딸아!》

이날부터 경희네 집 대문가의 딸랭이는 소후식을 하게 되었다. 소개자들의 발길이 뜸해진 것이다.

집에서는 누구도 혼사말을 비치지 않았다.

경희는 그 어느때보다 집에서 명랑한 응석받이역을 놀았고 직장에 나가서는 발랄한 웃음을 뿌리며 일에 직심스러웠다.

처녀의 수심을 본 사람은 없었다.

하나 고요한 저녁 외롭게 있을 때면 가슴속에 싸늘히 스며드는 고독과 힘겹게 싸우며 기다림의 괴로움을 맛보는 경희였다.

그날 저녁도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추석거리의 비소리로 하여서인지 그 어느때보다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밖의 풍경을 하염없이 보고있었다.

길건너편의 새로 짓기 시작한 아파트의 2층벽체에서 용접불꽃이 섬광을 일으켰다.

불빛은 밤어둠을 수시로 동강내며 그 푸르고 창백한 빛으로 부연 비발과 번들거리는 가로수며 달려가는 행인들을 비추었다.

그런데 가로수밑에서 한사람만은 유독 움직일 줄 몰랐다.

경희는 비를 맞으며 우두커니 서있는 그 사람을 측은하여 한참이나 보았다.

그 역시 경희쪽을 보았다.

경희는 불쑥 방이라 그의 눈에 뜨이는것이 싫어 전등을 켰다.

그때도 그 남자는 여전히 서있었다.

평곳!

푸른 섬광이 뻗치자 홀연 그 사람의 자태가 명료히 드러났다. 군복을 입은 후리후리한 키의 그 사람의 가슴에는 훈장이 그득했다.

(제대병사인가. 요즈음 몇만명이 제대된다고 했지. 저 사람은 집이 없는게구나. 아니면 여기에 어디에 자기의 옛 추억이 있어 서있는것일까?)

또 한번 평곳!

창백한 빛에 조명된 얼굴이 확 드러났다. 그 얼굴을 바라보던 경희는 《아!—》하고 소리쳤다. 잊혀졌던 화력부판의 얼굴이 그 모습에 생생히 재현되어있지 않는가.

(내가 환각에 빠졌나? 요전번에도 그랬지.)

머리를 흔들어보았다. 그리고 다시 보았다.

그때는 캄캄한 어둠이다.

좀 있어 다시 푸른빛이 번쩍했으나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착각이다.)

하지만 그 얼굴은 지워지지 않는다.

잊을수 없는 모습이다.

하나 생각할수록 가슴은 저미는듯 아프고 괴롭다.

경희는 그 아픔을 덜려는듯 고개를 흔들었다.

앞의 길로 석톤짜리 짐차가 련결차를 끌고 천천히 굴러오고있었다.

전조등빛이 이리저리 헤엄치다가 길을 건느는 한 사람의 형체를 붙잡았다.

그 사람은 강한 불빛을 막느라 왼손을 쳐들고 덤비지 않으며 도로를 넘어섰다.

경희는 눈을 비비었다.

심장이 가빠오르며 눈앞이 핑글핑글 도는것을 느꼈다. 그는 신음하듯 뇌였다.

《그다! 그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경희는 낮이 흰 도자기처럼 질려 사이문을 열었다. 만사가 뒤범벅이 되었다.

## 영웅들의 말

—공화국영웅 김금수, 한병남동무를 노래함—

## 오 정 로

평화로운 나날에도  
1950년대  
전화의 나날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평범한 날에 사람들이 유원지를 찾을 때에도  
시한탄을 안고사는 사람들이 있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가 이 땅에 뿌린  
폭발물이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어  
세월은 흘러 세기를 넘었건만  
폭발물처리대원 그들은  
오늘도 1950년대  
포화속을 헤치며 사는 사람들

땅속에 숨어있는 원썩들과의 싸움은  
매 순간 사선의 고비를 넘어야 했고  
생명을 내대야 하는 하루하루는  
조국과 인민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보이지 않는 싸움 같았을 듯

남들이 송도원해수욕장으로  
줄다리 타고 장덕섬으로 꽃배놀이 갈 때에도  
그들이 가는 길은  
죽음을 각오한 길이였거니  
그들이 가슴가득 안고간것은  
해수욕장의 해당화 장덕섬의 웃음소리

그날이었다  
아침일찌기 집을 나서는  
남편의 어깨에 가방을 메워주던 아내

래일은 휴식일 아이들과 함께  
송도원해수욕장에 가자고 약속한 날이었다.

그날이었다  
안혜와 아이들과  
웃음으로 약속하고 그들이 간 곳은  
산골짜기에 박혀있는 시한폭탄해제장  
그날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다  
술한 생명을 구원하고...  
불타는 단풍에 웃음을 꽃피우고...

그날은 폐사로운 날이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그날에 세운 그들의 위훈을  
영생의 삶으로 이어주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그들은 그날의 약속을 지켰다  
파도를 덮는 해수욕장의 웃음소리  
장덕섬의 즐거운 노래소리  
영웅의 집을 찾아오는 끝없는 발걸음  
만경대혁명학원으로 떠나는 자식들의 뜨거운  
눈물  
안해들의 어깨에 빛나는 견장의 별...

값높은 삶엔 죽음이 없음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기억하시고  
인민이 못 잊는 삶은 영생임을  
평범한 날에 영웅들은 말하여주었다

그는 어머니의 놀란 웨침도, 방문옆에 세워둔 탁자가 넘어져 그가 애용하던 꽃병이 깨여지는것도 모르고 문을 세차게 떠밀었다.

눈에 뜨이는 신발을 신다가 그것이 아버지의 신발인것을 알자 훌 벗어던지고 달려나갔다.

무엇인가 걸려 휘끗 넘어질듯 하던 그는 다시 몸을 끝추 펴며 그대로 달렸다.

《조성진동무!》

환희에 차 부르는 처녀의 랑랑한 웨침이 울

렸다.

대문이 요란스럽게 열리었고 딸랭이가 딸랑거렸다. 그 어느때보다 급히, 소란스럽게!

바람같이 달려나간 자기를 향해 뛰어오는 화력부  
판에게 쓰러질듯 다가섰다.

대문에 달린 팔랭이는 그때까지 팔랑팔랑하며 긴 여음을 남겼다.

주체 71(1982)년



## —시인의 령혼을 잠재우고저—

리 명

### 1

희미한 방등불이 비치는 방안에는 희옴스름한 포단에 얼굴을 반나마 가리운 환자가 까딱않고 누워 있었다. 피기 한점 없는 창백한 살색, 알릴듯말듯한 맥박, 불덩이같은 체온… 혼수상태였다.

《뭘 숨기겠수.… 허벅지로 총알이 뚫어… 피를 되게나 흘렸대오.…》

시중하던 마부로인이 미음종지를 들고 더듬더듬 중언부언하였다.

《총알이라니요?》

자혜병원 원장인 옥라현은 첫 순간 늙은이의 말을 무심히 되뇌이며 환자의 바른쪽허벅다리를 동인 피가 굳어붙은 형질을 풀었다.

《어제 밤… 이 어른이 왜놈비밀공사장에서… 술한 목숨을 건져냈수다. 다들 저승귀신이 될번 했었는데… 그러다 왜놈들의 총알에 그만…》

늙은이는 억이 막혀 더 잊지 못했다. 뒤미처 옥라현의 가슴복판에서 얼음장같은것이 떨어져내렸다. 이밤 웬일인지 불안하기만 하던 예감과 늙은이가 굳이 왕진을 청한 까닭이 헤아려졌다. 오늘 아침 그는 우상기형사로부터 《특대범죄》소식을 전해들었었다.…

라현은 아침일찍 병원에 찾아온 우상기를 의아쩍게 맞이했다. 그는 자혜병원의 단골손님이지만 이렇게 이른시간에 찾아온적은 없었다. 게다가 흑곤색의 모직양복에 중절모를 쓰고 땀시나는 양피구두까지 받쳐신고다니던 신사풍의 그의 끼꺾한 차림새가 여느때없이 후줄근하고 얼굴도 지치고 맥빠진 기색이었다.

《라현씨, 내 눈을 좀 봐주오. 안저출혈이 아

닌지?》

상기의 부리부리한 두눈은 몹시 충혈되어있었다. 라현은 그를 데리고 치료실에 들어가 한참이나 눈을 진찰하였다.

《모세혈관이 약간 파열되었어요. 지나치게 파로했나보지요. 눈약을 넣고 며칠간 꼭 휴식하면 회복될거예요.》

《며칠간 꼭 쉬다? 허헛 참, 꿈같은 소리.》

《왜요, 그렇게 바쁜가요?》

라현은 사립학교동창생인 그한테 언제나 허물이 없었다. 상기는 말문을 채우고 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심상찮은 심뇌가 누르는듯 술진 눈섭밑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웠다. 한참 동안울 두었던 그는 간호원이 밖에 나가자 속삭이듯 뇌이였다.

《간밤에 특대사건이 터졌소. 황군 한개 수비대가 비적들의 기습에 몽땅 녹아났소. 정보에 의하면 그 기습전을 지휘한 주범이 중상을 입었다는데 우리 구역을 빠지지 못한것 같소. 라현씨, 혹시 알겠소. 그가 당신의 방조를 요구하는지?》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라현은 와플 놀라 중얼했다. 상기는 침착하면서도 예리한 눈길로 라현을 주시하며 말을 이었다.

《아니, 이건 내 말이 아니요. 간밤에 우린 이 성시안의 크고작은 사립병원들은 물론 약방과 의사들, 돌팔이의원나부랭이들까지 다 조사장악했소. 자혜병원은 내 관할하에 두기로 했소. 누가 누구를 하는 이 비상시국에 그런 대역죄를 동조했다간…》

상기는 뒤말을 잘라버렸다. 라현은 이 아침 상기의 출현목적이 단순히 눈치료가 아님을 직감하였다. 그의 말은 사태의 엄중성에 따르는 모종의 위

협이면서도 자기를 보호하려는 진심이기도 하였다. 라현은 이즈음 그가 자기에 대한 색다른 감정을 품고있음을 느끼고있었다....

라현은 출혈로 의식없는 환자앞에서 어떻게 처신했으면 좋을지 마음이 조마조마해났다. 금시라도 경찰들이 덮쳐들것 같은 환각에 몸서리치기도 했다.

《이보시우, 원장선생. 이 사람을 꼭 살려주시우.》

늙은이가 애원하였다. 라현은 흠칫 몸을 떨었다. 한뼉 마차를 끌고 굶은일, 마른일 가림없는 아범은 어쩌서 이다지도 애절히 당부할가. 생때같은 목숨들을 구원해줘서일가. 하긴 재물에 미쳐 사람생명 좁은 파리잡듯 하는 산적들도 때로는 의로운 행위로 세상을 놀래우는 일이 없지 않다. 어쨌든 구급환자의 1차적인 소생치료는 해야 한다. 탄알이 관통한 부위로 보아 뼈는 다치지 않은것 같다....

다시 직업의식에 돌아온 라현은 별정계 감염되기 시작한 총상부위를 재빨리 소독하고 거기에 심지를 박아넣었다. 그리고... 더는 지체할수 없었다.

서둘러 자리를 뜬 그는 그밤을 뜬눈으로 보내다 새벽에는 악몽속에서 잠자리를 땀으로 화락히 적시었다.

(아 참, 내가 왜 그걸 잊었을까? 별정계 독을 쓰던 총상자리가 더 감염되지 않게 찬물찜질을 하라고 일렀을걸. 고무주머니에 찬물을 넣어 찜질하는 거야 집에서든 할수 있으련만...)

라현은 위중한 환자를 놓고 겁부터 앞세운 자신의 처사가 심히 맛갓잖았다. 그와 같은 생각은 하루종일 분주히 치료하는 과정에도 지워지지 않았다.

하루해가 저물었다. 찾아오는 환자들도 뜸해졌다. 간호원까지 집에 보낸 라현은 빈방에 홀로 앉아 한숨 돌리었다. 피빛으로 타는 저녁노을이 창문으로 엿비듬히 흘러들어 맞은켄 벽을 불그레 물들였다. 그 벽에는 아버지가 일필휘지로 쓴 죽자가 걸려있었다.

《의학은 자해!》

라현의 아버지는 젊어서 그리스도교를 숭상하면서 의학을 전공하였다. 아버지는 하느님의 존재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 교리는 믿었다. 그러면서 그 성서는 인류가 쌓은 문화의 대전서라고 하였다.

신은 어지러운 속세에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져 왔노라는 마태복음의 한구절을 초지로 품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에서 자해병원을 차렸다. 이태전 아버지는 세브란스의전졸업을 앞둔 라현이한테 자해병원을 넘겨주고 세상을 하직하였다.

라현은 의사의 직분은 청렴한 량심을 갖고 귀하

고 천한 사람 따로없이 사심없는 인정과 의술, 정성으로 환자들을 돌보는데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 지조를 지킬수 없는 현실에 부딪치게 될줄이야. 이른바 특대범죄를 저지른 인간이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 구원을 청하고있었다. 이 경우 어쩌해야 하는가? 범죄와 생명은 서로 다르다. 범죄는 상기씨와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 관심하는 분야가 아니겠는가. 각자 사회와 량심앞에 지닌 의무가 서로 다르듯 의사인 나는 생명일반을 돌봐줘야 할 직업적인 의무가 있다.

라현은 문제를 이렇게 세우자 종일토록 안정을 잃고 허둥거린것이 무엇때문이며 이제 더는 자기의 신조를 굽히지 말아야 하며 각일각 생명이 꺼져가는 그 사람한테 가봐야 한다는 의식이 들었다. 설혹 상서롭지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상기씨가 도와 줄것이다.

라현은 그렇게 량심과 살벌한 현실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왕진길에 나섰다. 마음은 불안스레 뛰기도 하고 기겁기도 했으나 바이 알길 없는 앞일에 대해서는 애써 생각지 않으려 애쓰며 얼마후에 성시밖 환자를 숨겨둔 초가마거리에 들어섰다.

환자는 여전히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있었다. 홀연 그의 입에서 가는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라현은 환자의 이마전에 달라붙은 땀에 젖은 머리칼을 쓸어올렸다. 순간 라현의 눈귀가 푸들쩍 뛰었다. 무척 낮익어보이였다. 특 빼여진 이마와 결페스런 코날... 피기를 잃은 터갈라진 두툼한 입술과 수염 싹이 돋은 꺼칠한 얼굴이며... 라현의 한손에 들려있던 핀센트가 방바닥에 떨어졌다. 별안간 기쁨과 슬픔이 한꺼번에 뚫어올라 숨이 짹 막히였다.

## 2

수채봉골을 타고 살갈이 질주하는 바람에 학교 지붕우에 쌓인 눈덩이들이 바다쪽으로 훑날리였다. 와지끈 탕탕... 교사양철지붕이 울부짖고 교실창문들이 드르릉거렸다.

교실을 엄습하는 지독한 강추위, 이미 거덜이 난 화목... 교실가운데 땡그러니 앉아있는 난로는 불을 지퍼본지 오랜지라 오히려 뱅뱅한 기운을 풍겨 추위를 더 보태주고있었다.

처녀애들은 호호 입김을 불어 두손을 녹이고 사내애들은 시려드는 발을 구르며 수업종이 울리기를 기다렸다. 오늘 학과는 학생들이 하나같이 좋아하는 창가수업이였다.

우상기가 나무단을 실은 발구를 앞세우고 학교마당에 들어섰다. 두툼한 솜옷에 토끼털귀덮개를 하여 추위와는 별로 상관없어보이는 애였다. 밖에서

흑판지우개를 털고있던 라현이 먼저 발견하고 발구를 마중하여 달려갔다. 그는 제창 발구에서 나무 한단 안아다 난로앞에 놓았다. 학생들이 저마끔 환성을 지르며 모여들었다.

《이 애, 넌 비켜. 계집애가 뭘하겠다구.》

권영석이라는 사내애가 온몸지 않은 말투로 불을 피우려는 라현을 한옆으로 밀치고 나섰다. 다른 애들보다 한두살은 더 먹어 열일곱살이나 된 그는 체구가 참나무처럼 단단했는데 되박이마아래 쏘는듯한 눈빛은 영채로우면서도 어딘가 오연하였다.

영석은 옆구리에 차고있던 조막도끼를 뽑아 들고 나무개비를 잘게 쪼개어 난로안에 집어넣고 불을 지폈다. 어릴적부터 나무꾼인 그는 늘 조막도끼를 차고다녔다.

그는 학교에 뒤늦게야 입학하였다. 산에서 나무짐을 지고올 때마다 학교창문 밑에 앉아 교원이 칠판에 쓰는 글을 따라배웠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느 하루도 변지지 않고 그렇게 직심스레 이삭공부를 하였다.

이 사실을 사립학교설립자의 한사람인 송민초선생이 알게 되어 그를 학교에 입학시키었다.

밖에서 바람이 회오리쳤다. 난로문이 풀떡이며 매운 연기를 한삼태기나 뿜었다. 뽕안 연기가 교실안에 자욱히 서리었다. 그러나 이내 바람새가 잦아들었는지 앞전해진 난로안에서는 불뚝을 탁탁 튕기더니 급기야 후르륵후르륵 참새무리 나는 소리를 질러댔다. 때마침 수업종이 울리었다.

악보책을 거드랑이에 낀 송민초가 두루마기자락을 펴럭이며 교실에 들어섰다. 40대중반에 이른 그는 상고머리에 짧은 코수염을 길러 자못 도고하고 엄엄한 기상이나 동그란 흑테안경너머로 학생들을 일별하는 눈빛은 퍼그나 안존하였다.

《일어섯. 선생님께 경례!》

학급장인 우상기가 변성기에 이른 갈린 목소리로 호기있게 웨쳤다.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 머리를 수그렸다. 송민초는 다들 앉히고 우상기를 특별히 지목하여 땀나뭇를 보내준 그의 아버지한테 학교당국의 심심한 인사를 전했다. 그는 누구든 학교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는 일을 하면 진심으로 사례하였다. 성시안의 선주의 한사람인 우상기의 아버지는 이따금 학교를 후원하여 사람들의 환심을 사군 하였다.

수업이 시작되었다. 송민초는 흑판에 오늘 배울 창가의 제목을 쪼아박듯 또박또박 적어나갔다.

그리운 강남

정이월 다 가고 삼월이라네

강남갔던 제비가 돌아오며는  
이 땅에도 또다시 봄이 온다네

...

가사를 다 쓴 그는 교탁옆에 놓인 발뭇금앞에 마주앉아 건반을 짚었다. 은은하면서도 맑은 풍금소리가 울려퍼졌다. 송민초의 목소리는 약간 거센 중음이었었는데 애뜻하고 절절한 동심을 깔고 흐르는 선율을 부드럽고 다정다감하게 형상하여 다들 숨을 죽이고 감상하였다.

학생들은 송민초의 선창에 따라 한소절한소절 익혀나갔다. 실로 창가는 부르면 부를수록 아지랑이 아물거리는 언덕, 파아란 머리를 뽀조름히 치여드는 아기씨들, 종다리 우짖고 시루떡처럼 부푼 땅에 서로서로 도와 씨뿌리는 살기 좋은 봄동산을 펼쳐보이기도 하며 제비떼 물고오는 그런 봄이 꽃피는 강남은 과연 어드메일가 하는 그리움으로 사무치게 하였다.

하지만 수업을 더 이어갈수 없었다. 별안간 교실 맨 뒤에 앉아있던 권영석이 벌떡일어났던것이다.

《선생님, 경찰들입니다!》

영석은 흑판앞으로 달려왔다. 지우개를 들고 흑판의 가사를 막 지우려는데 교실의 앞뒤문으로 경관 여럿이 쓸어들었다.

《가만!》

웅이처럼 굳고 바라지게 생긴 왜놈경관이 마치도 눈부위에 메밀을 박아놓은듯 한 동공이 보이지 않는 틈사리로 사물사물 웃음발을 흘리며 영석의 손에서 지우개를 빼앗아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아니, 이 무슨 무엄한짓인가. 우린 지금 수업중이란 말이요.》

송민초가 낮빛이 근엄해지며 노기서린 목청을 돋구었다. 그의 가슴에서는 울분의 덩이가 뚫어번지었다.

《그리운 강남?... 이 땅에 봄이 온다?... 흐흐... 봄은 무슨 봄인가?》

흑판에 시선을 박고있던 메밀눈이 류창한 조선말로 야짚거렸다. 송민초는 안경을 번뜩이며 입가에 쓰거운 미소를 실었다.

《하긴 당신들이 앓아갔으니까.》

《송선생, 우린 당신이 이 교단에서 빈번히 배일정신을 고취하고있다는것을 모르지 않소. 그래서 여기다 비밀독서회까지 조직하고...》

《뭘요?!》

《놀라는체 마오. 뭇들 하는가. 뒤져봐!》

메밀눈이 짹 소리쳤다. 경관들이 교실안의 여기



저기에 널려있는 학생들의 책보자기를 뒤지기 시작하였다.

라현은 경관들이 나타날 때부터 속이 화들거렸다. 그의 책상서랍안에는 이즈음 째째이 읽고있는 외국소설책 한권이 있었다. 옆의 동무한테서 가만히 빌려보는 책이었다. 며칠전 상기가 눈치채고 금지도서인 그 책을 보지 말라고 했으나 읽을수록 눈을 뗄수 없었다. 그렇다고 옆의 동무를 고발할수는 없었다.

한 경관이 라현의 책상앞으로 다가왔다. 라현은 심장이 뛰어나올듯 활랑거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경관놈은 그의 책보자기를 책상우에 활 헤쳐놓고 하나하나 간간히 살폈다. 그러다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책상서랍안에 손을 쑥 집어넣었다. 라현은 어망결에 경관의 손을 딱 붙잡고 애원으로 울가망이 된 눈을 치어들었다. 그통에 구미가 부쩍 동한 경관놈은 사정없이 책을 끄집어냈다.

《등에? 이진 또 뭐야. 소궁등쪽에 붙어사는 톱파리같은 벌레도 이런 목책이 되는가?》

경관놈이 《등에》책을 들고 영문을 알수 없어 중얼거리자 메밀눈이 책- 칼끝시선을 그 책에 던졌다.

《오-라- 영국의 너류작가 보이니치의 〈등에〉?》

메밀눈의 가는 눈꼬리가 우로 치켜지고 얼굴이 등불처럼 밝아졌다. 예상했던 물적단서를 쫓 그 눈에서는 다시금 웃음이 사물거리었다.

때를 같이하여 누군가 옆으로 썩 달려오더니 메밀눈의 손에서 그 책을 나꾸웠다.

《이진 내 책이요! 이 계집애 왜 훔쳐어? 그렇게도 찾았었는데. 에익, 도적년!》

영석이 눈에 불을 켜들고 한손으로 라현의 어깨를 팍 밀쳤다. 라현은 비명을 지르며 교실바닥에 모재비로 쓰러졌다. 이 뜻하지 않은 행패에 학생들과 경관놈들은 다같이 깜짝 놀랐다. 라현은 생벼락같은 타격보다도 난생처음 듣는 도적이라는 오명이 창피하고 억울했다. 속을 뒤집어 가뻘힐수 없는 안타까움과 모멸감에 왈칵 눈물이 쏟아져 얼굴을 싸쥐었다. 이 모든 소동을 지켜보고있던 메밀눈은 분을 삭이지 못하고 풀떡이는 영석을 가는 눈틈새로 노려봤다.

《너 그 책 어디서 났지?》

《장마당에서 샀소.》

《누가 팔던가?》

《웬 행상이었소.》

어린 놈의 대답이 자못 뻑뻑하고 방자스럽다고 생각한 메밀눈 틈새에서는 새파란 린팡이 뿜어나왔다.

《칙쇼- 엉큼한 놈. 묶으라!》

송민초가 영석의 앞을 막아나섰다.

《여보시오. 경관나리, 학생이 책을 모르고 산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이요.》

《모르고 샀다? 천만에! 당신은 이따위 책들로 못된 사상가들, 대일본제국과 맞설 역도들을 키우고있다.당신도 가봐야겠다. 오늘부터 이 학교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놈들이 달려들어 영석이와 송민초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학생들이 일시에 울음을 터뜨리었다.

이튿날부터 라현은 머리를 쳐들고 다닐수 없었다. 졸업을 앞두고 학교가 폐교되고 송민초선생님과 권영석이 류치장에 감금된것이 제 불찰로 여겨졌다. 내내 집구석에 박혀 울적한 번뇌로 속을 썩이고있던 어느날 아버지가 그한테 조용히 일렀다.

《애야, 암만 생각해도 그 젊은이가 너한테 미친화를 막아나선것 같은데... 한번 찾아가보는것이 도리가 아니겠나.》

라현은 그밤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류치장을 찾았다. 하지만 거기서 뜻밖의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될줄이야.

사흘전 눈보라가 터진 날 밤 젊은 《죄수》가 도끼로 류치장자물쇠를 까고 도망쳤다고 하였다. 《죄수》의 몸에 조막도끼를 숨겨둔줄을 누구도 몰랐다고 하였다. 그통에 송선생은 독감방에 이감되어 일체 면회가 불허되었었다.

그렇게 종적없이 사라진 권영석이... 그때부터 라현은 고요한 밤이면 이따금 그에 대한 생각에 잠기곤 하였다. 어쩔 그리도 무서움을 모를가? 꼭 옛말에 나오는 담대무쌍한 무사같애. 지금은 어데서 무엇을 할가?...

라현은 별많은 하늘에서 영채로 번뜩이던 영석의 눈빛과도 같은 별을 찾아 헤매었다. 하지만 그 별은 아무리 쳐다보아도 찾을수 없어 애끓기만 하였다. 그것은 갇지 못한 은혜를 잊지 못해하는 인정깊고 꿈많은 처녀의 동경이고 찬탄이었다. 아직은 시큼하고 짧은 맛도 가지지 못한 첫 앵두와 같이 밍그레한 줍만이 올라있는 열여섯나이의 애어린 처녀였으니...

그런데 처녀의 동경하는 마음속에 의젓한 장부의 기개와 무사다운 남아로 남아있던 그가 치명상을 입은 공산비적으로 나타날줄이야 어찌 상상이나 했으랴.

### 3

옥라현이 권영석의 치료에 필요한 약품들을 가방안에 챙겨넣고있는데 우상기가 찾아왔다. 라현은

어느때처럼 태연한 표정과 자연스러운 몸가짐을 해야 하는것이 여간 어색스럽지 않았다. 그래서였던지 상기의 깨끗해진 눈을 보면서도 불쑥 《눈때문에 오셨는가요?》하는 왕청같은 말이 튀어나갔다.

중절모를 벗어두고 레의 인사치레를 하려던 상기는 어깨를 으쓱했다.

《섭섭한데요. 라현씨를 만나려면 무슨 병이든 갖고 와야 하니. 그밖의 생활은 필요없다는건가요?》

《호호... 내가 직업병에 걸렸나봐요. 내 눈에는 온통 환자들이라니까.》

급해난 라현은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발그레하게 물드는 처녀의 꾸밈없는 얼굴과 순진한 자태는 한창 무르익는 딸기처럼 구미를 돋우고 육감을 불러일으켜 상기의 심장은 불시에 사랑의 열기로 타번지는상싶었다. 상기는 창박을 향해 돌아섰다.

《참, 기막힌 날씨군. 저녁하늘엔 잔별이 돋고... 이 마음엔 숫정이 눈을 뜨고... 하늘하늘 봄바람아, 꽃싸개같은 그 숫정 너 언제 익혀주려나? 하하... 밖에 나가 좀 소풍하지 않으려오?》

라현은 얼핏 벽시계에 눈이 갔다. 그것이 상기에게 얼마나 커다란 실망과 의혹을 자아내게 했는지 알지 못했다.

《상기씨 노상 시간에 쫓겨사는줄 알았는데요. 요즘은 그 무서운 특대일도 생겼다는데...》

《그자는 인츰 잡힐거요. 우린 여러곳에 그물을 쳐놓았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짬을 좀 얻었소. 할 말도 있고 해서.》

라현은 섬찟했다. 때문에 상기의 《할말이 있다.》는 뒤마디는 흘려들었다.

그들은 병원뜨락을 나섰다. 길녘에는 봄물이 오른 버드나무들이 띠엮띠엮 늘어섰다. 서늘한 미풍에 나무가지들이 흔들리고 그사이로는 희푸르스름한 하늘에 눈동자와 같은 잔별들이 깜박이었다. 금방 떠오른 초생달이 밤새껏 헤엄쳐갈 하늘바다를 망연히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뿌리고있었다.

라현은 봄날의 이런 저녁이면 까닭없는 애수로 마음이 산란해질 때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와는 전혀 다른 권영석의 안전에 신경이 갔다. 상기네들이 정말 그가 있는 성시밖의 그 찌그러진 초가마가리에까지 그물을 쳐놓았을가? 만약 그렇다면 자기도 그들의 시야에 들었을텐데... 알레면 알라지. 나야 의사가 아닌가. 하지만 권영석은?...

《난 어제 이맘때도 라현씨를 찾아왔댔소. 요즘은 어느때보다 더 분주한것 같구만.》

상기의 의심쩍어하는 말투였다. 라현은 무춤 걸음을 멈췄다. 그는 저도 모르게 발근해났다.

《상기씨도 형사다운 직업병에 걸렸군요. 똑똑

히 알아두세요. 의사인 나에게는 그가 누구든 병든 사람은 치료할 의무가 있고 또 누구든 정견과 신앙에 관계없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고 봐요. 설사 당신들이 그물을 쳐놓은 요시찰인물일지라도 말이예요. 의술은 인술이라 전생명, 후정견과 신앙이라고 난 생각해요.

상기씨 어느때건 내가 나의 의무에 충실했고 나의 량심은 정직했고 나의 낮은 깨끗했다는것을 알게 될거예요.》

상기의 술진 눈썹이 털벌레처럼 꿈틀했다. 라현인 지금 자기가 항시적으로 표방하고있는 이른바 미덕을 또다시 피력하고있다. 그 초정견적인 미덕으로 하여 자신을 망칠수도 있음에도...

사실 라현에 대한 상기의 애정은 학창시절보다 지난해에 급자기 일어번졌다.

무더운 지난 여름날 한밤중에 상기는 갑자기 벨이 꼬이는 진통으로 몸부림쳤다. 급해맞은 그의 부모들은 라현을 청했다. 라현은 그를 진찰하고 급성복막염으로 진단했다. 시간을 다투는 병이니 수술을 지체하면 위험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라현은 외과의는 아니였다. 그날 밤 상기는 수비대병원에 실려가 수술을 받고 소생하였다.

그후부터 상기는 제때에 정확한 진단을 내린 라현을 생명의 은인처럼 여겼고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 그의 가슴에 남다른 짝을 움트웠던것이다.

거리는 행인들이 뜸했다. 현란한 장식등이 울긋불긋한 은하수다방아래에는 머리에 풍뎡이를 쓴 소년이 구두닦이통을 앞에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구두를 닦으라고 소리쳤다.

《라현씨, 구두를 닦지 않겠소?》

《아니요.》

《그럼 내 잠깐.》

상기는 그쪽으로 다가가 구두닦이통우에 한발을 올려놓았다. 소년은 재빨리 솔에 약을 찍어 구두코숭이로부터 뒤로 가면서 불이 일게 비벼댔다. 나중에 밀랍을 발라 비로도로 정성스레 대우까지 내주었다. 광택없던 그의 양피구두는 금시 알른알른 윤기로 번쩍이었다.

상기는 지갑에서 1원짜리 지폐 한장을 꺼냈다.

《옳다.》

소년은 큰돈을 받아쥐고 어쩔바를 몰라하다 도로 내밀었다.

《나한테는 거스를 줄 돈이 없어요. 2천만 주세요.》

《됐다. 그냥 받아넣어라.》

《?!...》

소년은 대뜸 눈이 왕사발만큼 커져 머리를 쳐들었다. 꿈에도 보지 못한 엄청난 돈이 제 손에 쥐여

저있는것이 미덥지 않아서인지 돈을 이리저리 뒤집어보다 일어나 꾸벅 절을 하였다.

《고마와요, 아저씨. 이 돈이면 우리 엄마 약값 물고도 남을거예요.》

조금 떨어진 나무아래에서 라현은 이 광경을 지켜보고있었다. 상기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라현은 자기의 진심을 그대로 표현하였다.

《참, 별스럽군요. 저 하늘의 찬 별들이 더운 빛을 뿌리는것 같어요.》

《너무 그러지 마오. ... 일종의 나의 취미랄가, 오락이랄가. 난 그저 내 기분을 만족시키고싶어 그러오.》

상기는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며 서글픈 미소를 떠올렸는데 그의 얼굴은 무척 선하고 온화한 색조로 변했다.

《만약 그것이 선행이었다면 그래 그런 선심파위로 그 애를 구원하리라고 생각하오?... 우리 민족이 당하는 가난과 굶주림이 한낱 동정이나 선행으로 구원된다면 얼마나 좋겠소. 백성의 가난은 임금도 하느님도 그리고 정견이나 신앙을 초월하는 라현씨의 미덕도 구제할수 없소.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험벗고 굶주리고있는것은 선대인 우리들의 잘못이요.》

우리 조선사람은 보수적이며 폐쇄적인 민족성에서 오랜 세월 깨어나지 못하고있기때문에 남들이 문명의 혜택으로 증기기관차를 타고다닐 때 갓쓰고 하늘소를 타고다녔소. 이 민족의 후진성을 하루속히 개명하기 위해선 각자가 실력을 배양하여 질풍같이 달리는 현대문명이라는 기관차에 몸을 실어야 하오.》

《상기씨 그래서 일본의 국력으로 사는 형사가 되는가요?》

《그건 나의 실력이요. 난 실력으로써 우리 민족의 후진성을 극복했을뿐이요.》

상기의 아버지는 사립학교가 폐교되자 그를 곧장 일본총독부관하 경찰학교에 보냈다. 몇척의 고기배를 운영하던 선주로부터 일약 이 아군의 정어리기름정제업을 독점한 기업가로 된 상기 아버지는 나날이 불어나는 자산을 법적으로 안받침해줄 힘이 필요했었다.

경찰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상기자신은 또한 그것만으로는 성차지 않았었다. 같은 값이면 크고 단 참외라고 이왕 관복을 입은바에는 일본사람들도 돌보는 형사로 실력배양을 했던것이다.

《난 지금도 잊지 않고있어요. 우리가 사립학교 중등반 3학년때였지요. 상기씨가 리상화선생님이 지으신 시를 읊으며 온 학급을 울리던 일 말예요.》

라현은 상기의 생활관에 부딪치게 되자 어찌선지 저 멀리로 흘러가버린 어릴적 자취들이 눈앞에 그려졌다. ...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해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리마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

수업시간,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시를 읊는 선생님을 바라보고있었다.

송민초는 무상한 시정에 젖어 가슴밀창에서 우러나오는 웅글은 소리로 땅김이 무덕무덕 피는 봄날, 녀인의 가리마같은 논길을 따라 걷고있는 서정적주인공의 마음을 펼쳐갔다.

그의 음성은 이른새벽 내린 봄비에 불어난 작은 실개울처럼 도란도란 정답게 흐르기도 하고 보도랑을 넘는 장마철논물처럼 팔팔 솟구치기도 하였다. 그리고는 삼복철땀별에 시들어버린 곡식앞에서 피같은 눈물을 쥐여짜는 농부의 장탄식같은 소리로 가슴들을 찢어놓으며...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하는 구절에 가서는 슬프고 갈린 소리로 번져지더니... 답답해라, 말을 해다오... 하고는 쏟아지는 눈물을 견잡을수 없어 더 읊지 못했다. 그러자 맨 앞줄에 앉아있던 상기가 일어나 송민초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 뒤를 읊어나갔다.

내 손에 호미를 쥐여다오  
살진 젖가슴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밭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싶다

...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 ...

《흐흑...》

북받치는 서러움을 애써 씹어삼키며 읊조리던 상기 마지막대목을 맺지 못하고 선자리에서 어깨를 떨며 흐느끼었다. 교실엔 삼시에 와— 울음파도가 일어번지었다. 라현은 옆의 처녀애를 붙잡고 눈물을 떨구었다.

그런데 유독 한 아이만이 울지 않고있었다. 갓

입학한 권영석이었다. 영석은 아래입술을 꼭 깨물고 되박이마아래 타는듯 한 눈빛으로 창밖만 지뚫게 내다볼뿐...

《그건 하나의 동심이였다고 할가? 그날 송민초 선생이 시의 서정을 지나치게 민족이 당하는 수난자의 설움으로 이끌고간것 같소. 넓으나넓은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지 알수 없던 참으로 철모르는 시절이었지.》

상기는 지난 일들을 두고 허거프고 어처구니없어했다. 라현은 수정처럼 티없이 깨끗하고 신성한 어린시절의 녀에 곱판내를 뒤섞는것 같아 불쾌해났다.

《거짓도 꾸밈도 모르는 아이적 시절의 녀은 인생을 비쳐보는 거울이예요. 그런 깨끗한 녀을 모독하다니요? 난 그래도 그 수업시간에서처럼 우리 민족의 아픔을 뼈저리게 절감한적이 없었다고 봐요.》

상기는 묵묵히 절음만 내짚었다. 무슨 생각을 고르는지 입귀를 실룩이던 그는 돌연 머리우에서 설렁대는 버들가지를 와락 잡아챘다.

《이것 보오, 라현씨. 이 가지에 버들개지가 피었소. 그때도 봄이 왔고 지금도 봄이 와 새싹이 움트오. 물론 순수 자연의 봄을 뜻하지는 않았지만 이 땅의 봄을 빼앗겼다고 보는 시인의 미학관이 시대착오적이 아니였을가?

최근 〈동아일보〉에 실린 저명인사 최남선씨의 글을 봤겠지. 그는 오늘날 일본의 존재는 아시아의 기운이고 동방의 빛이라고 했소. 3.1독립선언문기안자의 한사람인 그가 동방제민족은 일본을 맹주로 하여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소.》

《상기씨는 내가 기모노차림을 하길 바래요?》

상기는 소리없이 웃었다. 그는 까만 조선치마저고리에 눈같이 하얀 동정, 그우에 엮은 봄철뎃옷을 걸친 라현의 단아하고 정가로운 차림새에 미혹의 눈길을 던졌다.

《오해하지 마오. 라현씨... 내가 조선사람의 녀을 다 집어던졌다고 생각하는것 같은데... 까놓고 말해 난 일본녀성들은 질색이요. 교태를 부리고 아양을 떨지만 순박하고 절개군은 우리 조선녀성들이 훨씬 돋보이오. 민족의 피야 어데 가겠소. 그러나 아무리 지조높은 민족의 절개일지라도 어떤 토양에 심는가에 따라 시들수도 있고 성할수도 있소. 라현씨. ...》

상기는 말을 끊고 애끓는 시선을 쳐들었다. 자기의 목소리가 너무 흥분하여 격하게 울리지 않도록 마주잡은 손가락마디를 소리나게 꺾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일본이라는 비옥한 토양에 사랑의 씨앗

을 뿌려갑시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은 화창한 봄을 맞을수 있소.》

《...》

라현은 불시에 절끔한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오르는 생리적인 혐오감을 느꼈다. 어릴적부터 가깝게 지내던 상기가 생판 낯설어졌다. 왜놈의 형사옷을 입고있어도 민족의 피야 어데로 가랴 하던 시대는 거품처럼 사라졌다. 어쩌면 이다지도 황민화 되었을가?...

《용서해요. 난 아직 나의 인생의 씨앗을 누구와... 어떤 땅에 심어야 하는지 생각해본적이 없어요. 그건 나한테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라현은 지금까지 일생의 반터를 생각하지 않은것은 아니었다. 사랑에 속히여 울고 돈에 팔려우는 야속한 이 세월 참된 사랑이란 한갓 꿈이지만 그래도 민족의 녀를 버리지 않고 불쌍한 사람들을 더운 가슴에 안아줄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마음속에 동경하군 하였다.

라현은 더는 상기와 어깨나란히 걷고싶잖았다. 왕진길이 훨씬 마음이 편할것 같았다. 문득 잠시 잊었던 권영석이 생각이 또 났다. 그가 이 시각 그냥 그곳에 있을가? 경찰들한테 발각되지는 않았을가?...

## 4

권영석은 이틀이 지나도록 의식을 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라현은 시중드는 마부로인한테 그를 다른 곳에 옮기도록 강경히 권고하였다.

그날 밤 권영석은 생선국집의 지하음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생선국집이 경찰들의 눈을 덜 끌뿐만아니라 성시밖이여서 안전할수 있었다.

권영석은 사흘잡히던 새벽에 눈을 떴으나 의식은 들며날며 하였다. 해질녘에야 독을 쓰던 상처가 약간 수그러들고 열도 떨어지면서 정신을 차렸다.

그의 소생에 무던히 마음써오던 라현은 무등 기뻐으나 권영석의쪽에서는 덤덤한 기색이었다. 라현을 알아본 그의 창백한 눈확에서는 한점의 불꽃같은 빛이 번쩍했고 초들초들한 입술이 다소 떨었을뿐이었다.

죽음의 심연을 헤매이던 혼수상태가 감정과 기억을 다 앗아갔는지? 아니면 세상의 반항아로 살아온 산생활이 인정을 강대처럼 말리웠는지 그들의 첫상면은 싱겁기 짝이 없었다.

라현은 섭섭했다. 이런 몰인정한 사람을 두고 사춘기시절에는 옛말의 그 무슨 무사처럼 상상했고 지금도 간혹 의젓하고 튼튼한 장부로 채색하여 그

러보지 않았던가.

한편 리해도 되었다. 5년전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산전수전을 다 겪게 만든 자기에 대한 사무친 원한을 품고있을수도 있기때문이었다. 어쨌든 라현은 상봉의 기쁨도, 지난날의 회포도 나누지 못한 여성버성한 감정을 내색하지 않고 밤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치료에 성심성의를 다했다.

권영석이 의식을 회복하여 닳새째 되는 날이었다.

《라현씨, 이제 더는 오지 마오.》

이것은 권영석의 입에서 흘러나온 첫 말이었다. 무뚝뚝하고 매몰차게 울린 이 말은 라현의 귀전에 정—잔향을 일으키며 가슴을 찌릿한 아픔으로 어이였다. 위험을 무릅쓰고 다닌 걸음을 너무도 하찮게 대한다는 무정함까지 겹쳤다.

권영석의 총상은 많이 나아졌으나 병세는 의연히 심했다. 총상부위에 박아넣은 심지에서는 고름이 그냥 흘러나와 자주 갈아주고 약을 주입하여야 하였다. 그러한 치료는 전문의사의 방조없이 하는 거 의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굳이 마다해나서는 권영석의 태도는 라현의 몸을 싸늘히 식어들게 하였다. 차라리 손을 떼는 편이 마음 편할수도 있었다. 하긴 상기네들이 올라가미를 쳐놓고 추적하고 있는 특대범인인데야...

라현은 치료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권영석이 자리에 누운채 나직이 입을 열었다.

《다른 부탁이 있소.》

《...》

《외용약들이 좀더 필요합니다.》

《저의 치료가 미덥지 않은가요?》

《아니, 그래서가 아니요.》

(그렇다면 다른 또 한사람의 부상자가 있는것이 아닐가?)

라현은 비로소 이 며칠째 그의 치료를 위해 두 고가는 외용약들이 왜 그렇게 빨리 없어지는지 알 것 같았다. 지금 경찰당국에서는 시내의 약방들과 의원들한테 외용약판매금지령을 내리고 엄격히 조사하고있었다. 자혜병원에도 가끔 사복쟁이들이 나타나 외용약소비정형을 따지고들지만 우상기와의 인맥을 알아서인지 심히 날카롭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약이 또 한사람의 《비적》을 위한거라면?...

《그건... 힘들것 같군요.》

《음...》

권영석은 외마디로 수궁하고는 더 말이 없었다. 한동안 따분한 침묵이 흘렀다. 권영석의 쪼프린 미간에는 서늘한 기운이 서렸다. 라현은 마치도 자기의 내심을 꿰뚫어보고있는듯싶어 몸이 오싹해났

다. 하긴 이 사람은 애초부터 날 믿지 않았는가 봐. 그래서 더는 오지 말라고 치료를 거부하는지도 몰라.

《좋소. 그럼...》

권영석은 이번에는 믿음에 찬 기색을 담아 직방 다른 말을 꺼냈다.

《지금 우리한테는 팔을 부상당한 한사람이 또 있소. 비밀공사장에서 겨우 몸을 건진 조선사람인데 성시안에 있는 그의 거처지가 위태롭게 됐소. 그를 한시바삐 빼돌리자니 성시문을 나드는 통행증이 필요하구만. 라현씨가 좀 도와줄수 없겠소?》

《통행증이요?!》

《내가 알아본데 의하면... 상기군이 왜놈들 형사로 둔갑했더구만. 라현씨가 그와의 안면을 리용할수 없을가?... 학창시절부터 서로 자별한 사이로 알고있는데...》

라현은 얼굴을 붉혔다. 자기들의 관계를 나름대로 결론짓는것이 펍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 그는 씩스레한 미소를 떠올렸다.

《영석씨는... 바깥공기를 너무도 모르시는군요. 그들은 지금 당신들의 기슭에 눈에 피가 젖어있어요. 여기에 무슨 인맥이나 안면이 통하겠어요.》

《하긴 비밀공사장에서 누구든 살려보낼수 없다고 왜놈들이 한짓이니...》

권영석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 상처의 동통때문인것 같지 않았다. 무슨 생각엔가 골몰하는 형색이었다. 한참 지나서야 눈을 떴는데 두눈은 숏불처럼 이글이글 타오르고 꼭 다문 입귀에는 혈치 않은 결단이나 각오를 품었을 때 흔히 나타나는 비장한 결기가 스쳤다.

《안됐소. 내가 또 힘에 부친 부탁을 했군.》

권영석은 서글서글한 어조로 제 요구를 선선히 철회하였다. 라현은 얼핏 뇌리를 치는 룩감에 놀라 속생각을 떠듬떠듬 내비치었다.

《설마... 상기씨를 직접... 만나...》

《허허... 그러면 안됩니다. 우리야 생판 초면부지는 아니잖소.》

권영석은 흰이발을 보이며 혼연히 웃었다. 침착하면서 배심있고 자신감에 넘치는 그 미소에 어지간히 놀란 라현은 사태를 그대로 알려주고싶었다.

《영석썬... 아직 그 몸으로 걸을수도 없겠지만... 상기씨를 다는 몰라요.》

《뭐가 모르게 있겠소. 그래도 우린 한때 한교실에서 배운 학우가 아니요. 난 그가 왜놈의 기관에 있어도 민족적량심은 남아있을거라고 생각하고싶는데... 학창시절 그는 우리 민족이 당하는 수난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수하지 않았소. 빼앗긴 몸을 그리며 서럽게 울던 그가 교재림에서 나무를 심지 않

으려던 나를 두고 얼마나 분해했소. 아무렴 그가 그 모든 아름다운 추억까지 잊었겠소.》

피기없는 권영석의 눈시울이 쳐들리며 두눈에서는 그윽한 빛이 흘러나왔다. 학창시절에 남긴 자옥들은 죄다 즐거움을 자아내는 모양이었다. 라현은 모든것이 달라진 현실을 지난날의 생활감정으로 리해하고있는 그 단순성이 괴로웠다.

권영석은 상한 다리를 힘주어 굽혔다 폈다 하며 다시 이었다.

《라현씨, 비밀공사장에서 구사일생 살아난 그 사람은 구원해야 합니다. 그날 밤 팔에 부상을 입다나니 미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빠지지 못했소. 왜놈들은 대륙침략에 쓸 무기고건설을 비밀리에 벌려놓고 그 공사가 끝난 즉시 거기에 내몰았던 인부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려고 획책했었소. 죽은 자들만이 비밀을 담보할수 있다는거요. 전라도가 고향인 그 사람은 알선인부로 왔다가 그런 사지판에 끌려가 무주고혼이 될번 했소. 고향에서 사랑하는 부모처자들이 얼마나 속타게 기다리겠소.》

권영석의 음성은 조용했으나 마디마다 가슴을 치는 의분과 사랑, 뜨거운 인간미로 넘쳐났다. 라현은 상기가 말하던 특대사건이란 무엇이며 한개 수비대가 어찌서 녹아났는지 명료해졌다. 비밀공사에 내몰린 무고한 백성들을 살리려고 한목숨 내던 권영석이와 같은 사람들이 비적이라면 그들이야말로 인간중의 인간들이었다.

그렇다면 권영석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아직은 다는 알수 없지만 아름다운 빛갈속에 그려보던 인간, 사립학교독서회때를 봐도 그래 남다른 뜻과 민족애를 가슴에 품고 사는 열의인이 아닐가. 라현의 심장은 헛되지 않은 기대와 희망을 다시 찾은 세찬 흥분에 휩싸여버렸다.

만약 그런 범상치 않은 뜻을 지닌 인간이라면 상기를 직접 만날수도 있었다. 상기 역시 그 뜨거운 민족애앞에 머리를 수그릴수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것은 그 다리를 가지고 과연 바깥출입을 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나절 병원에 피득 들린 상기, 평시에 침착하고 례의스럽던 그는 어째선지 얼굴이 지지벌개가지고 안절부절 못했다.

《참, 세상이란 요지경속이라더니... 우리가 수배하는 대역범이 누군지 아오? 라현씨도 이제 휘파 놀랄거요. 사립학교시절 독서회사건으로 감옥귀신이 될번 했던 그 되박이마, 라현씨를 책도적으로 몰아대던 그 작자요!》

라현은 정말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을가. 벌써 권영석씨가 그와의 담판을 벌렸는가? 라현은 말라드는 입술을 감뻘며 중절모안에서 시꺼먼 눈썹을

꿈틀대는 상기를 소심스레 쳐다봤다.

《누가 그래요?》

《도경찰부에서 알려왔소. 그는 빨찌산비적핵심 인물로 이번에 여기 북부해안의 황군비밀공사를 파탄시키고 지하조직망을 보강할 목적으로 침투된자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조건 잡아야 한다는 비상령이요. 이제 두고보요. 그 흉악범을 이손으로 잡아 라현씨를 인신모독한 죄까지 계산하고말테요.》

상기의 검은 눈에 독기가 서리고 입안에서는 어금이가 으드득거렸다. 라현은 아연해났다. 역시 상기는 뼈속까지 일본산이였다.

라현은 그의 망심을 믿고 한가닥 간직하려던 실오리같은 기대마저 끊어져버리는 허탈로 온몸이 매시시해났다. 급선무는 상기를 만나려는 권영석의 걸음을 한시바삐 저지시켜야 하였다.

날이 저물기를 눈이 까매 기다리던 라현은 어둠이 자락을 펴기 바쁘게 생선국집으로 달려왔다. 하지만 움은 비어있었다. 권영석이 누워있던 이부자리는 포개여 한쪽 구석에 놓여있었다. 라현은 심신에 불이 달린듯 촉급해났다.

그가 움을 막 나서려는데 문가에서 몸이 거룩진 마부로인과 마주쳤다. 늙은이는 웬일인지 긴장과 초조감이 뒤섞인 기색이였다.

《좀전에 영석이 그 사람을 은하수다방에 실어다쫓네.》

《거긴 왜요?》

《형사놈과 약조한 곳일세.》

《그런데 그를 혼자 두고 왜 왔어요?》

《그 사람은 원장선생을 더 걱정했네. 이제부터 왜놈들이 자기 뒤를 밟을수 있으니 선생이 여기에 더는 얼씬 말라구 말이웨다.》

라현은 늙은이의 말을 꿈속에서처럼 들으며 맥을 잃고 방바닥에 주저앉고말았다. 그러니 그가 치료를 거부한것은 나의 신변때문이였는가? 불시에 후더운 열기가 가슴을 쳤다. 눈곱이 축축히 젖어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스스로 함정에 찾아간 그의 신상이 어떻게 될지 속이 새까맣게 타들기만 하였다.

바로 그 시각 은하수다방 구석진 좌석에는 사각탁을 마주하여 두사나이가 앉아있었다. 거뭇한 한겹저고리에 누런 토목천목도리를 두른 권영석이와 중절모로 눈두덩이까지 가리운 우상기였다.

《전라도의 알짜농부란 말이지? 그 요구를 내가 일축한다면?》

독한 위스키를 입안에 쓸어넣은 우상기는 포크로 고기안주를 찍으며 뇌까렸다. 한손에 지팡이를

집고 비둘서 앉아있는 권영석의 입덕에 비웃음이 지나갔다.

《그렇게는 안될걸.》

《자넨 지금 쉼치고 불속에 뛰여든줄 아나?》

《하긴 밖에서 어슬렁거리는 놈쟁이들이 자네 신호를 기다리는것 같은데… 이봐, 난 너한테도 기회를 주고싶어 왔어. 한마디 한다면 난 네가 민족을 물어메치는 개짓을 더는 앓기를 바래.》

《민족? 우리 민족이 어데 있어?… 옳아, 저 다방앞에서 구두닦는 뿔거지도 우리 민족이야 민족이지.… 하하… 이보게, 우리 시시껄렁한 말씨를질은 그만하고 회포나 나누세.》

우상기가 입술에 게면쩍은 웃음을 바르고 제와의 술잔을 쳐들었다. 권영석은 탁우의 술잔을 천천히 땅바닥에 쏟아버리고는 지팽이에 의지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어리석은 인간과 더는 마주앉고싶잖았다. 우상기도 아무 반응없이 입안에 연방 술잔을 기울이었다. 그의 어둑하고 침침한 중절모안에서는 게슴츠레해진 눈알이 희번득이었다.

## 5

라현은 다음날 마부로인을 통하여 지난밤 부상자인 전라도사람이 우상기가 발급해준 통행증을 갖고 마차에 실려 유유히 성시문을 빠져들음을 알게 되었다.

빠까지 일본산으로 여겼던 상기, 실로 풀기 힘든 수수께끼가 아닐수 없었다. 그렇다면 상기의 몸에는 동족의 피와 련민의 조각이 남아있었다는것인가?

하지만 좋지 않은 일이 덧긔었다. 이를후에 권영석의 상처가 다시 도졌다. 상처가 아물기 전에 지나치게 움직인탓으로 심지에서는 피고름이 흘러나오고 열이 오르기 시작하였다. 권영석은 진통과 고열로 헛소리를 지르며 정신을 잃었다. 무슨 소린지 대중없이 중얼대는 헛소리가운데는 선생이라는 낱말도 섞여있었다. 몽롱한 의식속에서도 뇌이는것보면 항시 잊지 앓고있는 사람 같았다.

라현은 그한테 강한 진정약을 먹여 폭 잠들게 하였다. 권영석은 동틀무렵에야 눈을 떴다. 이마와 판자노리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었다. 한참 멀뚱해있던 그는 랑패스러운 기색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애썼다.

《내 참, 정신을 다 잃다니… 미안하오, 라현씨. 고생만 시켜.》

《팬찮아요. 가만 누워계세요.》

《지금 몇시나 됐소?》

《날이 새요.》

《그러니 오늘이 음력 초닷새겠군. 3월 5일이라… 참 라현씨, 언제부터 묻고싶었는데… 송민초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시오?》

권영석의 느닷없는 물음에 라현은 무참해났다. 가뭇없이 잊고있는 사립학교시절의 스승이었다. 세브란스의전을 마치고 귀향했을적에 한번 들러보고는 여태껏 전혀 소식을 모르고 지냈다. 그때 선생은 옥고를 치른 어혈로 자리에 누워 운신 못했었다. 병석에서도 우리 말독본을 집필하고있어 그 변함없는 애국지조에 감복했을뿐이었다.

《용서하세요. 제자의 구실을 못하는 절… 참, 그래서 영석썬 어제 초저녁 고열속에서도 선생이란 말을 자주 외우셨군요.》

《내가 그랬는가요? 하긴 어떻게 잊을수 있겠소. 철없던 우리들한테 민족의 얼을 심어준분이 아닙니까. 아마 라현씨도 기억할겁니다. 내가 선생님한테 매맞던 일말이요. 허…》

벌썬 웃는 권영석의 소탈한 얼굴에는 신통히도 학창시절 감사납고 세차던 모습이 어리었다.…

…북방의 이른봄, 낮이면 호듯호듯한 별에 양지쪽 파란 싹들이 봉긋봉긋 머리를 치솟고 해가 떨어지면 허연 서리가 덮치는 심술궂은 계절이었다.

학교에서는 송민초의 발기로 나무심기를 벌렸다. 사내애들은 학교둘레에 나무구멍이를 파나갔다. 잔돌이 많고 메마른 토질이여서 나무가 뿌리내리기에는 감새가 시원치 앓아 처녀애들은 부지런히 물을 길었다.

라현이 물지게를 지고 학교울안에 들어설 때였다. 흙구멍이를 파는 사내애들쪽에서 웅웁 고아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라보니 영석이와 상기가 서로 불안고 돌아갔다. 몸집이 어병지고 힘깨나 쓰는 상기가 다부진 영석을 안아 허양 둘러메쳤다. 그리고는 영석을 깔고앉아 주먹땀을 쳐댔다. 그러자 밑에서 안간힘을 쓰며 이리저리 몸을 비틀던 영석이 벌떡 일어났다. 이번에는 그가 쟁싸게 몸을 날려 되박이마로 상기의 얼굴을 드립다 받았다. 그 결페스런 골반이에 상기가 코를 싸쥐고 아부재기를 쳤다.

《썩 그만두지 못할가!》

마침 송민초가 달려와 추상같은 소리를 질렀다. 두 사내는 서로 틀어잡았던 뺨살을 풀었다. 영석은 퍼렇게 멍이 든 눈두덩이를 한손으로 가리우고 씨근거렸다. 상기는 줄줄 흘러내리는 코피를 훔치더니 울분을 터뜨렸다.

《선생님, 이 자식… 우리가 심은 나무를 다 뽑아버렸습시다.》

《뵈이?!》

송민초의 미간과 이마에 깊은 주름이 건너갔다. 아닐세라 땅바닥 여기저기에는 어린 나무모들이 널려있었다. 뿌리가 물에 적셔진채로 나뉠구는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것은 마구 짓밟아 형체없이 된 나무모도 있었다. 그 처참한 광경을 안경너머로 살펴보는 송민초의 눈빛은 노여움으로 끓었다.

《네가 정말 이런 못된짓을 했느냐?》

《…》

영석은 아래입술을 꼭 깨물고 씨근덕거리기만 하였다. 송민초가 더는 참을수 없어 발을 구르며 고함쳤다.

《이 녀석, 당장 심지 못할가!》

그러자 송민초앞에 머리를 떨구고 잠자코있던 영석은 두어걸음앞에 갓 심어놓은 나무모를 걷어쳤다. 어린 나무웃초리가 부러지면서 저쪽 날아가버렸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버르장머리없는 행위였다. 송민초의 낫빛이 대뜸 킁킁히 질렀다. 격노한 그는 엎어질듯 몸을 앞으로 꺾더니 후들거리는 손을 쳐들어 영석의 뺨을 철썩 갈겼다.

《이 불망종같은 녀석!》

영석은 그 타격에 한순간 비칠하고는 다시 몸을 못뚝이 뛴다. 송민초를 쏘아보는 그의 두눈에는 당장에 질적한 눈물이 핑그르르 끓었다.

《선생님, 왜 나무를 심어야 하나요? 선생님은 우리한테 이 땅은 봄이 없는 땅, 남이 사는 땅이라고 하잖았습니까?》

《?!》

그것은 벼락이었다. 송민초만이 아니라 라현이와 학급애들의 머리위에 떨어진 우뢰였다. 송민초도 학급애들도 돌덩이처럼 그 자리에 굳어졌다. 어린 가슴들을 비틀어죄는 정적이 한순간 깃들었다.

송민초가 먼저 어깨를 처뜨리고 지척지척 몇걸음 옮겼다. 얼마 못미처 그는 다시 몸을 돌려세웠다. 축축히 젖어드는 희뿌연 눈길로 허공을 쳐다보던 그는 돌연히 영석을 와락 부둥켜안고 끄옥끄옥 흐느낌을 터치었다.

《이놈아… 이 땅을 빼앗겼기때문에… 우리의 나무를 심어야 한단 말이다. 누구나 이 땅에 제 심혼을 심어봐야… 나라를 찾는 마음이 생길게 아니겠냐.》…

《그래요. 그날 선생님이 우시고 우리도 울었어요.》

생생한 추억은 얼얼한 아픔으로 라현의 가슴에 찍혀있었다. 권영석은 피로운 숨결을 뿜으며 침통하게 덧붙였다.

《내가 선생님을 올린 그날이 음력 3월 초닷새, 송선생님의 생일날일줄이야 어찌 알았겠소.》

《생신날이요?!》

라현은 지금까지 송민초의 생일날을 알지 못했다. 권영석이 그걸 어떻게 알고 잊지 않고있는지 신기하기만 하였다.

《다섯해전 내가 류치장에서 탈출하여 두만강을 넘을 때 파도치며 굽이치는 물결소리가 빼앗긴 이 땅에 우리의 나무를 심자던 선생님의 웨침소리처럼 들리어 이 걸음을 더 채찍질하였소.》

권영석은 잠시 숨을 돌리고 계속하였다.

《그후 유격대에 입대한 난 학창시절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동지들한테 들려줬는데 어떻게 김일성장군님께서 아시고…》

《누구시라고요?》

《라현씨… 난 김일성장군님의 슬하에서 싸우는 조선인민혁명군 전사요.》

《?!》

라현은 별안간 가슴을 쿵 치는 충격에 몸을 떨었다. 여태 전설처럼 전해들고있던 백두산의 장수별, 정녕코 권영석씨가 그분 휘하의 부하란 말인가. 도무지 생시가 아닌 꿈만 같아 그를 얼없이 쳐다보기만 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것처럼 희생적인 인간사랑과 민족사랑의 불사신이 되어 나타난 것인가.

권영석의 혈كم한 인상은 소리없는 미소로 한껏 밝아졌다.

《장군님께서는 지금 조국땅 인민들은 강도 일제에게 빼앗긴 봄을 시와 노래에 담아 서러이 통곡하고있다고 하시며 그 봄을 조선의 혁명가 우리들이 찾아주고 가꿔줘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소. 그리고 송민초선생이 빼앗긴 이 땅에 우리의 나무, 조선의 녀를 심자고 한것은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육자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지 않겠소.》

《장군님께서 우리 선생님을요?!》

《〈한일합병〉이 있은 후 적지 않은 선각자들과 애국지사들은 국권상실의 수치스러운 근원을 나라의 후진성에서 찾고 교육이야말로 나라의 만년대계 건설이며 교육을 발달시키지 않고서는 나라의 독립도, 사회의 근대화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절감하고 도처에 사립학교설립운동을 벌렸는데 그중 한사람이라고, 물론 그들이 선택한것이 나라를 찾는 길은 아니지만 민족의 고결한 녀를 지닌 그런분들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고 하시었소.…》

라현의 온몸에서는 또다른 걱정의 파도가 물결치었다. 잊어버린 스승에 대한 한없는 존경이 우러나오는 그 시각 무명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인 마부로인이 문가에 나타났다.

《이 사람, 어서 내 등에 업히게. 임자가 타고갈



배를 어촌마을도래곶이에 들이댔다구 전갈이 왔네. 전라도사람도 자넌 따라가겠다고 나섰네.》

《아니, 고향에는 안 가구요?》

《지금까지 헛살아온것이 분하다면서 저도 늦게나마 총잡고 왜놈들과 싸우겠다네.》

《음.》

권영석의 꼭 다물린 입귀와 눈에는 믿음에 찬 미소가 실렸다. 그는 천천히 머리를 끄덕이고는 마부 로인한테 말했다.

《아바이, 난 아직 여기에 할일이 남아있습니다.》

《무슨 소릴, 왜경들의 눈찌가 심상찮네. 간밤에 집집들을 또 발각 뒀네. 성시문단속도 여간 아닐세.》

《알고있습니다. 내 꼭 들릴데가 있어 그러니 어서 마차를 대주십시오.》

라현은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들으며 권영석은 결코 외로운 몸이 아니며 이 성시안에 보이지 않는 조직이 살아움직일뿐만아니라 한갓 품을 팔며 떠돌아다니던 사람마저도 그 조직에 망라되어 나라 찾는 성전에 나서게 되는 사실에 격동되었다. 그것은 권영석의 영향임을 감촉했으며 그럴수록 그와의 차별이 마음을 허전하게 하였다.

이 며칠째 라현은 여태 느끼지도 체험해보지도 못한 놀라운 세계를 알게 되었다. 하나의 제물로 될번 했던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려고 대일본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야수와 피의 결전을 벌린 장한 거사, 그 혈전의 길에서 함께 싸우는 전우도 아닌 평범한 한 농민의 안전을 지켜주려고 자기가 주저한 걸음을 서슴없이 단행한 그 결단...

인간생명을 다루는 라현이 자신에게도 굳은 생활신조가 있었다. 아버지처럼 존재하지 않는 신의 사랑을 동경하기보다 청렴결곡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불행을 가셔주는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고결한 사랑의 세계라고 자부해왔다. 하지만 그와는 대비할수 없는 이들 혁명가들의 사랑은 어떤 개인의 성품이나 기질에서가 아니라 혁명 자체가 추구하는 숭고한 리념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하고보면 혁명이란 가장 인간적인 사랑의 세계가 아닐까?

밖에서 마차바퀴가 굴러오는 소리가 들렸다. 권영석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서둘렀다. 라현은 그를 부축하려고 몸을 숙이었다. 얼굴이 서로 맞대이었다. 순간 역센 사나이의 싱싱한 체취와 뉘뉘는 숨결이 마쳐와 가슴은 세차게 방망이질하였다.

《바깥공기가 살벌한것 같은데 꼭 가서야 하나요?》

라현은 운신조차 하기 힘든 몸에 배편이 준비되었을 때 한시각이라도 빨리 몸을 피하는것이 옳을

것 같아 간청하였다. 권영석은 빙그레 웃었다.

《새날이 잡혔으니 오늘이 송선생님 생일날이요. 내 잠간 선생님의 장수를 축복하고싶어 그러오.》

《!》

라현은 몽클 불몽치같은 뜨거운것을 삼키었다. 무엇인가 크고 아름다운 벅찬 감격과 그처럼 값 높은 인간미를 지닌 권영석이 더없이 귀중히 여겨졌다.

《그 마음을 선생님한테 제가 전하면 안될가요?》

《확창시절 난 이날에 선생님을 괴롭히지 않았소. 예까지 왔다가 어떻게 그냥 갈수 있겠소.》

눈에 띄게 상하고 구레나룻이 더부룩한 권영석의 얼굴에는 진정어린 사죄의 그늘이 내려앉았다. 라현은 자기의 요구가 부질없음을 새삼스레 깨달으며 마음까지 붉어지는 수집음을 머금고 속삭이듯 뇌이었다.

《저도... 늦게나마 선생님을 뵈고싶군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댔소. 우리 함께 선생님을 즐겁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소. 우리들의 가슴에 내 나라의 봄을 심어주던 그 창가랑 부르면서 말이요.》

《〈그리운 강남〉 말예요?》

《그래... 하지만 라현씨 갈수 없소.》

《?!》

기쁨으로 들먹이던 라현은 일순 얼퍼름해졌다.

권영석은 선뜻 대답을 못했다. 심경이 자못 복잡한듯 서서히 흐려들던 그의 두눈에서는 또다시 이글거리는 숯불의 광채가 어롱거렸다. 그것은 기약할수도 미룰수도 없는 길, 어떤 함정이 기다릴지도 모를 길을 두고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는 단호하고도 결연한 눈빛이었다.

《라현씨, 우상기가 내 뒤를 밟고있소. 그놈은 전라도사람을 미끼로 날 낚으려 했소. 놈들이 지금까지 참고있은것은 나를 통해 이곳 조국광복회 조직망을 알려고 했던거요. 허탕을 쳤으니 이제는 악을 먹고 덤벼들거요... 우리 여기서 헤어집시다. 라현씨... 난 당신을... 믿겠소!》

권영석은 라현의 손을 짚 잡았다놓았다. 라현은 불같이 화끈한 열기와 찌르는듯 한 행복에 참고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이름할수 없는 격렬한 생의 환희와 푸르고 창창한 희망을 찾은 격정에 휩싸여 권영석이한테서 눈물어린 눈길을 떼지 못했다. 역센 의지를 그린 툭박이 두렷한 얼굴이며 영채로 빛나는 눈이며 두툼한 입술이며... 미덥고 사랑스러운 그 모습을 눈속에 송두리채 집어넣을듯... 라현은 간신히 속삭이었다.

《몹성히... 싸워주세요.》

# 세 포 등 판 에서

성 연 일

기차로 수백리 먼길을 달려  
우리 오른 여기 세포등판  
더운 숨 내뿜으며 배낭을 벗는 우리를  
초겨울 찬바람아 네가 맞아주었구나

그 누가 말했듯이  
비포 눈포 바람포 세 이름 합쳐  
네 이름 세포라더니  
과연 세구나 등판에 부는 바람  
마치 우리를 놀래우기라도 할듯

바람이야 제멋대로 불라지  
때가 되면 눈도 비도 쏟아지라지  
그 바람 그 비 그 눈을  
래일의 기쁨으로 날려버리며  
이 등판에 기름진 풀판을 펼칠  
우리는 세포등판의 개척자들

천막을 세우기도 전에  
보아라 우리는 붉은기를 먼저 꽃았다  
휘날리는 저 붉은기의 펄럭임속에  
우리의 개간전투는 벌써 시작된셈이다

아, 이 땅의 한줌 흙도 제 살점처럼 귀중히  
여기는  
그지없는 애국의 마음을 믿어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불러주신  
세포등판개간전투장  
우리 여기서 땀을 아끼라 힘을 아끼라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 유훈 활짝 꽃피날 여기  
우리 눈앞에 환히 보여온다  
바람에 설레이는 기름진 풀판이  
살찐 집짐승들의 모습

사회주의땅답게 달라진 등판  
그날에 우리는 소리쳐 말하련다  
바람포 눈포 비포가 아닌  
젖소떼 양떼 염소떼를 불러  
그 이름 세포라고 부른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꽃피워가는  
우리 세포등판개척자들이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선경을 펼쳤다고!

잠시후 마차는 골목을 벗어나 바다기슭 비탈진  
둔덕길에 올라섰다. 이른봄의 싱그러운 바다바람이  
불었다. 캄캄한 어둠을 밀어내며 검푸른 멀기가 넘  
실거리는 수평선어름이 흰치 들리었다. 새날의 러  
명이 밝아왔다.

라현은 그 모든것을 알지 못하며 눈물속에 마차  
를 바래우고있었다.

아릿한 마음속에 아득한 옛추억, 소녀시절의 사  
립학교가 떠올랐다.

비분에 잠겨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  
구절을 읊어내리던 송민초선생, 눈물을 펄펄 떨구  
던 소년소녀들...

나라잃은 인민의 마음속에 서리서리 엉켜돌던 그  
슬픔은 드디어 백두산장군의 품에서부터 밝게 가서  
지고 휘황히 봄빛이 비쳐들기 시작했다.

라현은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비명에 세상을  
떠나간 한 시인의 평혼에 막 소리쳐 화답하고싶은  
심정이였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피터지게 부르짖던 오,

시인이여, 빼앗긴 들에, 이 땅에 봄이 오고있다.

아, 백두산 태양의 빛을 안고 온 사람,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들은 얼어붙은 이 땅과 이 마  
음속에 찾아온 사랑의 봄이었다.

라현의 가슴에서는 눈물에 젖은 노래가 울리였  
다. 그것은 이 땅에 찾아올 따스한 봄을 그리며 부  
르고싶던 꿈의 노래, 처녀의 심장을 불태우는 애모  
쁜련정의 노래였다.

정이월 다 가고 삼월이라네  
강남갔던 제비가 돌아오며는  
이 땅에도 또다시 봄이 온다네  
...

※ 후기. 이튿날 이 지방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짧막한 기사가 실렸다.

《...음력 3월 5일 아침 대일본제국을 위해 분골  
쇄신하던 우상기씨가 공산비적들과의 총격전에서  
사살되었다.》

# 개발지의 첫아침에

박성일

바람도 세차  
차들도 닳아 작아진다는  
여기 세포등판에  
붉은기를 칩 꽃았으니  
청춘들아 옷등을 벗자  
강철근육에 알맞는 일감을 잡자

어제 밤 내려선 역  
명판부터 세포청년역  
우리 청춘을 반겨맞는 이 대지 아니냐

눈과 바람과 비가 많이 내려  
그 지명 세포라지만  
드넓은 대지에  
대축산기지를 건설하러 달려온  
피끓는 청춘 우리들에게  
오히려 배짱이 맞아 좋다

세포땅!  
네 이름 정든적은 벌써 오래전 일  
작업복을 제복처럼 입고 찍은  
아버지 어머니 청춘시절 사진첩  
젊은 모습아래 밝혀졌던 지명  
《이천-세포철길공사장에서》

힘준한 산발에 차굴을 뚫고

굽이쳐간 강우에 다리를 놓으며  
당원의 영예를 여기에서 지녔다지  
사랑의 첫삭도 여기에서 움텄다지

오늘은 그 후손인 내가 우리들이 왔거니  
선렬들의 피가 스미고  
부모들의 위훈이 깃든 이 대지에  
오직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어머니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청춘 우리모두 설 자리 찾고저  
남먼저 달려온 땅아

손채양을 하고 바라보는 아득한 저 들판을 넘어  
젖소떼가 아침노을 마중하게 하리라  
염소떼 양떼가 흰구름처럼 흐르고  
방목공들의 구성진 노래 끝없는  
무릉도원으로 꾸리리라

개간지의 첫아침  
드넓은 세포등판은 벌써  
경애하는 김정원원수님께서 펼쳐주신  
우리 청춘들의 위훈의 대지

자 또다시 깊은 인연을 맺자  
어제날 우리의 부모들이 청춘을 빛내인 땅  
오늘은 우리가 청춘을 빛내일 세포등판아

## 상 식

### 대뇌활동의 월규치성과 일규치성

정신로동은 대뇌의 기능활동을 생리적기초로 하는 로동이다. 때문에 대뇌활동의 효과를 높이려면 반드시 그 규칙성을 알아야 한다.

대뇌활동에는 월규치성과 일규치성이 있다.

대뇌활동의 월규치성 다시말하여 지력주기는 한주기가 33일간이다. 매개 주기에는 또한 전기, 후기, 림계기가 있다. 전기와 후기는 15.5일간씩이고 림계기는 2일간이다. 전기에는 정신이 맑고 론리적사유능력이 강하며 학습의 효과가 크다. 후기에는 대뇌의 반응이 비교적 뜨다. 그리고 림계

기에는 대뇌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때문에 계산 능력, 기억력, 리해력 같은것이 다 약하다.

대뇌의 활동능력은 하루동안에도 차이가 있다. 사고측면에서 볼 때 오전 8시에는 신중하고 주도 세밀하며 오후 2시에는 가장 빠르다. 그리고 기억력은 저녁 8시에 제일 좋으며 추리력은 낮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약해진다.

정신로동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대뇌활동의 규칙성에 따라 시간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해야 한다.

## 꽃의 색깔

꽃의 아름다움은 꽃모양과 함께 꽃의 색깔에 의하여 나타난다. 꽃의 색깔은 꽃잎에 들어있는 몇 가지 색소물질의 구성상태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타난다.

꽃잎속에 들어있는 기본색소물질은 카로티노이드와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이다.

카로티노이드는 노란색을 중심으로 진노란색, 감색으로, 플라보노이드는 노란색과 흰색으로, 안토시아닌은 붉은색과 분홍색, 파란색, 보라색으로 나타난다.

이가운데서 꽃색은 주로 여러가지 색을 나타내는 안토시아닌에 의해 다양하게 변화되며 여기에 카로티노이드가 섞여있을 때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흰색꽃은 적은 량의 플라보노이드에 의해서 주로

나타나며 일부 흰색꽃은 꽃잎조직의 세포틈새에 차 있는 공기의 반사에 의해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다리아와 코스모스 등의 흰색꽃은 플라보노이드색소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삼색제비꽃, 금전화, 금련화, 만수국, 수선화, 천수국, 해바라기 등의 노란색꽃은 카로티노이드색소에 의해서 나타난다.

또한 장미, 제라니움, 썰비아, 다리아, 튜립, 글라디올라스 등의 붉은색꽃은 안토시아닌의 붉은색색소에 의해서 나타난다.

백일홍, 금봉어꽃, 아스타, 다리아 등의 붉은 보라색꽃은 역시 안토시아닌의 붉은색과 보라색색소에 의해서 나타나며 도라지, 비연초, 삼색제비꽃, 수레국화의 푸른 보라색꽃도 안토시아닌의 푸른색과 보라색색소에 의해서 나타나는것이다.

### 조선문학 주체102(2013)년 제2호 (루계 제784호)

#### 편집위원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 체 102 ( 2013 ) 년 2 월 1 일

발 행 주 체 102 ( 2013 ) 년 2 월 5 일

7-26808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3

D P R Korea

ISSN 1727-9402